

기본과제 보고서 2008-02

대전여성사회참여지표 개발 연구

Research on the Women Social Participation index in
Daejeon

박 노 동



연구진

연구책임

- 박노동 / 여성정책연구부 책임연구원

- 연구의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여성의 지위와 양성평등 상태를 일목요연하게 나타내 줄 수 있는 여성사회지표체계를 개발하는데 있다. 또한 성 인지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성과를 진단할 수 있도록 지역에 적합한 여성사회지표체계를 구축·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코자 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외 여성사회지표의 정책적용과 개발 사례를 고찰하고, 대전여성사회지표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사례검토와 선행 이론 검토를 통하여 지역에 적합한 여성사회지표 개발시 비교가능성, 대표성, 정책화가능성, 생산가능성의 5가지 원칙을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여 9개 부문(인구, 가족, 교육, 경제활동, 건강, 사회복지, 정치 및 사회참여, 문화 및 정보, 폭력 및 범죄)에서 265개의 예비지표를 추출하였다.

델파이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예비지표의 적절성과 타당성 검토를 하였으며, 최종 9개의 기본영역과 28개의 하위영역, 64개의 대전여성사회지표를 선정하였다. 또한 각 개별지표별로 지표의 정의와 산식, 자료원, 시산표를 작성하여 지표 구성의 이해를 도와 향후 구체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지표의 측정과 활용방안을 제시하여 성 인지정책에 환류 되도록 모형을 제시하였다.

각 부문별로 개발된 지표를 중심으로 지표체계의 특성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부문의 지표(3개 하위영역 9개 지표)는 다른 부문의 지표의 객관적 조건을 형성하는 기초적 성격이 강하다. 이에 따라 다른 부문보다 명시적으로 양성평등을 보여주는 지표의 수가 적지만, 여성의 지위와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구현상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가족부문의 지표(1개 하위영역 6개 지표)는 가족내 여성의 지위와 관련된 지표와 여성의 가사노동과 경제활동의 이중부담에 관련된 지표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지표내용을 보면 성별 본인 명의 재산-주택, 성별 양성평등 가치관, 성별 맞벌이별 가정관련 시간사용, 성별 남자의 육아휴직제도 활용에 대한 태도, 성별 노후 준비 방법이다.

교육부문(3개 하위영역 7개 지표)의 대전여성사회지표는 세부교육과정이나 교육 인력의 양성평등 인식 등에서는 성별불평등 현상이 있음에 주목하여, 지표 구성에는 기초교육수준에서의 남녀차이보다는 고등교육 부문과 평생교육에서의 남녀차이에 비중을 두었으며, 대학졸업 후 인력활용에서의 남녀차이를 보고자 하였다.

경제활동과 소득부문(4개 하위영역 9개 지표)의 여성사회지표는 관심영역별로 평등정도를 대표하는 동시에 정책적 의미가 있는 내용을 선정하였다. 경제활동의 기회 영역에서는 고학력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 육아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하여 성별 25-34세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대졸자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대졸자 실업률을 지표로 선정하였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낮은 지위의 원인이면서 동시에 결과인 직종분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로서 최상위 직종인 관리직의 성별 비율을 지표로 선정하였다. 고용불안정과 저임금의 원천으로 지적받고 있는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의 성별 비교를 지표로 넣었으며, 각종 차별의 결과로 귀결되는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급여액의 남녀비교지표를 선정하였다.

정치 및 사회참여부문(3개 하위영역 6개 지표)에서의 여성사회지표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의 참여와 지위를 보여 줌으로써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지를 측정·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건강분야(4개 하위영역 7개 지표)의 여성사회지표를 보면 전반적인 건강수준을 보여주는 성별 연령별 기대수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평가를 선정하여 성별 차이를 보고자 하였다. 중증도를 중심으로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보여 줄 수 있는 성별 입원율 등을 포함하였다.

사회복지(4개 하위영역 7개 지표)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점차 확대되는 영역이다. 복지부문에서 우리사회의 양성평등 상태를 총체적이고 집약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려고 하였다. 향후 정책방향에 도움을 주기위해 양적인 면뿐만 아니라 질적이 면까지도 측정하여 양성평등에 기초한 국민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 지표 체계 구성을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부문의 여성사회지표로 선정된 지표는 성별 공적연금수급자, 빈곤가구주 남녀 비율,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여성비율,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성별 취업률, 장애인 성별 취업자 비율의 다섯 개 지표이다.

문화 및 여가부문(2개 하위영역 5개 지표) 지표는 성별 분리통계를 통해서 남녀 간의 격차를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취업유무, 결혼상태, 연령, 어린자녀의 존재유무 등에 따른 여성 내부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였다. 문화 및 여가부문의 여성 사회지표는 성별 예술행사 관람률, 성별 인터넷 이용률, 여가활동시간 등이다. 이 분야의 지표가 적은 이유는 취향의 문제로 인한 것일 수 있고, 성별간 차이와 함께 여성내부의 차이가 큰 지표들은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폭력과 범죄(4개 하위영역 8개 지표)를 보면 성별 연령별 배우자 가족폭력 경험률, 성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연도별 강간범죄의 공식 발생건수, 강간범죄자의 처분결과, 직장 내 성희롱 성별 경험률과 신고건수 이다. 이들 지표는 여성이 희생자로 많이 노출되는 범죄에 대한 지표들이며, 발생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삶의 질을 하락시킨다는 이유에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지표로 포함시켰다.

지표개발은 일회적이어서는 무용할 뿐이다. 연구결과 향후 개발된 지표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대전여성사회지표집 정기발간

지표개발이후 가장 시급한 일은 지표체계를 이용한 지표집을 발간하는 일이다. 아울러 지표의 좀더 정리된 형태인 지수개발을 염두에 두면서 지표체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수를 개발한다면 대전지역사회의 여성의 지위와 양성평등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며 정기적으로 시계열 분석과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지역간 지위상태의 비교측정과 지역여성정책추진시 활용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표는 지역별 비교 가능한 표준화된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전국의 광역시와 대전광역시간 지역단위의 비교를 통해 양성평등이 취약한 내용과 영역을 파악하여, 우리시의 여성정책추진 실적 평가나 향후 대전광역시 발전계획에 성인지적 정책의 구체적인 목표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성인지적 지역통계생산 기반 구축

대전광역시의 경우에는 성 인지적 지역통계생산 기반 구축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타시도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다. 통계청이나 통계개발원이 대전에 입지해있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대전시 자체의 성인지적 통계생산 기반이 조기에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행정통계의 이용 제도화

향후 조사의 고비용을 감안할 때 행정통계의 이용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행정 통계 생산과 활용시 성별분리통계의 원칙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두어야 한다.

지속적인 정기적 조사 실시 및 지표체계 개선

본 연구의 지표개발을 수행하면서 기본적인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통계자료가 없어 생산이 불가능한 지표들이 다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지속적인 변화 과정에 대한 시계열분석이나 지역간 비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위주로 설문지를 개발하여 정기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 조사를 통해 일회적인 지표의 생산이 아닌, 시계열적 변화와 향후 정책에 중요한 모티브를 형성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위상이 갖추어질 것으로 판단한다.

통계관련 법 강제를 통한 성인지적 지표 관리

여성사회지표 적용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정책의 성주류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현황 및 결과에 대한 통계자료에 성별을 기본 분석단위로 포함시키는 법적 조치를 강화하여야 한다.

국제도시 간 지표 비교 체계 구축

국제도시와의 공동지표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체나 정기적인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한다. 국제도시 간 협약을 체결하고 지표에 대한 검토 및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정기적인 국제회의가 필요하다.

- 목 차 -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목적	4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5
1. 연구내용	5
2. 연구방법	7
3. 연구의 한계 및 제한점	9
제2장 대전여성사회지표 개발을 위한 이론적 고찰	12
제1절 여성사회지표의 개념 및 역할	12
1. 여성사회지표의 개념	12
2. 대전여성사회지표의 개념	14
3. 여성사회지표의 기능과 활용	15
제2절 여성사회지표의 개발 및 활용 사례 검토	18
1. 국제적 연구 및 활용동향	18
2. 국내 개발 및 활용사례 검토	27
제3절 대전여성사회지표 개발 절차 및 모형	33
1. 개발 절차	33
2. 제약조건 및 한계점	34
3. 대전형 여성사회지표개발 모형	36
제3장 대전여성사회지표 개발	44
제1절 기본방향	44
제2절 예비지표의 선정	47

1. 주영역 및 하위영역 설정	47
2. 영역별 세부지표 선정	49
제3절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분석	59
1. 조사개요	59
2. 전문가 설문결과 및 전문가 자문내용 분석	60
제4절 대전여성사회지표 설정	80
제4장 대전여성사회지표의 측정과 활용방안	84
제1절 지표의 측정	84
1. 인구	84
2. 가족	87
3. 교육	89
4. 경제활동	92
5. 정치 및 사회참여	97
6. 건강	100
7. 사회복지	103
8. 문화 및 여가	107
9. 폭력 및 범죄	109
제2절 지표 활용방안	113
1. 기본방향	113
2. 정책환류	115
3. 지역별 현황 분석 및 평가	117
4. 연령별 분석	118
5. 계층별 분석	118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20
제1절 결론	120
제2절 정책제언	124

1. 대전여성사회지표집 발간	124
2. 지역간 지위상태의 비교측정과 지역여성정책추진시 활용	124
3. 성인지적 지역통계생산 기반 구축	125
4. 행정통계의 이용 제도화	125
5. 지속적인 정기조사 실시 및 지표체계 개선	126
6. 지역통계(성인지적 통계) 총괄 부서 설치	127
7. 통계관련 법 정비를 통한 성인지적 지표 관리	128
8. 국제도시 간 지표 비교 체계 구축	131
참고문헌	131
부 록 지표체계를 활용한 기초통계표	133

- 표 목 차 -

<표 1-1> 여성사회지표의 선정기준과 수행과제	5
<표 1-2> 영역별 여성사회지표 선정 및 산식 도출을 위한 검토 내용	6
<표 2-1 > 사회지표의 가치	13
<표 2-2 > 여성지위지표와 양성평등지표의 비교	14
<표 2-3 > 사회지표의 기능	15
<표 2-4> 여성사회지표의 기능	17
<표 2-5> The world's Women 2000: Trends and Statistics의 관심영역	19
<표 2-6> The life of Women and man in Europe의 분류형태	20
<표 2-7> Society at a Glance의 평등지표(EQ)	21
<표 2-8> Women and Man in Sweden의 지표체계	22
<표 2-9> Women in Australia 2001의 지표체계	24
<표 2-10> Key indicators of women's position in Britain에 나타난 주요지표 ..	25
<표 2-11> 주요 선진국의 지표수록내용 및 시사점	27
<표 2-12>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나타난 여성관련 통계	29
<표 2-13> 여성통계연보의 사회통계 및 지표체계	30
<표 2-14>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간한 여성통계 현황	31
<표 3-1> 국내외 여성사회지표 목록	47
<표 3-2> 기본영역과 하위영역별 예비지표수	48
<표 3-3> 인구부문의 예비지표	49
<표 3-4> 가족부문의 예비지표	51
<표 3-5> 교육분야의 예비지표	52
<표 3-6> 경제분야의 예비지표	53
<표 3-7> 정치 및 사회참여분야의 예비지표	54
<표 3-8> 건강분야의 예비지표	55

<표 3-9> 사회복지분야의 예비지표	56
<표 3-10> 문화 및 여가분야의 예비지표	57
<표 3-11> 폭력과 범죄분야의 예비지표	58
<표 3-12> 영역별 중요도 평가	60
<표 3-13> 전문가 조사후 하위영역의 조정 내용	66
<표 3-14> 전문가 설문후 조정된 지표수	67
<표 3-15> 인구영역의 잔류지표와 제외지표	68
<표 3-16> 인구부문 여성사회지표의 선정이유	69
<표 3-17> 가족부문의 잔류지표와 제외지표	70
<표 3-18> 가족부문 여성사회지표 선정이유	70
<표 3-19> 교육부문의 잔류지표와 제외지표	71
<표 3-20> 교육부문 여성사회지표 선정이유	72
<표 3-21> 경제부문 잔류지표와 제외지표	72
<표 3-22> 경제부문 여성사회지표 선정이유	73
<표 3-23> 정치 및 사회참여분야 잔류지표와 제외지표	74
<표 3-24> 정치 및 사회참여부문 여성사회지표 선정이유	74
<표 3-25> 건강부문 잔류지표와 제외지표	75
<표 3-26> 건강부문 여성사회지표 선정이유	76
<표 3-27> 사회복지부문 잔류지표와 제외지표	76
<표 3-28> 사회복지부문 여성사회지표 선정이유	77
<표 3-29> 문화분야 잔류지표와 제외지표	78
<표 3-30> 문화 및 여가생활부문 여성사회지표 선정이유	78
<표 3-31> 폭력과 범죄분야 잔류지표와 제외지표	79
<표 3-32> 폭력과 범죄부문 여성사회지표 선정이유	79
<표 3-33> 최종 선정된 대전여성사회지표	80

- 그림 목 차 -

<그림 1-1 > 연구절차 흐름도	8
<그림 2-1> <스웨덴 통계청의 “Equal X” 서비스 화면>	23
<그림 3-1> 인구부문 하위영역별 중요도	61
<그림 3-2> 가족부문의 하위영역별 중요도	61
<그림 3-3> 교육분야의 하위영역별 중요도	62
<그림 3-4> 경제분야의 하위영역별 중요도	62
<그림 3-5> 정치 및 사회참여분야의 하위영역별 중요도	63
<그림 3-6> 건강분야의 하위영역별 중요도	63
<그림 3-7> 사회복지분야의 하위영역별 중요도	64
<그림 3-8> 문화분야의 하위영역별 중요도	64
<그림 3-9> 폭력과 범죄분야의 하위영역별 중요도	65
<그림 5-1> 여성사회지표 개발 및 개선 절차도	127

제 1 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오늘날 급격한 변화를 치르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정보체계구축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사회도 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간곡해지고 있다. ‘세계여성의 해’ 해동강령에서는 “적합한 자료와 정보는 정책을 개발하고 그 진척사항을 평가하는데 필수적이므로 여성의 상황에 대한 제반 분야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최우선권을 두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유엔 안에서도 평등, 평화, 발전을 추구함에 있어 여성의 지위와 삶의 질을 나타내는 체계적이고 신뢰할 만한 자료와 통계를 수집하고 축적하며, 지표를 개발하는 일에 주력해 오고 있다.

우리사회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10대 과제], [여성발전기본법] 등 여성의 사회참여가 급격히 확산되는 등 여성의 지위와 역할, 그에 따른 삶의 양식의 변화가 초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여성관련 통계치들을 집약하여 여성의 상황을 보여주기 위한 자료집이 생산되고 있지만 지역 차원에서는 여성 삶의 변화와 지위를 체계적으로 나타내는 포괄적인 지표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다.

또한 지역차원에서 여성정책 수립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표 설정 요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으나 지역내 수요자 중심의 여성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에 비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통계체계는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자치단체 차원에서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표설정 및 관련통계자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지원체계가 먼저 갖추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여성정책 수립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관련지표 및 기초통계자료의 적시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2003년 [대전여성통계]를 발간하여 타시도에 비하여 좀더 발 빠르게 성별분리 통계를 갖추고자 시도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후속 연구가 단절됨에 따라 시계열 변화를 분석하거나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의욕적인 성별분리 통계정책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따라서 정책환류 체계를 갖추기 위한 기초자료를 년도별로 제공할 필요성이 간절해지고 있다. 지역내에 산재되거나 비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자료와 통계를 체계적으로 축적, 여성의 삶과 관련된 각 부문별 지표를 설정하여 관련 자료 및 통계가 정책에 환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연차적으로 양성평등지표체계의 개발, 개발된 지표체계를 적용한 통계자료와 실태조사결과 분석, 정책환류체계의 개발 등의 논리적인 순서로 여성사회지표체계를 구축, 활용해나가야 할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여성의 지위와 삶의 질을 효과적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 여성사회지표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대전지역 여성의 삶과 관련된 사회통계 및 지표를 검토·분석하여 대전광역시 여성의 사회참여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여성과 관련된 기존 통계 및 지표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개선·보완하며 대전지역 여성의 삶의 질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로 여성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대전광역시 거주 여성의 삶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고, 여성 삶의 변화를 보여줌으로써 대전광역시 여성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여성사회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정책적으로는 대전광역시 여성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의 성과를 진단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한 지표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제안하고자 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에 적합한 여성사회지표 개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선 여성사회지표의 정책적용과 개발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사회지표 정의 및 연구범위가 설정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지표, 관련통계, 핵심지표, 사회지표 등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조사 및 자료 분석 범위를 설정하였다.

다음으로는 여성사회지표연구의 흐름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선진사회 지표 연구 및 활용 사례, 국내 여성사회지표연구 및 활용사례를 검토하였다.

또한 여성사회지표체계개발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여성사회지표 개발 모형을 탐색하여 제시하였으며, 연구방법 및 절차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제시하였다.

<표 1-1> 여성사회지표의 선정기준과 수행과제

선정기준	과제
비교가능성	남녀비교가 가능한 지표 선정
대표성	다양한 관련지표 중 중복되지 않는 대표적 지표 선정
정책화가능성 (발전가능성)	여성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활용될 수 있는 지표로 선정
생산가능성	통계자료의 수집이 가능하고, 공식통계로 측정 가능한 지표 선정

이러한 작업은 결국 대전시 여성사회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전과정에 해당된다. 대전시 여성사회지표를 개발하여 제시한 바, 지역단위 여성사회지표 개발 및 활용의 필요성을 제안한 후, 지표개발 연구절차 및 방법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한편, 전문가 조사결과에 따른 영역 및 구성체계를 확정하고 최종적으로 대전시 여성사회

지표의 선정기준을 확정하여 아래 <표 1-1>과 같은 선정기준 및 과제를 제안하였다.

분석의 범위는 여성사회지표의 관련부문을 세분화한 후 인구, 가족, 정치, 행정, 경제, 교육, 사회참여, 사회복지 등 9개 부문으로 영역화 하였으며, 각 부문은 다시 하위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각각의 영역과 관련된 핵심지표에서 검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2> 영역별 여성사회지표 선정 및 산식 도출을 위한 검토 내용

영역별 여성사회 지표 선정 및 산식 도출 내용	인구	출산율, 합계출산율, 노령화지수, 부양비, 연도별 출생성비, 출산 순위별 출생성비, 총인구
	가족	가족형태별 분포, 연령별 1인가구 분포, 기혼여성의 가사분담시간 및 행위자 비율, 연령별 혼인건수, 연령별 이혼건수, 맞벌이 부부 가족 분포, 혼인 및 이혼에 대한 태도,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도
	교육	25세 이상 인구의 학력구성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및 취학률, 초중고 여교원의 직급별 분포, 고등교육기관의 여교수 비율, 이공계 대학 여성 비율 및 졸업자 추이, 평생학습참여현황, 학교급별 졸업생의 취업률
	경제활동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산업별 취업자 분포, 연령별 실업률, 산업별 남녀임금격차, 사업체 대표자 분포, 저임금여성근로자비율, 구직자 및 취업알선 비율,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현황, 시간제 및 비정규직 분포
	건강	유병율, 인공임신중절률, 보건의료인력
	사회복지	국민연금가입자 현황, 운영주체별 보육시설수 및 이용자 현황, 자녀의 양육실태, 빈곤여성가구주 현황, 가구주 성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정치 및 사회참여	지방의회의원의 여성비율, 지자체 단체장의 여성비율,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참여비율,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여성 단체수와 회원수
	문화 및 정보	주당평균 여가시간, 여가활용방법 및 만족도, 컴퓨터 사용능력 등
안전	여성범죄자 비율 추이, 가정폭력사범처분결과, 성폭력사범의 처분결과, 성희롱 신고 건수, 1366 상담현황, 강간범죄 발생건수, 안전에 대한 인식	
지역단위 여성사회지표의 활용 및 보완 과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여성사회지표의 효율적인 산출 방안 제안 - 지역 여성사회지표의 지속적 관리 및 정책 모니터링 활용을 위한 기초통계 업그레이드 방안 제시 - 전국단위의 지표체계와의 연동 모형 제시 - 지역의 여성정책 수립 및 추진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행되었다. 우선 문헌연구를 통하여 관련이론을 검토하고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연구방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전국단위의 [여성통계연보] (2003)와 [여성사회지표개발](1996)에서 제시된 지표체계를 기본 골격으로 하여, 대전광역시 여성정책 기본계획, 대전광역시의 주요업무계획 등에 기초가 되는 통계와 부문별 기초지표를 나열한 후 이들 중 지역별 여성지위와 현황을 파악하는데 주요한 통계를 대상 지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여성사회 지표 설정 기준의 구체화, 모형의 과학적 개발, 활용방법의 제안, 관리방안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는 통계청에서 제공한 원시자료를 성별 및 지역분리 원칙을 정하여 분석하였다. 통계 지표의 측정가능성을 검토한 후 통계청 DB 시스템(<http://www.kosis.kr>)의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지표의 측정값을 산출하였으며, 통계청 DB에서 추출할 수 없는 자료의 경우 원시자료를 구입하여 분석 후 활용하였다.

그리고 기존 관련지표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현재의 자료와 기존 통계자료와의 상호 비교 분석 및 종단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추세를 예측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분야의 연구자 대상 E-mail을 통한 전문가 조사(Delphi)를 수행하였다. 여성학 전공교수와 연구기관의 연구자, 여성정책 수립담당자인 공무원, 여성운동 종사자 등 지역내 여성문제 전문가 2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지의 내용은 전체 지표체계 영역 분류에 대한 타당성, 부문내 관심영역과 세부관심영역 분류에 대한 타당성, 대전여성사회지표(안)에 대한 적합성, 여성사회지표의 선정, 추가 또는 삭제 희망 지표 등으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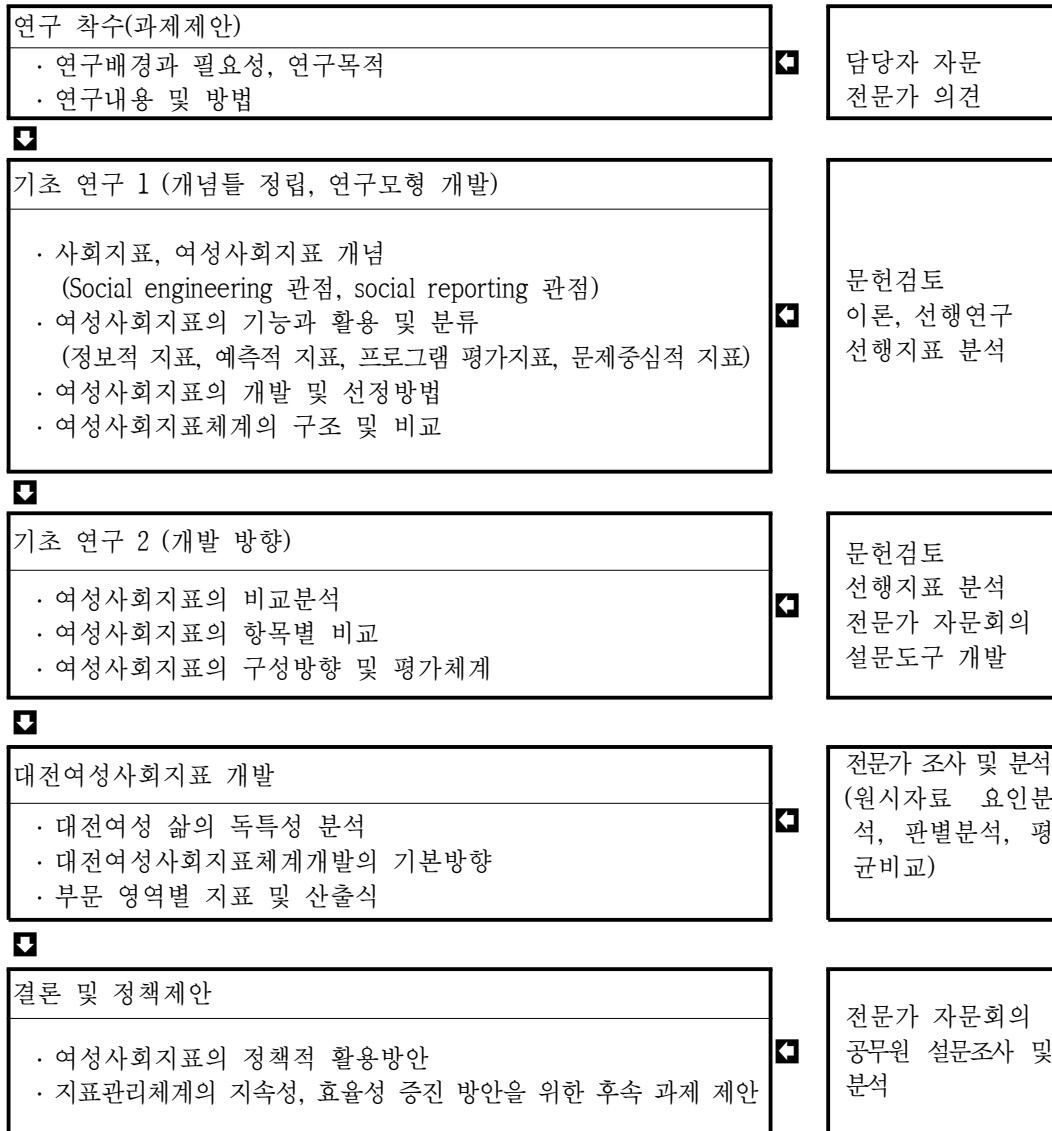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제시된 의견을 보고서에 반영하였다.

- 지표연구자, 각 분야 여성연구자,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여 지표체계의 타당성 및 활용방안에 대한 자문 요청
- 1회 자문요청내용 : 기존의 여성관련 통계 및 지표와의 차별화 방안, 지역단위

지표생산을 위한 절차 및 방법,

- 2회 자문요청내용 : 여성사회지표의 정책적 활용방안, 지표관리체계의 지속성, 효율성 증진 방안을 위한 후속 과제 논의

<그림 1-2 > 연구절차 흐름도



3. 연구의 한계 및 제한점

대전여성사회지표는 여성의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다. 즉, 여성사회지표는 궁극적으로 여성의 지위만을 나타내주는 것이 아니라 양성평등을 지향해야 한다.

최근 우리사회 내에서 일고 있는 지나친 분파적 대립구조(지역간, 정당간, 종파간 갈등과 보수, 혁신 등을 둘러싼 이념 갈등 등)을 감안 할 때 가급적 남성 대 여성이라는 대립구조가 부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정책이 성중립적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남성 중심으로 개발? 집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시적으로 여성에 대한 고려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 현 상황에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고려를 우선적으로 강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양성간의 형평성이 달성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여성사회지표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여성사회지표가 왜 필요한가 하는 의문의 제기이다. 우선 무엇보다 여성사회지표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확산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대전시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기획되는 것이므로 특별히 남녀차별의 제한을 두는 정책이 아닌 한 성중립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성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양성평등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둘째, 여성사회지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더라도, 새로운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개선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행정현상을 새로운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인식의 전환과 새로운 가치의 창출을 전제로 한다.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개념이 얼마나 개발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셋째, 모든 정책이 연령, 계층 등 다른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상황에서 성만 고려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즉 여성을 고려해야 한다면, 노인이나 장애인 등 다른 집단도 정책에서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 또한 여성도 동질적 집단이 아니므로 여성 내의 차이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정책과 업무를 기획, 집행, 평가한다는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여성사회지표를 개발코자 하는 것이다. 양성평등 실천의지가 아무리 강하여도 관련 정책 및 업무의 실천 성과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평가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자치행정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 2 장

대전여성사회지표개발을 위한 이론적 고찰

.....
제1절 여성사회지표의 개념 및 역할

제2절 여성사회지표의 개발 및 활용사례 검토

제3절 여성사회지표 개발 절차 및 모형
.....

제 2 장 대전여성사회지표 개발을 위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여성사회지표의 개념 및 역할

1. 사회지표 및 여성사회지표의 개념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를 사회조건 및 상황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도구적 개념으로 활용하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이 용어를 사회과학적인 의미에서 최초로 사용한 학자는 Raymond Bauer(1966)이다. 그는 사회지표를 “우리들로 하여금 가치 및 목표와 관련하여 우리가 현재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알게 하며, 특정한 정책내용을 평가하고 그 효과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통계나 통계 계열(statistics series) 및 기타 모든 형태의 증거”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서 Bauer는 사회지표의 사회정책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즉 특정한 사회정책을 평가하고 국가의 목표와 그 우선순위를 설정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사회지표의 정책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이후 Albert D. Biderman은 사회지표를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회의 여러 조건을 제시해주는 계량적 자료”로 지칭하면서 삶의 질과 관련하여 보고 있으며, Humberger는 “기초욕구를 얼마나 충족시키고 있는지 즉 삶의 질과 사회복지의 향상으로 대체하여 사회지표를 기초욕구에 초점을 맞추는 시각을 보여주었다.

이렇듯 다양한 관점의 사회지표에 대한 정의가 존재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회지표 개념에 대한 논의는 크게 보아 명목적 관점에서의 정의와 실체적 입장에서의 정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명목적 정의에서 사회지표는 사회적 조건이나 사회적 상태를 측정하고 경제지표를 보완하며 사회변동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기여하는 자료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회의 여러 조건을 제시해주는 계량적 자료를 의미한다. 기초욕구를 얼마나 충족시키고 있는지 즉 삶의 질을 측정하는 척도라고 볼 수 있다.

실체적 관점에서 볼 때 사회지표는 우리들로 하여금 가치 및 목표와 관련하여 우리가 현재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알게 하며, 특정한 정책내용을 평가하고 그 효과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통계나 통계 계열 및 기타 모든 형태의 증거라 할 수 있다.

<표 2-1 > 사회지표의 가치

- 사회지표는 사회의 가치와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
- 사회지표는 사회의 변동 특히, 삶의 질 개념을 포함하는 안녕의 변동을 양적으로 측정하여야 하고, 측정 가능하여야 한다.
- 사회지표는 사회의 가장 현저하거나 중요한 실질적인 부분을 포함하여야 한다.
- 사회지표는 사회적 관심을 표현하여야 하며, 정책과 관련성을 가지고 그 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 사회지표는 특정한 인구집단의 안녕을 측정할 수 있도록 분해 가능하여야 한다.
- 사회지표는 요약을 포함한 통계 특히, 시계열적 통계로 표현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여성사회지표의 개념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인가? 아래에 적시해 보도록 한다. 여성사회지표에 대한 별도의 정의는 기존 연구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통상 사회지표의 일반적 정의에 준하되, 부문으로서 여성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각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여성관련 지표의 총합으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회지표와 구분하여 여성사회지표가 갖고 있는 특수한 성격을 유의하여 정의하고 있다. 즉 여성관련 지표의 개발과 사용은 단순한 사회보고보다는 사회변화를 지향하는 정책지향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시계열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사회지표는 그 목적과 내용에 따라 ‘여성지위지표’와 ‘양성평등지표’로 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다.

〈표 2-2〉 여성지위지표와 양성평등지표의 비교

	여성지위지표	양성평등지표
변수의 특성	원인과 현상을 보여줌	결과의 측면에 치중
변수의 수	다양한 변수 포함	평등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변수의 수가 적음
분석 양식	남녀비교와 여성 내부 집단간 비교 병행	남녀비교에 집중
정책에의 활용성	상대적으로 원인의 분석에 효과적	이슈제기와 정책의 평가에 효과적
전형적인 지표	여성의 모성건강, 성폭력, 이혼율 등	남녀임금수준, 남녀국회의원비율 등

2. 대전여성사회지표의 개념

사회지표 및 여성사회지표의 개념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 맥락에서 대전여성사회지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작적 정의를 시도하고자 한다. 대전여성사회지표란 남녀의 동등한 지위를 갖도록 생활수준과 사회상태의 종합적인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척도이며 사회변화의 방향을 예측 가능하게 하여 이에 적합한 정책의 수립 및 실현에 필요한 정책 실현 수단이 되는 계량화된 측정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즉, 대전여성사회지표는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평가기준 혹은 계획기준 등의 실행척도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절대적 가치를 지닌 여성사회지표의 선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가급적 추상적·구호적·복합적 의미의 지표를 제외하고 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격을 지닌 지표를 선정하여야 한다. 대전여성사회지표는 기존 정책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았던 부수적이며 간접적인 효과 특히, 사회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역기능까지도 측정가능하게 해줌으로써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정책설정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대전여성사회지표는 여성과 남성 사이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현존하거나 파생되고 있는 양성간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개선하거나 개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여성사회지표의 기능과 활용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지표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사회지표의 기능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Land와 Spielman은 사회지표의 기능을 사회정책적 기능과 사회변동적 기능, 그리고 사회정보적 기능 등으로 크게 세가지로 나누고있다. 사회정책적 기능은 특정한 정부 공공정책을 평가하고 국민경제체정과 유사한 사회계정체계를 설정하는 것을 말하고 사회변동적 기능은 사회적 조건을 측정하고 삶의 질 내지는 인간 생존의 조건에 관한 정보를 마련하여 여러 경제지표를 보완하는 것, 그리고 사회변동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정보적 기능은 사회보고체계의 개선과 장래에 있을 사회적 사건과 사회생활의 예측의 기능으로 정리하고 있다.

<표 2-3 > 사회지표의 기능

구분	기능	세부분류
Morser (2003)	사회여건의 상태와 변동을 요약함으로써 현존하거나 파생되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지적하고 사회정책과 프로그램의 성과를 전달	사회정보기능 사회보고기능 사회변화측정기능
UNESCO	사회의 상태와 변동의 추세를 기술하며, 지표간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하여 정책결정자에게 사회변동을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줌	기술적 기능 사회적 연계 기능 분석도구로서의 기능
Land (2004)	정부의 정책을 수립 평가하도록 하며, 사회조건의 변화를 측정토록 하고 사회적 조건과 사회생활을 전달해줌	사회정책 기능 사회변동적 기능 사회보고적 기능
종합적관점	현재의 사회상태와 변동추세에 대한 판단 장래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예측의 지침 사회문제의 사전 경보장치 역할 사회 각 분야의 목적설정과 성취 평가 지침 사회적 인과관계 해명과 문제의식제고 도구	

Morser도 사회지표의 기능을 사회여건의 상태와 변동을 요약함으로써 현존하거나 파생되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지적하고 사회정책과 프로그램의 성과를 전달하는 것이라며, 사회정보, 사회보고, 사회변화측정의 세 가지로 보고 있다.

사회지표는 이미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보다 다양하고 합리적인 정책 마련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각 분야별로 다양한 지표 체계가 개발·연구되어 보다 전문화되어가고 세분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지표가 보다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어 가는 이유는 사회분화 및 관심사의 변화, 그리고 사회가치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한 분야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고 현 상태를 측정하여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때문에 지표와 관련한 최근의 연구들은 청소년, 아동, 인적자원개발, 복지 분야 등의 특정 부문지표와 지역통계 및 지표로 세분화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중요한 추세중 하나는 지표에도 성인지적 관점 지역적관점을 개입시키는 것이다.

성인지적 관점으로 통계 및 지표를 생산하려는 움직임은 여성정책에 대한 시각의 변화와 여성지위에 대한 재인식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는 성인지적 관점이 각 정책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여성사회지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첫째, 사회 여러 영역에서 성별 현재 상태와 변동추세에 대한 판단을 가능하게 해 준다. 즉 넓은 시각으로 사회적 패턴에 대한 정보를 공급한다. 둘째, 각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위해서 정책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준다. 여성사회지표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성별 격차 및 차별의 실태 및 남성과 여성의 현상태를 비교 분석하여 보다 나은 성 평등 상태를 추구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여성사회지표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기능은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성별 불평등뿐만 아니라 유사성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여성사회지표는 여성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이유는 여성은 그동안 사회적 약자이자 불평등의 대상으로 위치해 있었고, 여러 부문에서 현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남성이 불평등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여성사회지표를 통해 우리는

남녀 각각에게 존재하고 있는 성차별을 찾아낼 수 있을 뿐만아니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 즉 유사성도 발견할 수 있다. 넷째, 미래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예측과 함께 여성과 남성 문제의 사전 경보장치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여성사회지표는 효율적인 정책 시스템을 생산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표 2-4> 여성사회지표의 기능

- 사회 여러 영역에서 성별 현재 상태와 변동추세에 대한 판단 근거로 기능
- 각 영역의 양성평등을 위해 정책적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침 역할
- 성별 차이 및 유사성에 대한 파악
- 미래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예측과 함께 여성과 남성 문제의 사전 경보장치 역할

제2절 여성사회지표 개발 및 활용 사례 검토

이 절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여성사회지표 생산 및 관련 통계 산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최근 지표개발의 현황 및 변화추세를 살펴 보도록 한다. 또한 각국에서는 어떠한 여성사회지표를 생산하고 발전시켜나가고 있으며, 어떠한 내용을 지표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한편, 국내의 개발사례도 함께 검토해보도록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지표 개발하는데 어떠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국제적 연구 및 활용 동향

1) 국제기구

(1) UN

1984년에 출간된 UN의 두 보고서(Compiling Social Indicators of the Situation, Improving Concepts and Methods for Statistics and Indicators on the Situation of Women(1984))는 통계자료의 개발보다는 각국에 존재하는 자료의 효율적 활용과 통계자료들의 개념 및 수집방법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후 본격적으로 여성사회지표 및 양성평등 통계와 관련하여 출간한 것이 Handbook for Producing National Statistical Reports on Women and Men(1997)이다. 이 자료에서는 건강과 육아, 인구정주와 환경, 일과 경제의 세 부문에 대한 세부적인 지표 제시 및 구체적인 활용 지침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지표들과 관련된 정책의 타당성과 자료출처, 통계수집 및 분석, 그리고 다른 양식의 분류와 추가할 지표들, 문제점 등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표를 어떻게 제시하는가와 도표 및 차트를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유엔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여성관련 통계자료를 개발하였는데 가장 대표적인 자료가 The World's Women: Trends and Stastics(2000)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인구, 가족, 보건, 교육 및 정보통신, 노동, 인권과 정치참여 등 총 6개 부문으로 분류하여 지역(대륙 및 국가)별 비교분석이 되어 있으며, 국제이주자와 관련된 지표가 수

록되어 있고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하여 인권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

<표 2-5> The world's Women 2000: Trends and Statistics의 관심영역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인구	총인구, 인구구성, 인구분포, 인구이동
가족	가족형성, 가족구성, 가족생활
보건	생존연수, 출생 및 사망, 상병
교육과 정보통신	교육기회, 교육여건 및 자원, 커뮤니케이션
노동	인력현황, 여성취업현황, 출산
인권과 정치참여	정치참여, 행정참여, 인권

출처 : United Nations(2000). The world's Women 2000: Trends and Statistics.

2003년에는 UN 아·태 경제사회위원회(UNESCAP)에서 Gender Indicators(2003)라는 성인지 지표 분석틀을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여성의 빈곤, 여성의 교육과 훈련, 여성과 건강,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과 무력분쟁, 여성과 경제, 권력 및 의사결정과 여성 등 12가지 영역의 주요 관심분야와 제도적 조치 및 재정적 조치를 구성, 각 주요 관심분야에 대한 전략적 목표 설정 및 목표달성을 위한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듯 UN의 지표관련 보고서들은 국가간 비교의 기초자료 제공, 정책 형성을 위한 기본 목표에 충실하여 지역의 여성정책 추진의 정책적 목적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2) EU

다음으로는 Europe Commission에서의 지표개발 및 활용 정책을 검토해보도록 한다. EU에서 출간한 The Life of Women and Men in Europe : a statistical portrait data 1980-2000(2003)는 유럽에서의 여성과 남성 삶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통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보고서로 성별분리에 충실하고 있다. 이 책에서

는 각 생애주기별로 지표방식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생애주기를 형성기, 노동 및 가족번성기, 은퇴기로 나누어 관련된 다양한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표 2-6> The life of Women and man in Europe의 분류형태

대분류	소분류
형성기 (the formative years)	인구학적 측면
	가족 환경
	교육
	생활방식
노동 및 가족 번성기 (the working & family years)	일과 가족생활의 융화
	고용패턴과 정책결정
	여성과 남성의 지속적인 교육
	여성과 남성의 수입
	여성과 남성의 빈곤의 위험성
	생활방식
	여성과 남성의 건강 상태
은퇴기 (the retirement years)	인구학적 측면과 가족 환경
	수입 수준
	생활방식
	은퇴기 여성과 남성의 건강 상태

자료 : Europe Commission(2002). The life of Women and Men in Europe a statistical portrait data 1980-2000.

또한 EU에서는 The social situation in the European Union (2004) 보고서를 발간하여 경제, 건강, 인구, 교육 등에 대해서 성별 분리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통하여 성 평등과 관련한 부분을 정책결정, 고용, 임금의 세 부분에서 상세히 살펴보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EU의 정책방향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얻은 시사점은 남성과 여성을 비교하는 접근법에 충실하다는 점에 있었으며, 여성을 위한 지표를 넘어서 양성평등을 향하는 지표체계를 개발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이였다.

(3) OECD

OECD는 양성평등을 인권의 중요한 핵심 요소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의지는 OECD에서 발간한 Society at a Glance (2002)에서 읽을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사회 배경, 사회상, 사회적 대응 등 크게 세 개의 범주로 나누어 접근한다. 이 세가지 분류는 여타의 지표생산과 마찬가지로 사회정책의 목적과 관련하여 생산된다. OECD 사회지표는 다섯 개의 부문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정황지표, 자립도지표, 평등지표, 건강지표, 사회적결속력지표가 그것이다. 이들 중 특히 평등지표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양성평등과 사회적 평등에 목적을 두고 만들어졌다. 고용과 실업지표, 교육수준, 세금 면제율, 평균여명, 질병 등은 성별로 분리하여 나타냄으로서 정책형성에 성인지적 정책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7> Society at a Glance의 평등지표(EQ)

평등지표 (EQ)
EQ 1. 노년층의 수입
EQ 2. 아동빈곤
EQ 3. 공공부조
EQ 4. 순 사회 지출
EQ 5. 복지 수급자
EQ 6. 장애인 지원
EQ 7. 상대적 빈곤
EQ 8. 수입 불평등도
EQ 9. 저임금 노동
EQ 10. 성별 임금 차
EQ 11. 최소임금
EQ 12. 사적부조

자료 : OECD(2002). Society at a Glance: OECD Social Indicators.

2) 주요 선진국

성인지 통계 수요 확대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주요 국가의 성인지 통계 및 지표개발 활동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1) 스웨덴

우선 스웨덴은 대표적인 성인지 통계 및 지표개발의 선진국으로 볼 수 있다. 스웨덴의 성인지 통계 및 지표들을 살펴보면 “Women and Men in Sweden. Facts and Figures”가 있다. 이 책은 정기적(3년마다)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기초적인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표 2-8> Women and Man in Sweden의 지표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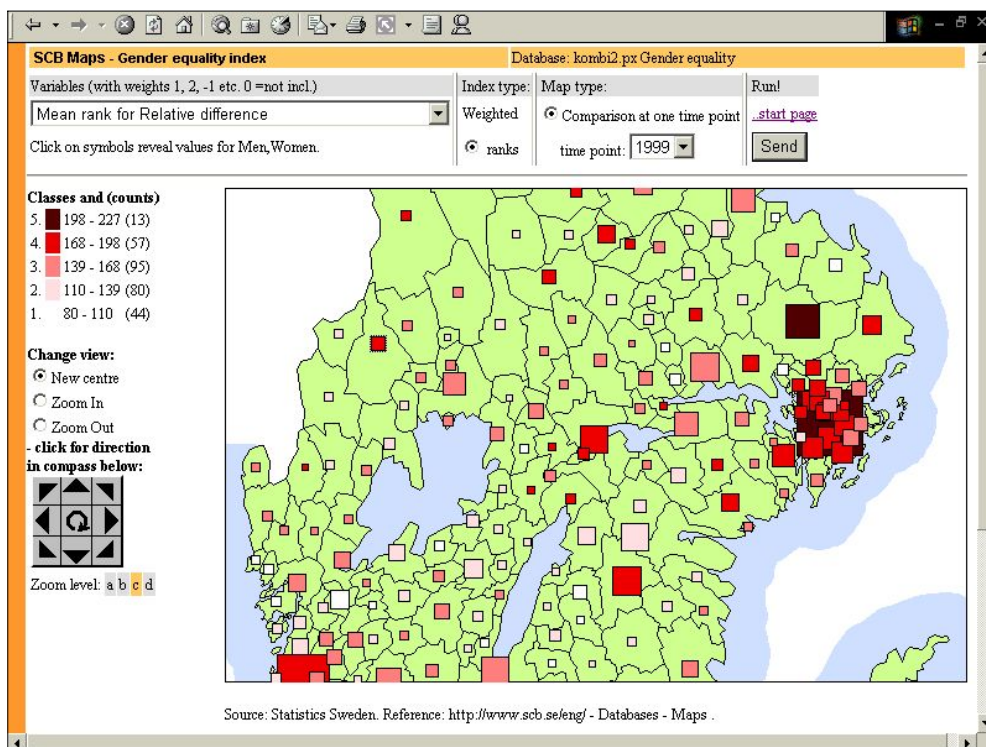
부문	관심 영역
인구	총인구, 인구구성, 가족구성, 출생 등
건강	건강상태, 흡연율, 비만, 운동, 사망 등
교육	교육기회, 교육여건 및 자원, 교육의 결과
시간사용	시간사용, 무급노동시간사용 등
육아	육아, 노인개호
노인개호	연금수령
취업	노동력, 노동 상태 및 노동시간, 경제활동비율, 업무분리, 실업률 등
임금	직업군 평균임금, 교육별 임금등
수입	수입, 저축, 연금
폭력과 범죄	폭력, 성폭행, 범죄 등
영향력과 권력	정치참여, 행정참여, 사회참여

출처 : Official Statistics of Sweden(2004). Women and Men in Sweden: Facts and Figures 2004.

한편 1996년 발간한 Engendering Statistics: A Tool for Change 보고서는 영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일본어로 번역되어 세계 여러 나라의 성 인지적 통계 훈련 교재로 활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성인지적 관점이 정책 제안서의 계획 단계와 분석에 있어서 항상 고려되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Swedish Parliamentary Bill on equal opportunity(1994), “특별하고, 모순적인 사유(special, contradictory reasons)가 존재하지 않는 한, 개인과 관련된 공식 통계는 성별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the Ordinance on Official statistics의 규정등을 담고 있는 보고서 등이 있다.

스웨덴 통계청의 또 다른 대표적인 성인지 통계 발간물은 지역 성 인지 통계를 이용한 각 지역의 성평등 순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Equal X” 서비스가 있다. Equal X는 스웨덴 통계청이 스웨덴 경제지역개발청 등과 함께 개발하였다. 이것은 중등 교육 이상 학력 소지자의 성별 비율 등을 포함한 13개의 표준 변수로 구성된 지역별 성 평등 지수에 기반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2001년 1월 최초 공개되었으며, 현재 289개 시와 21개 주의 성 평등 순위와 각 표준 변수의 지역별 상황을 지도와 표를 통해 성별로 보여주고 있다.¹⁾

<그림 2-1> <스웨덴 통계청의 “Equal X” 서비스 화면>



1) 스웨덴 통계청의 “Equal X” 서비스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http://www.h.scb.se/SCB/BOR/SCBBOJU/jam_htm_en/index.html 참고. 노르웨이 통계청 역시 도시별 성평등 지수를 공개하고 있다(<http://www.ssb.no/emner/00/02/10/likekom/> 참고). 1999년 노르웨이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양성 평등 촉진에 있어서 지역 정치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노르웨이 지역별 성평등 지수(a regional gender equality index)의 개발과정과 주요 지표에 대해서는 Randi Kjeldstad and Jan Erik Kristiansen(2000) 참고.

스웨덴이 성인지적 통계생산의 선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 이면에 성인지 통계를 생산하는 담당부서가 존재하며, 이 부서를 통하여 정부의 요구와 위임 업무에 따른 양성통계 생산, 다양한 이용자 대상의 강연, 교육과정과 세미나를 통한 양성 통계 이념의 교육과 확산, 사회의 성 이슈를 좀 더 잘 반영하기 위한 통계 시스템 변화 작업과 통계전문가 교육, 국제 업무 참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 때문이다.

(2) 오스트리아

○ Australia

<표 2-9> Women in Australia 2001의 지표체계

부문	주요 지표
인구	인구밀도-성별, 농촌과 도시비교, 토착민과 호주전체인구, 유동성
가족	혼인상태, 지방과 도시가구의 구성, 가족구성 비교
건강 및 안전	기대여명, 암발생률, 보건서비스와 자원, 토착여성의 주거, 출생률 생식보건, 암, 지방의 여성 건강보건 전문가, 안전, 운동
교육	성별 지방과 도시인구의 졸업 후 교육
리더십	관리직, 고위직, 전문직 여성, 농촌에서의 여성과 리더십, 정치, 자원활동
고용	고용형태, 고용유형, 노동력, 농촌의 주요 산업, 농촌의 취업자 수, 여성실업률
경제	사회경제적 지수, 수입, 시간사용

자료 : Commonwealth of Australia(2002). Women in Australia 2001.

오스트리아의 젠더 이슈는 교육과 직업의 기회평등, 정부 및 기업에서의 정책결정의 기회여부, 건강, 가정폭력으로부터의 안전, 출생선호도, 가정과 직장에서의 성 역할의 조화 등이다. 이러한 이슈들은 GDI, GEM 등의 UNDP 지수보다 정책을 입안하는데 중요한 반영기제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호주통계의 방향이 가족문제와 지역사회자본, 그리고여성통계로 집약되어 있으며, 사회통계에서의 소수 그룹에 대한 중요성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인 간행물로는 2001년 출간된 Women in Australia가 있으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그동안 여성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성과를 요약해 놓은 부분, 기존의 접근을 넘어 농촌지역과 외곽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을 중심으로 각

부문별 지표 및 통계를 다루고 있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계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간행물에서는 같은 지역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공통점과 차이점, 지역별 여성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 시간적인 흐름에 따른 여성 지위의 차이점 비교 등 크게 세 가지 접근방법으로 도시생활을 하지 않는 여성들을 관찰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으로 농촌 및 외곽 지역여성을 살펴보고 있는 지표체계이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호주의 여성정책은 소외되고 저발전된 지역의 여성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초점이 있다. 지역 여성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포괄적인 정책 마련을 향한다는 것이 호주 여성정책 및 양성평등 간행물의 특징이다.

(3) 영국

<표 2-10> Key indicators of women's position in Britain에 나타난 주요지표

부문	지표	주요지표
인구	출산율, 가족구성, 이혼율	
고용과 경제활동	노동시장참여, 일패턴, 산업영역과 직업, 여성기업가, 여성법관	여성의 경제활동, 여성의 풀타임/파트타임 비율, 고용의 산업별 직업별 분류
일과 가족	자녀를 둔 직장여성, 직장유동성, 육아서비스 접근도, 노인보호	출산 후 직업여성 및 노동시간, 여성의 다루기 쉬운 일, 육아시설 유용성
교육	학업수행, 고등교육 참여, 일과 관련된 훈련, 자격증, 배움에의 장애	의무교육에서의 여학생의 자격요건, 고등교육에서의 여성의 참여, 졸업여성들의 직업, 여성 종업원의 훈련여부, 여성위주의 자격증, 배움에 대한 장애
재정 자원	정책, 임금, 수입, 저축 및 자산, 연금	여성과 남성의 수입비율, 풀타임/파트타임의 임금 차, 개인별 평균소득, 저임금 인구, 연금수령
공적 참여	정책, 입법부, 지방의회, 행정부, 공공단체에서의 여성, 여성의 정치참여, 자원활동참여	입법부, 행정부, 공공단체, 자원활동에서의 여성
건강	보건정책, 기대여명, 출산율, 사망률, 병, 건강에 영향을 주는 행동, 모유, 성적 건강, 건강서비스 사용	기대여명, 유방암을 포함한 특별원인에 대한 사망률, 흡연, 음주와 운동
범죄	정책, 가해자로서의 여성, 희생자로서의 여성, 범죄에 대한 두려움, 정의체계에 대한 확신	가해자로서의 여성, 피해자로서의 여성, 범죄에 대한 두려움, 정의체계에 대한 확신
교통	정책, 운전면허 소유자, 자동차 소유, 주 교통수단, 여행의 목적	연령별 운전면허, 개인가정에서의 자가용 소유, 주 대중교통 사용, 여행의 목적

*출처 : Women and Equality Unit(2002). Key indicators of women's position in Britain.

영국 여성부는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더 광범위한 분야에서 여성의 다양한 이익들을 증진시키고 실체를 파악하는 것을 주요 정책 목표로 두고 있다. 여성부의 주된 관심은 경제적인 기회를 증진시키고, 정부 및 유럽연합, UN과 함께 일을 진행시키는 것, 그리고 사회적 참여의 장벽을 줄이고, 평등을 위한 법적, 제도적 틀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Key indicators of women's position in Britain에서는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측정하려는 정부와 기타 관련기관의 노력이 엿보인다. 이 간행물은 여성관련 이슈에 우선적 관심이 주어질 수 있도록 공적인 논쟁과 정책형성에 기본이 되는 실질적인 자료를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 시계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주요지표를 제공하는 것이 이 간행물의 장기적 목적이다.

(4) 핀란드

핀란드 성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한 목표는 핀란드 여성과 남성의 평등 기회에 대한 정보 욕구를 사용자의 관점에서 이상적일 뿐 만 아니라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충족시키면서도 해당 정보를 가능한 유연하고, 빠르게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에 있다. 또한 기존 통계들을 재검토하여 의사결정, 여성에 대한 폭력, 경제적 참여/무급 노동 등을 발전이 필요한 통계 분야로 제시하고 있으며, 통계 내용과 방법의 개선, 평등 지표의 개발, 개발 작업에 있어서 사용자와 생산자의 연계 향상, 지역 수준에서의 양성 통계 생산, 좀더 효율적인 데이터의 배포를 위한 제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인터넷을 통한 성 인지적 통계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즉 a pilot home page를 통하여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표(fact sheets)로 발표된 여성과 남성 통계를 수록하고 있다.

〈표 2-11〉 주요 선진국의 지표수록내용 및 시사점

국명	보고서명	수록내용	시사점
스웨덴	Women and Men in Sweden (1984 이후 매 3년 주기 발간)	11개 부문 지표 시계열 분석으로 성평등 발전 정도 검토 및 예측	전체 사회통계에 성별 분리 개념 정착 여성지표의 지역간 격차 측정 가능(Equal X)
캐나다	Women in Canada	65개 주요차트 190개의 지표, 소수민여성, 원주민 여성 등 개별 여성 집단 특징 제시	필요에 따른 자료 갱신 정책모니터링 원활
호주	Women in Australia(매 2년에 한번)	7개 부문 핵심관리지표 별도 관리	도시와 지방에서의 여성의 지위 비교 균형발전 전략 강화
영국	key indicators of women's position in Britain	9개 부문 개괄적 지표 핵심관리지표 별도 관리	정책개발 및 진행과의 밀접한 상관관계

2. 국내 개발 및 활용 사례검토

1) 지역통계관리 현황 및 관련법 검토

국내 지역여성사회지표체계의 개발 및 활용 사례를 검토하기에 앞서 지표체계 개발 및 활용의 근간이 되는 성별 분리 통계의 실태를 관련법을 중심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현재 국내 통계법 및 시행령은 지역통계생산 및 성별통계생산에 대한 의무를 두고 있지 않고 있다. 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생산하는 통계가 지정통계로서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통계법 시행령 4조²⁾, 5조에 따라 지정요건을 만족해야 함을 정하고

2)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정부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업체 및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있다.

현재 강제 조정권한은 없지만 현재 성별통계작성을 언급하고 이를 권고 및 조정이 가능한 법률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유일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의 제 13조는 성별 작성 및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조사 실시를 언급하고 있고 시행령 제 25조에 의해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여성발전기본법 또한 지역통계의 성별 분리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여성발전기본법을 기초로 작성된 “제 2차 여성기본계획(2003~2007)”의 경우 지역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는 언급하고 있으나, 통계에 대한 성별 분리는 역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13조【여성관련 문제의 조사 등】 ①여성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여론조사, 성별통계작성 등을 통하여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②여성부장관은 정보체계의 구축을 통한 여성관련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5조【여성관련 문제의 조사 및 보고】여성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따라서 기본법과 시행령에 강제규정으로 성별분리 통계를 명시하여야 여성사회 지표체계의 근간이 될 수 있는 통계자료를 원활하게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현재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체계에 따라 통계관리 부서명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지역통계는 통계를 생산하는 부서가 보관·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통계는 행정통계에 그치고 있으며, 성별분리 통계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사회·경제 기타 정책수립 및 평가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한다.

1. 통계작성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
2. 통계작성에 필요한 예산
3. 일정한 수준의 통계활동실적

지역통계생산 현황을 보면 통계청이 1988년부터 경제, 인구, 교육 등 총 12부문에 대해 「지역통계연보」를 작성하고 있고, 2002년에는 지역을 더욱 세분화하여 「시·군구 100대 지표」를 발간하고 있다. 또한 통계청은 인구, 가족, 노동, 문화 등의 분야에서 직접 생산하는 통계에 대해서 주요지표의 경우 지역단위까지 분석하고 이를 보고서와 KOSIS 통계 DB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통계청 외 각 부처에서 생산하는 통계의 경우도 일부지표에 대해 지역을 변수로 하여 분석함으로써 기초적인 지역통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국내 - 통계청

<표 2-12>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나타난 여성관련 통계

구분	관련 통계
여성의 위치	여자인구 추이, 연령별 성비 추이, 여성가구주 비율
여성의 가정적 지위	여아의 출생, 여성의 혼인과 이혼, 여성의 출산과 보건, 여성의 가정 내 의식, 여성의 문화와 여가생활, 여성의 생활시간 활용, 여성의 폭력피해구제, 65세 이상 여성, 여자의 사망
여성의 사회적 지위	여성의 교육, 여성의 취업, 취업여성의 생활시간 사용, 여성의 정보화, 여성의 복지, 여성의 범죄와 안정, 여성의 사회참여

자료 : 통계청(2004), 「2004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하지만 이들 통계의 문제는 대부분 남녀분리가 되어 있지 않거나 여성의 현황을 알기에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이 연구되었고 1997년 한국여성개발원이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역여성통계의 수집과 발간을 제안함으로써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되었다. 생산현황을 보면 1998년 제주도청이 지역여성통계를 처음 생산하였고 2004년 현재까지 16개의 시도 중 12개 시도가 지역여성통계를 작성했거나 작성 중에 있다.

2008년 현재 지역여성통계의 기본체계는 대부분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생산하고 있는 「여성통계연보」를 기본모델로 하여 지표체계를 구성했고, 여기에 지역별 여

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체계를 수정하여 작성되고 있다.

○ 국내 - 한국여성개발원

<표 2-13> 여성통계연보의 사회통계 및 지표체계

부문	관심영역(세부관심영역)
인구	총인구(인구추세, 장래인구), 인구구성(연령별인구, 혼인상태별인구), 인구분포(지역별 인구, 도시인구), 인구가동(국내이동, 국제이동), 출생
가족	가족구성(가족구성, 가족형태, 가구주), 가족형성(결혼, 자녀출산, 이혼), 가족생활(가족생활선호, 생활안정, 가사노동, 거주형태), 가족관(혼인관, 자녀관, 부모관)
교육	교육기회(교육수준, 학교교육기회, 사회교육기회, 직업훈련), 교육여건 및 자원(인력자원, 교육비 및 교육환경), 교육의 결과(교육효과, 인력양성)
경제활동	인력현황(경제활동참가규모 및 특성, 비경제활동인구), 여성취업현황(취업구조, 취업특성),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근로조건), 고용안정(취업경로, 노동이동), 노사관계(노조참여), 취업에 대한 태도, 소득(가구소득)
보건	생존년수, 체계, 건강상태(영양섭취, 보건의식 행태, 개인의 건강평가 및 관리), 출산 및 사망, 상병(상병평가, 재해 및 질병), 보건의료이용(의료이용, 의료서비스), 보건의료자원(보건인력의 규모)
복지	사회보험(공적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공적부조(생활보호), 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서비스, 가사와 취업병행 지원서비스, 사회복지인력)
정치 및 사회참여	정치참여(유권자 정치활동, 여성의 정치진출), 행정참여(공무원, 정책결정참여), 사회 및 단체활동(단체/자원활동, 종교활동 및 사회활동)
문화 및 정보부문	문화활동(문화생활, 여가활동, 문화의식), 정보미디어접촉도 및 활용, 정보화 정도 및 인식(정보화 정도, 정보화에 대한 인식)
안전	안전에 대한 의식(안녕감), 폭력과 범죄의 발생과 피해(범죄피해와 여성에 대한 폭력과 범죄, 범죄 발생과 여성 범죄자), 법집행(교정과 처우, 법 준수에 대한 의식)
국제	국제비교

*출처 : 한국여성개발원(2004), 『여성통계연보』

이렇게 생산된 지역여성통계는 지역여성의 현황과 지위를 폭넓게 다룸으로서 지역여성정책수립과 평가뿐 아니라, 지역여성연구의 기초 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지역간 비교가 어렵고 신속한 갱신이 어렵다는 문제를 여전히 숙제로 가지고 있다.

<표 2-14>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간한 여성통계 현황

지방자치단체	발간현황 및 연구기관	발간 및 갱신 연도
서울시	발간 : 서울시청	2004년
부산시	미발간	-
대구시	발간 : 한국여성개발원	1999년
인천시	발간 : 인천시청	2000년
광주시	발간 : 한국여성개발원	1999년
대전시	발간 : 한국여성개발원 갱신 : 대전시청	1998년 2003년
울산시	미발간	-
경기도	발간 : 한국여성개발원 갱신 : 한국여성개발원	2000년 2003년
강원도	발간 : 한국여성개발원 갱신 :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	2003년 2006년
충청북도	미발간	-
충청남도	발간 : 충남도청 갱신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1999년 2006년
전라북도	미발간	-
전라남도	발간 : 한국여성개발원	2004년
경상북도	발간 : 경북도청	1999년
경상남도	발간 : 경남도의회 여성특별위원회	2004년
제주도	발간 : 한국여성개발원 갱신 : 제주여성교육문화센터	1998년 2002년

2) 국내 지역여성사회지표 개발 및 활용 사례 검토

국내에서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1986년, 1994년, 2006년에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를 개발한 바 있다. 2006년 이전에 개발의 목표는 첫째, 기존의 사회통계 및 지표를 검토, 분석하여 여성상태를 전반적이며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둘째, 여성과 관련된 기존 통계 및 지표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개선, 보완하며, 셋째, 여성의 상태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여성관련 정책 및 사회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자료집들은 그동안 분산되었던 기존의 여성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모아서 정리·제시함으로써 여성문제 연구자나 정책담당자들의 우선적인 요구에 부응하였으며 많이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 자료집들은 여성사회지표개발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불충분한 가운데 개발되었고 성별 분류가 가능한 기존통계의 한계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성 삶의 변화를 제대로 보여주는 독립적이며 체계적인 지표로서의 기능을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

국내에 좀더 체계적이며 신뢰성있는 지표로 개발된 것은 한국여성개발원이 2005년 국가균형발전모델의 성주류화 개발전략 사업에서 개발한 양성평등지표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양성평등 지표는 사회지표로 구성되었는데 인구, 가족, 교육, 경제활동과 소득, 정치 및 사회참여, 건강, 복지, 문화, 폭력과 범죄 등 9개 부문의 양성평등 지표 목록을 작성하였다. 이 지표는 가장 포괄적이며, 신뢰성이 있는 지표로 본 연구에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체제를 따르고 있음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지자체 수준에서 양성평등 지수를 개발하여 측정하는 시도들도 있었다. 2004년 대전광역시 여성정책위원회에서 대전시 양성평등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시행하여 대전광역시에 적합한 양성평등 지표를 개발한 바 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사회복지발전지표를 개발하면서 여성관련 지표들을 개발하였고, 제주도에서는 양성평등사회구현을 위한 지표개발이라는 보고서가 간행된 바 있다.

대전광역시의 지표는 정치, 행정, 경제, 사회참여, 교육, 복지 6개 분야에 47개의 지표로 구성되어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지표라는 점과 사회지표와 정책지표를 동시에 포함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전광역시의 경우 지표는 개발되었으나 향후 이것을 활용한 후속 조사사업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회적인 연구로 제한되었으며, 이후 새로운 지역사회의 변모에 부응하지 못하는 지표로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성인지 지표개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개발된 지표를 갖고 후속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간결하고 명확하면서도 서울시 여성의 특성을 반영하는 지표를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서울시 여성의 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키고 정책자료로 축적되는 등 상당한 성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평가이다.

제3절 대전여성사회지표 개발 절차 및 모형

1. 개발 절차

여성사회지표는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어디쯤 와 있는지에 대한 현실파악과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을 반영하는 판단의 양적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여성사회지표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이라는 지향점을 염두에 두고 작성되는 것이므로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성사회지표의 개발을 통해 기대되는 바를 정리해보면 지표의 범위와 방향에 대한 접근방법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성사회지표의 기능으로는 여성정책적 기능, 여성의 사회조건의 변동적 기능, 사회보고적 기능을 들 수 있다. 지역의 여성사회지표의 여성정책적 기능은 정부의 여성정책을 평가하고 여성정책의 목표를 사회목표와 연계하여 그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기능을 포괄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기능을 포괄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여성의 사회조건변동적 기능은 우선 여성의 복지상태를 측정하고 여성 삶의 질과 생활조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경제지표와 사회지표를 보완하며 여성의 복지조건의 변화를 측정하는 기능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즉 여성이 처한 사회적 제반 조건을 제시하는 개량적 자료인 동시에 여성의 기초육구 충족상태를 측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보고적 기능으로는 여성 정보체계를 개선하고 미래의 여성문제 등 여성관련문제와 생활상태를 예측하는 기능을 꼽을 수 있다.

정리하면 여성사회지표는 여성에 대해 종합적인 판단기준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에 의무화하여 여성의 사회적 상태를 종합적이고 집약적으로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분석, 측정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전반적인 복지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척도인 동시에 여성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척도로서 개념이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2. 제약조건 및 한계점

최근 세계적 혹은 국내에서 여성사회지표의 개발작업을 진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제기되었던 문제들, 예를 들면 여성의 경제적 기여도의 측정이나, 가구 및 가구주의 정의 문제 등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이다. 사회지표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신뢰할만한 통계자료가 필수적이지만 기존의 통계들에 성편파적인 측면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회의 변화상을 면밀히 측정하는 도구로서의 사회지표는 정치적인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일정 제약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소위 ‘양적 지표’라고 부르는 지표들은 객관적이라는 면에서 합법성을 부여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모든 지표들은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편파를 안고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그러기에 ‘페미니스트 경제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주창한 Waring(1988)은 최근에 이르기 까지 경제지표들, 특히 고용과 관련한 경제지표들은 분석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식으로 활용되어 왔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이 문제가 대부분의 센서스나 대규모의 사회조사들이 남성 정책결정자들을 위해서, 남성들에 의해 이루어져 온 결과라고 해석하였다.

지표와 통계의 성편파에는 우선 여성의 역할에 대한 문화적 고정관념에 의한 것이 있는데, 이는 센서스나 사회조사의 디자인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여성을 사회의 핵심적인 노동력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 노동력관련 문항에서 여성들이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직업의 종류나 형태를 소홀히하기 쉽다. 마찬가지로 ‘가구는 당연히 남성’이라고 인식하는 경향도 가구조사의 설문편파를 초래할 수 있다. 자료의 수집과 처리 뿐 아니라 조사결과를 발표할 때 여성 가구주와 관련된 결과를 소홀히 하는 일이 빈번하다. 따라서 통계적 개념과 분류상의 성편파 문제, 가구주, 가구 및 가족, 경제활동, 혼인상태, 교육과 문해, 출산율 등의 정의에서의 성편파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통계치들의 성편파는 종종 데이터의 성분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발간하는 각종 통계 자료집에 성분리가 미흡하여 여성의 활

동 및 지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세계적으로 성별로 분리된 자료의 생산이 아직도 제한적이며, 제시되는 통계들도 그 기초가 되는 용어의 정의,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방법 등에서 남성중심적인 가정이나 편견으로 인하여 여성 삶의 상태를 정확하게 조명하는데 한계를 안고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할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는 노동관련 조사시 여성에 대한 과소평가를 초래한다. 세계 여러나라에서 여성의 노동이 남성의 노동에 비해 덜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여성이 하는 일의 형태가 조사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기도 하지만 원천적으로 여성의 일을 공식적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편파와 일에 대한 남성중심의 개념정의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국 공식적 경제활동에 치우친 경제부문 지표들은 비공식부문의 여성의 노동과 그를 통한 가구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공정하게 평가하지 못한다. 따라서 특정한 견해에 있어서는 국가계정체계에 가정생산계정과 그에 대한 성별 기여도 계정을 포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상에서 여성관련 통계자료의 수집과정이나 용어의 정의에서 여성에 대한 불충분한 고려나 몇 가지 종류의 성편파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 외에도 현재 여성관련 통계 및 지표자료들이 중앙의 자료에 치중되어 있어 지역 여성의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완할 것이 요구된다.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지역의 여성 인구가 활성화될 전망이며 여성발전기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여성발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여성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1995년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제기된 새로운 요구들을 수렴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행동강령에서 부문별로 요구하는 통계자료들은 물론 유엔 세계여성회의에서 처음으로 하나의 부문으로 채택된 여아부문과 관련하여 새롭게 개발해야 할 지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3. 대전형 여성사회지표개발 모형

지방자치행정 차원에서 활용 가능한 여성사회지표는 현재의 수준을 측정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일반적 특성과 함께 지방정부가 양성평등 부문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지역사회의 미래모습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성과 추동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행정 차원의 양성평등 지표는 관련 이해당사자인 제 주체의 상호 작용성을 인식하고 다차원적 다기능성을 지님으로써 구체성과 개별성은 물론 일반성까지도 내포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구체성이라 함은 지방자치 단체가 생산·공급하는 각종 자치행정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의 측정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자치행정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효과까지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개별성이라 함은 대전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과 지역사회의 요구를 수용 반영할 수 있는 타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측정지표이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 인식을 바탕으로 지방자치행정에서 활용 가능한 여성사회지표가 갖추어야 할 구비조건을 측정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측정 주체 등 4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측정대상

여성사회지표의 측정대상과 관련한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을 측정하고, 어떻게 그 결과를 객관화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특히 무엇을 측정대상으로 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은 자치행정 영역의 광범위성을 고려해 볼 때 “그 대상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이다.

양성평등 관련 자치행정 활동의 성과인 그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수준이라 함은 단순히 특정 자치행정기관의 내부적 양성평등 사항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역내 지역사회 전반의 양성평등 수준을 지칭하는 것이다. 즉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양성평등이 달성되었다는 것은 단지 그 공직사회에서 양성간의 차별화가 크게 개선되었거나 여성이 우대되고 있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방자치단체 역

내의 모든 부문에서 양성간의 바람직한 평등관계가 성립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양성평등을 위한 몇몇 제도가 개선되었거나 양성평등정책이 시행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양성간의 형평한 삶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가 얼마나 나타났는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자치행정의 양성평등 측정대상은 자치행정영역과 그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 정치, 경제 및 사회 등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서 다시 제기되는 문제점은 자치행정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지방행정의 성과는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중앙정부 행정활동의 산물이기도 하다. 특히 양성평등과 같은 사회지표적 성격이 강한 것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지방행정의 경우 주민의 삶의 현장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주민생활행정에 관심이 경도될 수밖에 없고, 행정수요 또한 구체적이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집행중심의 행정기능이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달리 말하면 지방행정의 영역은 삶의 질을 향상하기위하여 구체적인 개인의 삶의 현장을 중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여성대상 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지방행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양성평등관련 법과 제도, 정책 및 공무원의 인식 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각종 조례와 규칙을 제정 운영할 수 있고, 공공조직의 인력운용과정에서 여성인력을 우대하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각종 정책을 수립 집행하면서 성인지적 성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성인지 정책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사항들은 실제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성인지 정책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양성평등의 측정대상이 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방자치행정에서 활용 가능한 양성평등 측정대상의 설정은 광의적 관점과 협의적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광의적 관점에서 지방행정차원의 양성평등 측정대상을 설정할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영향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지나치게 사회지표적인 성격이 강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개별성과 구체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갖는다. 반면에

협의적인 관점에서는 지방행정부문에서의 양성평등 수준은 자치행정 부문에서 나타나는 행정성과로서의 양성평등이 측정대상이 된다. 이 경우 지방 행정차원에서 시행하는 각종 정책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수준에 미치는 영향 및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을 생각 할 수 있으나, 이는 엄격한 의미에서 정책평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성과 개별성은 반영할 수 있으나 일반성은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활용성이 크게 감소하게 되는 한계점을 가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양성평등 지표의 측정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활동이 그 역내 지역사회의 양성평등 개선 및 향상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기여하는 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실질적인 기여라 함은 승진인력에서 여성을 일정비율 할당하는 것과 같은 직접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구매사업에서 여성의 이용편의를 위한 저상버스구매 등과 같이 잠재적인 효과나 영향을 갖는 경우도 포함한다. 또한 지방행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양성평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각종 법과 제도 및 지역정책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성 중립적인 것으로 이해하여 왔던 것들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재정립해 봄으로써 법과 제도 및 정책이 양성평등적 차원에서 구체화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방행정에서 활용 가능한 양성평등지표의 측정대상은 기능적으로 그 지역사회의 양성평등성을 얼마나 신장 또는 해소하였는가 하는 점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법과 제도나 정책자체가 아니고 그 결과물로서의 사회현상이 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문제는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정책의 결과물로서의 사회현상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하나의 정책에만 관련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결과로서의 사회현상은 여러 정책들 간의 다차원적 상호작용의 인과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결과물이기 때문에 특정한 정책이나 사업과 양성평등 수준을 규명 짓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한편 양성평등 수준의 문제는 단순히 지방행정의 성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가치판단적 인식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 공직사회에서 느끼는 공무원들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과 지역주민들의 인식도 그 지역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측정에 매우 중요하다. 제도나 정책을 통해 아무리 훌륭한 성과가 기대되거나,

실제로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체인 공무원과 수혜자로서의 주민들이 인식하지 못한다면 지속적인 추진이나 집행이 곤란하게 된다. 따라서 공적 인식의 부문으로서 양성평등 수준에 대한 일반 주민들과 지방공무원들의 양성평등 인식에 대한 측정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또 다른 차원의 측정대상이 될 수 있다.

각 측정대상별 측정의 준거는 법/제도와 정책 및 업무 성과에 대한 측정은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관계를 고려하는 시각이 법과 제도 및 정책과 업무과정 전반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가 하는 성통합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반면에 주민과 공무원에 대한 공적 인식의 측정을 통한 양성평등 수준에 대한 측정은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관계를 얼마나 고려하거나 인정하는가 하는 성인지적 시각에 대한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측정 영역 및 내용

지방자치단체는 자치행정을 통해 다양한 행정서비스와 용역을 생산공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행정수요와 욕구 충족을 추구한다.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들은 여성의 권익을 신장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반영코자 할 것이다. 따라서 양성평등의 측정 영역 및 내용은 자치행정에서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정책 및 업무들을 분류하는 영역들이 양성평등의 측정영역이 될 것이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표에 나타나 있는 업무영역인 양성평등 측정영역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양성평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미 구축된 상태에서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합리성만을 강조하고, 특히 공공부문의 활동은 성중립적이기 때문에 양성 모두에게 공평할 것이라는 잠재적인 결론을 전제로 하여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양성평등의 구현에 분명한 한계점을 가진다.

반면에 공공활동이 성중립적이라는 막연한 인식에서 벗어나 성인지적 성통합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의 구현을 위한 노력의 성과인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영역별로 구체적인 양성평등을 명시하고 있다. 양성평등 문제가 법률로서 실현되기 이전에 학자들간에는 양성평등을 논의함에 있어서 구체

적인 영역을 예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발전기본법 제1조가 명시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영역 등 4개 영역과 제2조(기본이념), 제3조(여성정책의 개념), 제7조(여성정책 기본계획의 목표), 제3장 16개 조의 취지와 내용을 고려하여 ‘행정, 가정 영역’ 등 2개 영역을 추가하여 총 6개 영역으로 측정하는 안이 있다(여성부, 2003:5), 이 안의 경우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양성평등관련 정책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양성평등 측정지표로 채용하여 활용할 경우 유용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정치의 영역과 행정의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부문의 경우도 자치단체의 정책이나 사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문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한계점을 가진다.

둘째, 정치와 행정을 묶어서 정치행정영역, 경제사회영역, 문화영역, 가정영역 등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측정하는 안이다. 이 안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운용 가능한 양성평등 측정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정치와 사회참여를 묶어서 정치사회참여영역, 행정영역, 경제영역, 문화영역, 가정영역 등 5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측정하는 안이 있다. 이 안의 경우는 두 번째의 분류안과 가장 큰 차이는 사회참여를 정치영역에 포함할 것이냐 경제활동영역에 포함할 것인가에 따라 달리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여성의 사회참여는 대부분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경제부문에 사회참여 활동을 포함하여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취하는 반면, 경제활동과는 달리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정치영역에 사회참여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대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안 중에서 어떤 안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사회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배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성사회지표가 단순히 현재의 수준을 측정하여 밝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분석 평가 할 수 있는 척도로써 미래지향적인 방향성을 지녀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여성사회지표의 측정 영역이 설정되면 측정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측정내용도 자치단체의 여건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3) 측정방법 및 주체

일반적으로 측정방법은 관찰에 의한 방법과 면접을 통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양성평등의 수준에 의한 측정은 관찰법에 의한 방법보다는 부문적으로 면접을 통한 방법이 타당할 것이다. 면접법의 경우에는 공적 인식의 조사 시에 정형화된 설문지를 통한 면접조사가 가능할 것이다.

반면에 법과 제도 및 자치행정 성과부문에 대한 측정은 객관적인 통계자료 등을 활용한 조사와 정형화된 조사들에 의하여 관련 자료들의 제출형식을 통해 측정 평가하는 방법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양성평등수준을 측정하는 것이기는 하나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횡적 비교와 객관적 통계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측정결과의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지표 성격에 따른 측정방법을 구분한다면 양적 지표를 통해 측정하는 방법과 질적지표를 통한 측정방법이 있다. 우선 양적지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양성평등 개념에 대한 실천적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충분한 통계를 구비하고 있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통계자료를 직접 생산하는 수고를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그 밖에는 통계청이나 중앙정부차원에서 생산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반면에 질적지표의 경우는 적용수준에 대한 피평가 대상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척도를 설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에 대한 측정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도달해 있는 양성평등 수준을 가늠해 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양성평

등 수준의 개선 또는 촉진을 위한 새로운 정책대안 개발의 동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양성평등 수준의 측정방법은 매년 초에 각 부문별로 실현가능하고 바람직한 수준을 적시하고, 연말에 기 달성한 수준으로 현재의 양성평등 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타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횡적 비교가 어렵고, 도달코자 하는 목표가 객관적이지 못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양성평등 수준에 대한 측정은 객관적인 측정주체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존의 평가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담당하거나 여성정책관련 부서가 담당하는 경우, 그리고 평가시기에만 임시조직으로 제3의 전담조직을 설치 운영하는 방법 등이 있다.

위에 언급한 여러 평가주체들에 관한 방법 중 어떤 평가방법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양성평등 수준의 제고를 위해 얼마나 강력한 이행의지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여건에서 볼 때 자치단체장의 정책이행 의지에 따라 측정 주체의 선정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제 3 장

대전여성사회지표 개발

제1절 기본 방향

제2절 예비지표의 선정

제3절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분석

제4절 대전여성사회지표 설정

제3장 대전여성사회지표 개발

제1절 기본방향

여성사회지표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분명한 것은 여성의 생활양식은 상대적인 개념이고 거주하는 지역의 역사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정의하는가에 따라 그 범위와 내용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척도라하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며, 비경제활동 연령의 여성 입장에서는 사회봉사활동이나 여가 활동 참여율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또한 국가에 따라 삶에 중요한 요소가 다를 수 있으며, 한 나라에 대해서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등 지역의 특성에 따라 여성사회지표에 대한 정의와 활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의 관련 연구에서 여성사회지표에 대해 정의한 것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그러면 광역자치단체인 대전시에서는 여성사회지표를 어떻게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하는가? 여성사회지표는 흔히 특수지표로 간주되지만 여성 삶의 다양한 분야를 포괄해야 하는 성격상 그 내용은 사실 다른 특수지표들에 비해 복잡할 수 밖에 없다. 여성사회지표를 구성하는 개별지표들을 선정함에 있어 여성의 상태를 사회진반의 맥락에서 보아야하므로 우선 배경이 되는 지표들을 포함해야 하며, 여성 삶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특수성 지표, 그리고 성평등성 또는 성공정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등을 포함해야 하므로 내용도 광범위하고 요구되는 지표의 수도 많을 수 밖에 없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볼 때, 여성사회지표란 우리의 삶의 공간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현실과 지위향상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의 판단을 위한 양적도구라고 할 수 있다. 여성사회지표의 개발을 통해 기대되는 바를 정리해보면 지표의 범위와 방향에 대한 나름의 논리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여성사회지표의 대사회적 기능으로는 여성정책적 기능, 여성의 사회조건의 변동

적 기능, 사회보고적 기능을 들 수 있다. 여성사회지표의 여성정책적 기능은 정부의 여성정책을 평가하고 여성정책의 목표를 사회목표와 연계하여 그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기능을 포괄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성의 사회조건변동적 기능은 우선 여성의 복지상태를 측정하고 여성 삶의 질과 생활조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경제지표와 사회지표를 보완하며 여성의 복지조건의 변화를 측정하는 기능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즉 여성이 처한 사회적 제반 조건을 제시하는 계량적 자료인 동시에 여성의 기초욕구 충족상태를 측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보고적 기능으로는 여성 정보체계를 개선하고 미래의 여성문제 등 여성관련문제와 생활상태를 예측하는 기능을 꼽을 수 있다.

요약하면 여성사회지표는 여성에 대해 종합적인 판단기준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져 여성의 사회적 상태를 종합적이고 집약적으로 나타내고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분석, 측정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전반적인 복지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척도인 동시에 여성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척도로서 개념이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전여성사회지표의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몇 가지 기본 원리 및 원칙을 설정하고자 한다.

- **여성 삶의 독특성 반영**

여성만이 가지고 있거나 여성에게만 부여된 특수한 상황들을 지표에 반영하여 여성들이 남성의 기준에 의해 평가되지 않고 여성특유의 삶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한다. 여성 삶의 독특성을 나타내주는 지표체계는 사회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여성 인구에 대한 관심이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본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미가 같은 용어일 경우 가급적 사회지표의 용어를 따르지만 여성 삶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굳이 사회지표와의 일관성에 집착하지 않도록 한다.

- **시계열 측정 가능성**

여성사회지표는 일정한 주기로 반복적인 조사작업을 통하여 여성의 삶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측정하여 조건의 변화를 보고하는 동시에 여성정책의 방향변화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양성평등의 가치실현성**

여성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각 부문에서의 남녀평등 정도를 측정하고 법이나 제도의 시행이 가져오는 여성지위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정책방향의 제시 가능성**

여성사회지표가 성편파성이나 과편화된 자료로 인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만큼 여성 삶의 현상과 여성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향후 개발되어야 할 지표들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분야별 통계를 생산하는 작업에 그 필요성이 반영되고 일반인의 관심도 제고하도록 한다.

- **주관적 지표 확대**

주관적 지표는 객관적 지표에 대한 보충적 정보제공이라는 역할과 함께 사회의 변화와 복지의 정도가 개인에게 전달되는 정도와 그러한 변화가 과연 개인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변화인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여성사회지표체계에서는 현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지 또 변화의 방향이 여성이 원하는 방향과 일치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주관적 지표의 개발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부문별 대표지표 선정 및 관리**

여성의 지위를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합성지표나 척도의 개발이 바람직하지만 자료의 측정수준이 다르다는 한계점 때문에 대신 각 부문별 대표지표를 선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이를 통해 여성의 전반적인 조건과 지향해나가야 할 방향을 관찰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여성사회지표로서의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예비지표의 선정

1. 주영역 및 하위영역 설정

〈표 3-1〉 국내외 여성사회지표 목록

지표명	기관	세항
여성발전지수 GDI	UNDP	출생시 기대수명, 성인문맹율, 교육수준, 국민소득 측정, 세계 177개국 비교를 위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지표 사용
여성권한척도 GEM	UNDP	여성국회의원수, 여성행정/전문기술직, 남녀임금소득비,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측정
여성사회제도지수 GID	OECD	162개국 비교를 위한 50여개 지표 개발 여성차별적, 사회문화적 제도 측정에 비중을 둠, 경제, 가족제도, 신체권, 시민권, 재산권, 교육, 자원접근권, 보건관련 지표
아시아태평양 성인지지표	UN-ESCAP (2003)	아시아태평양 실정에 적합하면서도 북경행동강령의 12개 부문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역별 성인지 지표 개발, 12개 부문 152개 지표 및 추가 6개 지표개발
남미카리브해 성인지지표	UN-ESLAC (1999)	남미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북경행동강령의 틀에 맞추어 12개 부문 62개 지표 개발
Economic Gender Equality Indicators	캐나다 연방/지역 여성지위위원회 (1997)	경제영역에서 성평등 향상을 위한 캐나다 성인지 경제지표 개발, 소득, 일, 교육 3 분야에 10개 지표 개발하여 매년 측정함. 권역별 측정 병행
Governance Indicators for Pro-poor and Gender-Sensitive Policy	UNDP- ICSSR (2005)	빈곤층과 여성의 거버넌스 정도 측정을 위한 지표, 선거, 사법, 인권 등의 영역지표, 예로 빈곤지역 여성 중 투표비율, 빈곤지역의 여성 판사, 행정관리 비율
한국양성평등지표	한국여성개발원 (2005)	인구, 가족, 교육, 경제활동, 소득, 정치, 사회참여, 건강, 복지, 문화여가, 폭력, 범죄 등 9개 분야에 대표지표 45개와 지역지표 45개 선정, 사회지표 중심
대전시 양성평등지표	대전시 (2003)	정치, 행정, 경제, 사회참여, 교육, 복지 6개 분야에 47개 지표개발, 정책지표 위주로 개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발전지표	인천광역시 (2005)	13개 대분야와 47개 소분야, 357개 개별지표로 구성, 13개 분야 중 여성정책, 복지부문은 복지일반, 시설, 취업, 소득보장, 양성평등, 가정폭력 부분 38개의 개별지표로 구성
고용평등지표	한국노동연구원 (2006)	노동참여도, 노동보상도, 노동위상도, 직업안정도 영역에서 성별, 연령별 (50세 이상 및 이하) 성차 조사

앞서 논의한 선행연구 결과 및 지표개발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9개의 영역에 대하여 세부영역을 설정하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관련한 예비지표를 작성하였다. 예비지표를 선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포괄성의 원칙에 대한 것이었다. 기존 연구결과 등에 나타난 대부분의 지표들을 모두 제시하는 것이 옳다라는 판단 하에 총 265개의 지표를 선정하였다.

1차로 국내 여성 통계 및 양성평등지표 및 사회복지 발전지표 등을 중심으로 성평등과 관련된 지표 목록을 작성하였다. 참고한 지표 중 대표적인 지표는 〈표 3-1〉

과 같으며 1차로 작성된 목록은 인구영역, 가족영역, 교육영역, 경제활동, 정치 및 사회참여영역, 건강, 사회복지, 문화 및 여가, 폭력과 범죄의 9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각 영역별로 20-30개 정도의 세부지표들을 수집하여 목록을 작성하였다. 1차로 작성한 목록에서 성차별적 상황을 직접 드러내기 어려운 부분을 제외하였으며, 대전시 특성과 맞지 않는 지표들은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각 항목별로 예시한 대전여성사회지표에 대한 예비지표의 선정에 적용한 준거기준은 이미 앞 장에서 제시한 성인지적 관점과 성통합이다. 이를 바탕으로 앞에서 논의한 세부지표 설정의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지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표는 본 연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준거기준과 설정 가이드라인에 충실히 따랐을 뿐만 아니라 지표설정 이후 운용과정에서 활용성과 적용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였다.

일반적으로 지표의 운용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대전여성사회지표의 경우는 적용과정에서 예상되는 인적 물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계청이나 여타 정부기관에서 이미 생산하고 있는 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코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생산 활용되고 있는 사회지표 중 성분석적 지표로서 검증된 지표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양성평등 성과측정과 깊은 관련성을 지닌 지표를 선행연구결과 분석 및 대전시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연구진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선정하였다. 각 영역별로 설정한 세부영역의 내용과 개별지표의 내용을 요약하면 <표3-2>와 같다.

<표 3-2> 기본영역과 하위영역별 예비지표수

영역	하위영역	예비지표수
인구	인구규모, 구성, 이동, 출생, 사망 등	27
가족	가구, 가족형성 및 해체, 탈가족화, 태도와 행동, 가족과직장 양립 등	31
교육	교육기회, 교육여건 및 자원, 교육의 결과 등	32
경제활동	경제활동기회, 취업구조, 근로조건, 총노동, 소득과소비, 여성취업에 대한 인식 등	32
정치 및 사회참여	정치참여, 행정참여, 사회참여 등	31
건강	건강상태, 생식건강, 사망 및 상병, 보건의료이용, 보건의료자원, 의료보장 등	32
사회복지	복지전반,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	29
문화 및 여가	문화유산, 문화창작 및 생산, 문화소비, 사회문화활동, 문화의식, 여가활용 조건, 여가활용 실태	31
폭력과 범죄	폭력에 대한 두려움, 성폭력발생과 피해, 가정폭력의 발생과 피해, 여성범죄, 안전	20
계		265

2. 영역별 세부지표 선정

1) 인구분야

인구분야를 대전여성사회지표의 한 부문영역으로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인구와 관련된 현상은 사회경제적 여건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역으로 여성과 남성 개인의 생활기반이 되는 사회경제적 여건의 객관적 조건을 형성한다. 평균수명 증가 추세나 저출산현상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평균수명이나 자녀수는 여성과 남성 삶의 객관적 조건을 형성한다. 인구부문에서 여성사회지표와 양성평등지표를 개발하는 작업은 중요한 것이다. 인구와 관련된 현상은 성별에 편중됨이 없이 골고루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성별에 편중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고령인구 중 여성이 많은 것, 남성에 비해 여성의 삶에 대한 출산의 영

〈표 3-3〉 인구부문의 예비지표

하위영역	예비지표
인구추세	• 연도별 성별 총조사 인구
	• 연도별 성별 연앙추계인구
	• 성별 출신지역별 외국인 인구
	• 성별 결혼이민자(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수
인구구성	• 성별 연령별 인구
	• 성별 연령별 인구 추계
	• 성별 연령별 노인인구 구성비
	• 성별 연령별 생산연령인구 구성비
	•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인구구성비
인구이동	• 성별 거주이동에 대한 선호도
	• 성별 거주이동 이유
출생	• 합계출산율
	• 25-29세 출산율
	• 30-34세 출산율
	• 교육수준별 출산율
	• 첫 자녀 출산시 여성 평균연령
	• 산모 연령 분포
	• 혼인상태별 인공임신 중절률
	• 연령별 인공임신 중절률
	• 출생성비
	• 출생순위별 출생성비
	• 성별남아선호도
	• 성별 이상자녀수
	• 성별 이상적인 첫 출산 연령
	• 성별 출생시 기대수명
사망	• 성별 영아 사망률
	• 성별 연령별 사망률

향력이 큰 것 등이 그러하다. 인구부문에서 제시한 개별지표 대부분은 여성사회지표의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관련된 다양한 지표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인구분야는 다음과 같이 좀더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인구분야란 한 국가나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발전 과정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준거가 되는 지표분야로 정책적으로는 특정 지역에 대한 예산이나 자원배분이 인구규모를 고려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구 관련 자료가 성별에 따라 분리 수집되고 여성의 지위지표나 양성평등 지표

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데, 향후 정책적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성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수요와 사용에 대한 예측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인구와 관련된 여성사회지표를 작성하는 목적은 남성과 여성이 처한 사회상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양성평등적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정의와 지표설정 목적으로부터 인구분야를 대표하는 지표의 하위영역을 인구규모, 인구구성, 인구이동, 출생, 사망 등의 5개 영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정의와 설정된 지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규모 : 지역내 총인구의 규모를 말하며, 하위영역으로는 인구추세를 들 수 있다. 관련된 예비지표로는 연도별 총인구, 연도별 성별 연앙추계인구, 성별출신 지역별 외국인 인구 등을 제시하였다.

(2) 인구구성 : 성별에 따른 인구의 전반적인 구성과 분포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연령별 인구와 혼인상태별 인구를 하위영역으로 설정하였다. 관련지표로는 성별 연령별 인구, 성별 연령별 인구 추계, 성별 연령별 노인인구 구성비, 성별 연령별 생산연령인구 구성비,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인구구성비를 제시하였다.

(3) 출생 : 최근 저출산을 고려하여 출생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다루고자 하였다. 전체적인 출산율과 연령별 출산율의 변화를 보려고 하였다. 이것을 통해 젊은 여성층의 출산행위 변화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관련지표로는 출산율, 출산시기, 인공임신중절률, 남아선호, 자녀관 등의 하위영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지표를 제시하였다.

(4) 사망 : 사망률은 생물학적 요인외에 사회경제적, 사회문화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성별 기대수명의 차이, 영아사망률, 연령별 사망률 등을 관련 지표로 제시하였다.

2) 가족분야

가족부문 하위영역의 구성은 가구, 가족형성 및 해체, 가치관, 가사노동, 가족과 직장 양립, 노년생활로 설정하였다. 예비지표 개발을 위하여 하위 영역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우리사회 가족과 관련된 변화를 염두에 두며 사회지표와 여성통계연보, 그리고 외국의 여성관련 지표의 가족과 관련된 지표를 참조하였다. 각각의 하위영역과 관련된 예비지표는 다음과 같다.

<표 3-4> 가족부문의 예비지표

하위영역	예비지표
가구	• 성별가족형태별 분포
	• 성별 한부모 가구 분포
	• 성별 연도별 가구주 분포
	• 혼인상태별 여성가구주 분포
가족형성 및 해체	• 성별 평균 초혼 연령
	• 성별 평균 재혼 연령
	• 조혼인율
	• 성별 평균 이혼 연령
탈가족화	• 조이혼율
	• 성별 이혼 후 자녀 양육 담당자
	• 성별 연령별 일인 가구 분포
	• 성별 독거 노인 가구 분포
태도와 행동	• 성별 결혼에 대한 태도
	• 성별 이혼에 대한 태도
	• 성별 무자녀에 대한 태도
	• 자녀 입양에 대한 태도
	• 태도-여성도 가족생계 동등한 책임
	• 태도-남성도 가사육아 동등한 책임
	• 성별 남자 육아휴직제도 활용에 대한 태도
	• 성별 가정 내 의사결정
	• 성별 본인 명의 재산-주택
	• 성별 본인 명의 재산-주택
	• 성별 배우자의 관계 만족도
	• 성별 가족보살피기 시간사용
	• 성별 가정관리 시간 사용
	• 성별 노후 준비 방법
가족과 직장양립	• 성별 육아휴직자 수와 구성비
	• 출산휴가 수급자 비율(출산취업자중)
	• 6세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 자녀연령에 따른 여성의 노동시간 분포
	• 3세 미만 자녀를 둔 일하는 여성의 보육방식 분포
• 6세 미만 자녀를 둔 일하는 여성의 보육방식 분포	

(1) 가구 :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을 함께 하고 자원을 공유하는 단위가 가구이다. 가구주 역할을 하는 여성의 비중을 나타내고자 설정하였다. 관련된 예비 지표는 가족 및 가구형태 속에서 여성의 삶을 살펴보기 위하여 성별가족형태별 분포, 성별 한부모 가족 분포를 제시하였으며, 성별 연도별 가구주 분포, 혼인상태별 여성가구주 분포등을 제시하였다.

(2) 가족형성 및 해체 : 혼인과 이혼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예비지표를 제시하였다. 혼인은 혼인과 결혼생활의 세부관심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결혼과 관련된

(3) 가치관 : 저출산과 관련하여 자녀관을 살펴보기 위하여 ‘성별자녀에 대한 태도’를 예비지표의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4) 가사노동 분담 : 가족내 가사노동 분담을 파악하는 방법 중 하나는 시간사용 조사를 통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가사노동 분담현황에 대해서 알아내는 것이다. 예비지표를 제시하는데 있어서는 생활시간 조사 자료를 이용한 가사노동에 대한 성별 시간 투입량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3) 교육분야

〈표 3-5〉 교육분야의 예비지표

하위영역	예비지표
교육기회	• 25세 이상 인구의 성별 평균 교육년수(현재, 20년전)
	• 성별 연령별 평균 교육년수
	• 대졸자 중 여성비율
	• 영재교육 참가자 여학생 비율
	• 대학 취학률 1 (현재, 20년전)-휴학생 포함
	• 대학 취학률 2 (현재, 20년전)-휴학생 제외
	• 학사학위 취득자 중 여성비율
	• 석사학위 취득자 중 여성비율
	• 박사학위 취득자 중 여성비율
	• 전공계열별 대학생 중 여학생 비율
	• 전공계열별 대학원생 중 여학생 비율
	• 전공계열별 박사과정 중 여학생 비율
	• 평생학습 참여자 여성비율
	• 성인의 1일 교육훈련 사용자간의 성별 차이
	• 기능장 자격자 중 여성비율
	• 기능사 자격자 중 여성비율
	• 직업훈련원생 중 여성비율
	• 재직자 훈련 참여 근로자 중 여성비율
• 실업자 훈련 참여자 중 여성비율	
교육여건 및 자원	• 초등학교 교원과 교장의 여성비율
	• 중학교 교원과 교장의 여성비율
	• 고등학교 교원과 교장의 여성비율
	• 대학교 전공계열별 여교수 비율
	• 교육전문직의 여성비율
	• 고등학생의 성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 고등학생의 성별 1인당 월평균 교육비
교육의 결과	• 15세 남녀학생이 국어, 영어, 수학, 과학과목의 성취도의 차이
	• 성인의 기초직업능력 남녀차이
	• 전공분야별 대졸 취업률의 남녀차이
	• 성별 고졸대비 대졸 임금격차
	• 지식재산권출원건수 여성비율

교육분야의 예비지표는 양성평등의식의 함양과 여성의 자기개발 촉진 및 교육기회의 확대와 생활 속의 평등문화 정착 등에 대한 실태를 측정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따라서 여성의 능력개발 교육과 교육재정 및 양성평등의식 교육 등으로 세분하여 접근하였다. 교육부문의 노력은 양성평등의식의 형성 및 여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접근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부문의 지표개발의 특성은 분야를 다양하게 확대하여 학교교육 외에 평생교육과

인적자원개발관련 지표들을 개발한 것이 주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학교교육에서는 기본적인 취학률 외에 투자부문에서 딸과 아들에 대한 교육비의 차이등을 추가하였으며, 성과지표로서 읽기, 수학적 소양, 과학적 소양에서의 남녀 차이 등을 추가하여 세밀한 부분에서 남녀차이를 보여주는 지표들을 예비지표로 선정하였다. 고등교육에서는 학위과정별로, 세부 전공별로 남녀차이를 보고자 하였다. 교육인력도 학교 내의 중요 정책결정자인 교장 뿐만 아니라 교육전문직과 선출직인 교육감 등

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교육정책결정자들의 성별 비율을 보고자 하였다. 인적자원개발 관련은 성인의 직업훈련, 직업능력개발능력 등을 보고자 하였으며, 학교졸업 후 성과 등을 집중적으로 추가하였다.

4) 경제분야

<표 3-6> 경제분야의 예비지표

하위영역	예비지표
경제활동의 기회	• 성별 연도별 경제활동참가율
	• 연도별 경제활동인구의 여성 비중
	• 25-34세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 성별 대졸자의 경제활동참가율
	•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비율
	• 성별 연도별 실업률
	• 성별 대졸자 실업률
취업구조	• 연도별 비경제활동인구 중 여성비중
	• 행정관리직 여성비율
	• 전문직 여성비율
	• 30대 상장기업의 여성고용비율
	• 차세대성장동력 10대산업 여성종사자 비율
	• 5인 이상 사업체 대표자의 여성 비율
근로조건	• 무급가족 종사자의 여성비율
	• 남성임금대비 여성임금비
	• 최저임금 적용근로자 여성비율
	• 기업내 과장급 이상의 여성비율
	• 근로자의 평균 근무년수 남녀차이
	• 성별 근로자의 일용직 비중
총노동	• 성별 근로자의 시간제 비중
	• 성별 총노동시장/유급노동시간/무급노동시간 비율
소득과 소비	• 가구주 성별 소득격차
	• 가구소득 중 배우자 기여율
	• 국민연금 수급액 성별격차
	• 재산세 성별 격차
	• 승용차 소유주 여성비율
여성취업에 대한 인식	• 성별 여성의 취업지속에 대한 의견
	• 성별 전업주부의 재취업 장애요인에 대한 의견
	• 성별 채용 차별에 대한 인지도
	• 성별 업무 배치 차별에 대한 인지도
	• 성별 승진 차별에 대한 인지도
	• 성별 퇴직 차별에 대한 인지도

경제부문의 지표는 지역경제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느 정도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를 중심으로 경제주체로서의 여성과 평등한 고용기회 및 대우의 동등성 등에 대한 실태를 측정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따라서 취업여건 및 취업의 안정성과 함께 여성 CEO 등으로 세분하여 접근하였다.

5) 정치 및 사회참여 분야

<표 3-7> 정치 및 사회참여분야의 예비지표

하위영역	예비지표
정치참여	• 성별 정당지지도 및 유권자 투표율
	• 지방의회의원 당선자 중 여성비율
	• 성별 정치에 대한 관심
	• 지방의회의원 여성할당제에 대한 의견
	• 여성대통령에 대한 선호
	• 주요정당 여성비율
	• 주요정당의 보직자 중 여성비율
	• 지방의회위원 상임위 위원장 중 여성비율
행정참여	• 지방법원 여성공무원 비율
	• 지방법원 여성판사비율
	• 지방검찰청 고위직 중 여성비율
	• 경찰 고위직 중 여성비율
	• 지방직 공무원 중 여성비율
	• 시 양성평등정책 전담조직 운영
	• 시 정책자문위원 중 여성비율
	• NGO 중 여성단체 비율
사회참여	• 여성단체의 사회발전 기여도
	• 지자체 등록 NGO 상근활동가 중 여성비율
	• 지자체 등록 자원봉사자 중 여성비율
	• 노동조합 대의원 중 여성비율
	• 노동조합 간부 중 여성비율
	• 주요언론 종사자 중 여성비율
	• 주요언론 종사자 중 고위직 여성비율

지역정치분야의 지표는 지방자치 행정차원에서 여성공무원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반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와 기반조성 실태를 측정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행정의 조직, 인사, 재정 및 예산과 함께 자치행정 등으로 세분하여 접근하였다.

사회참여 분야의 예비지표는 양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기반의 구축과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 등에 대한 실태를 측정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

추고자 하였다. 따라서 비 정치부문에서의 사회참여활동을 중심으로 참여 역할, 전문직 활동 정도 및 양육여건 등 세분하여 접근하였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육아문제의 해결과 가사노동 가치의 인정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지원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보육 및 육아 문제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접근 가능한 일이다.

6) 건강 분야

〈표 3-8〉 건강분야의 예비지표

하위영역	예비지표
건강상태	• 성별 건강수명
	• 성별 BMI(체질량지수)
	• 성별 빈혈 지수
	• 성별 흡연량, 흡연인구비율
	• 성별 음주 횟수 및 음주인구비율
	• 성별 개인의 건강상태평가
생식건강	• 성별 5대 암 수진율
	• 성별 피임실천율
	• 제왕절개 분만율
	• 장애아 출현율
	• 자제증아 출산율
	• 선천성기형아 출산율
사망 및 상병	• 산전관리횟수
	• 모성사망비
	• 성별 10대 사인별 사망률
	• 성별 암사망률(암종류별)
	• 성별 주요 만성 질환별 유병률
	• 성별 생식관련 질환 유병률
보건의료 이용	• 성별 AIDS/HIV 보균자수
	• 성별 활동제한일수
	• 성별 입원율
보건의료 자원	• 성별 외래이용률(의료기관 중별 외래 이용률)
	• 성별 평균재원일수(전체 및 심혈관계질환)
	• 성별 의료서비스 만족도
의료보장	• 의료행정관리직의 직급별 여성분포
	• 보건의료 시설 수와 병상수
	• 지역별 산과병의원수
의료보장	• 성별 총국민의료비대 1인당 의료비
	• 성별 수진율 및 평균수진건수와 건강진료일수
	• 성별 전체 의료비 중 본인부담률
	• 성별 의료급여적용인구
	• 성별 1인당 평균급여액

예비지표로 선정하였다. 또한 지역별 보건부문의 양성평등지표로는 성별 암검진 수진율, 성별 주관적 자가 건강상태 및 성별 외래 이용률을 선정하였다. 제안된 지표들에 대한 통계산출과 국가별, 지역별 비교 및 시계열적 비교를 통해 실제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정도를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최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특성의 하나로 성의 차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신체적 차이만을 고려한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같은 약물에 대한 부작용의 정도가 다를 수 있으며, 뇌졸중을 앓고난 이후에도 후유증이 남는 정도가 다르다는 연구 결과의 예로 알 수 있다.

건강부문에서 여성사회지표는 국가의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 요구와 성인지적인 국가 정책 개발 업무 요구에 따른 양성 건강 통계를 생산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는 건강부문 양성평등 지표로서 대표적인 5가지 보건지표, 성별 연령별 기대수명, 성별 자가평가 건강상태, 성별 입원율, 성별 암검진 수진율, 성별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을

7) 사회복지 분야

〈표 3-9〉 사회복지분야의 예비지표

하위영역	예비지표		
복지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여건의 변화에 대한 인식의 성별차이 		
사회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험에 대한 인지도의 성별차이 성별건강보험 평균급여액 국민연금제도의 노후보장에 대한 인식의 성별 차이 성별 공적연금 가입자 성별 공적연금 수급자 성별 공적연금 평균 급여비 산재보험 수급자 급여비 고용보험 가입비율 실업급여 수혜율 		
	공공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빈곤가구주 남녀비율 의료급여 대상자 남녀비율 	
		사회복지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시설별 평균종사자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의 성별 분포 전 산업대비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평균임금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여성 비율 65세 이상 노인 중 복지시설 생활인 중 여성 비율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성별 취업률 성별 65세 이상 생활비(용돈)마련 방법 성별 결식노인비율 아동 성별 국내입양아 수 성별 성적 학대 받은 아동 수 성별 장애인 등록률 성별 재가 장애인수 성별 직업재활시설 이용률 장애인 성별 교육수준 장애인 성별 혼인상태 장애인 성별 취업자 비율

사회복지분야의 지표는 양성평등적 시민복지권의 보장과 가정 내 양성평등 및 건강보건의 여건 등에 대한 실태를 측정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따라서 여성의 복지권인 가정 내 평등, 복지여건 및 건강관리 등으로 세분하여 접근하였다. 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가정부문을 별도의 독립적 부문으로 분류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행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부문에 가정에서의 양성평등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차별화 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각 영역의 예비지표는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지표가

운데 가능한 복지수준을 잘 나타내 주면서 성별로 차이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들로 구성하였다. 즉, 복지부문을 복지전반,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4개의 관심영역으로 나누고, 복지전반은 일반인식, 사회보험은 인지도, 건강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과 관련된 지표를, 공공부조는 기초생활보장과 의료 급여와 관련한 지표,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인력자원과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지표를 예비지표로 선정하였다.

8) 문화 및 여가부문

〈표 3-10〉 문화 및 여가분야의 예비지표

하위영역	예비지표
문화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문화재수중 성별 무형문화재 수의 비중
문화창작 및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교육과정 이외의 문화예술교육경험여부(15세) 성별 문화예술관련 창작활동의 참여 여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만족도 성별 문화예술분야 졸업생의 해당분야 취업률 문화산업종사자중 여성비중 문화산업종사자의 성별임금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 소득수준에 따른 문화활동참가 비용 성별 문화활동참가시간 성별 예술행사관람률 성별 생애주기의 변화에 따른 문화욕구 변화 성별 연령대별 TV시청시간 성별 대중매체에서의 성적표현에 대한 의견 성별 문화시설이용률 성별 지역문화시설이용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 문화단체참여율 문화예술기금 수혜자의 성별 비중 성별 여성주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적 결핍감의 성별차이 문화적 자신감의 성별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가활동방법의 성별 차이 평균여가시간의 성별 차이 가구구성원별 여가활동비용지출 우선 순위 성별 시간 압박감 성별 여가활동의 어려운 점
여가활용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 해외여행 비율 성별 생활체육참여율 성별 스포츠경기 관람률 성별 문화인터넷 사용비율 성별 사이버동호회참여율

문화 및 여가분지표 영역은 기본적으로 문화영역과 여가영역을 분리한 뒤, 문화영역은 문화유산, 문화창작 및 생산, 문화소비, 사회문화활동, 문화의식

문화 및 여가분지표 영역은 기본적으로 문화영역과 여가영역을 분리한 뒤, 문화영역은 문화유산, 문화창작 및 생산, 문화소비, 사회문화활동, 문화의식으로 구분하였다. 문화활동에 대한 분류방식은 <문화지표 개편방안 연구>(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의 기능별 분류방식을 일부 채택하되 기본적으로는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연구>(보건사회연구원,2004)의 영역별 분류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기능별 분류방식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문화활동과 대상의 모든 영역을 포함할 수 없는 분류방식이라는 점 이외에도 문화의 유통 및 분배의 영역은 성별 편차가 드러나지

않는 주로 문화시설이나 기관관련 통계이기 때문에 여성사회지표 속에 포함시키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여가영역은 여가활용 조건과 여가활용실태로 구분하여 각각의 영역에 적합한 개별 지표를 예비지표로 선정하였다. 문화 및 여가관련 여성사회지표는 취업유무, 결혼상태, 연령, 어린 자녀의 존재유무, 가구소득에 따른 여성내부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여성과 남성의 이분법적 대립구조를 넘어서는 여성내부의 문화적 분절화에 주목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려는 데 있다. 이렇게 해서 총 7개의 영역에서 총 30개의 예비지표가 선정되었다.

9) 폭력과 범죄 분야

〈표 3-11〉 폭력과 범죄분야의 예비지표

하위영역	예비지표
폭력에 대한 두려움	① 성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② 성별 연령별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
	③ 성별 연령별 강간피해에 대한 두려움
성폭력 발생과 피해	④ 연도별 강간범죄의 발생건수
	⑤ 강간범죄 종류(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별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 비율
	⑥ 강간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⑦ 강간범죄의 신고율
	⑧ 성별 생애동안 유형별(인터넷, 전화 등) 정도별 성폭력 경험률
	⑨ 유형별 성폭력 상담실적
	⑩ 직장내 성희롱 성별 경험률과 신고건수
	⑪ 강간범죄자의 처리결과
	⑫ 강간범죄자의 재범률
	가정폭력 발생과 피해
⑭ 가정폭력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⑮ 가정폭력범 가해자 조치결과	
여성범죄	⑯ 성별 범죄자수 및 인구10만명당 범죄발생비율
	⑰ 주요 범죄 여성비율
	⑱ 재소자 여성비율
	⑲ 출소자 성별 취업률
안전	⑳ 성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폭력과 범죄분야의 여성사회지표개발을 위한 예비지표 선정에 있어 기본방향은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폭력의 희생자로서 여성의 비중이 높은 점을 보여주는 데 비중을 두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폭력의 성격에 따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부문으로 나누고 다시 과정별로 발생, 범죄, 피해자보호 및 지원의 세 부문으로 나누어 보았다. 범죄와 폭력 부문의 관심영역은 크게 생활안전, 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

여성범죄 부문으로 나누었다. 생활안전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지표들이며, 여성에 대한 폭력피해는 여성들이 자주 피해를 입고 있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인신매매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여성범죄는 최근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면서 범죄 중 여성비율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의 범죄발생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교정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도 예비지표로 선정하였다.

제3절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분석

1. 조사개요

앞서 설정한 포괄적인 부문과 지표의 영역조정과 각 지표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전화이용 설문조사로서 e-mail을 활용한 자기기입식 방식으로 설문지 발송대상은 대학이나 연구소, 시민단체에 재직하는 각 분야별 여성관련 연구자 40명이었으며 응답자는 24명으로 60%의 회수율을 보였다. 조사대상 전문가의 선정은 양성평등 문제에 대해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동일한 분야에 우수한 연구실적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학자와 여성 시민단체 실무자 및 행정전문가들 중에서 특히 대전시의 자치행정이나 지방행정에 대한 이해가 깊은 전문가 40명을 선정하였다.

이는 이미 앞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대전여성사회지표가 사회지표로서 대전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지나치게 일반화된 전국 규모의 양성평등 수준의 측정이 용이한 지표의 선정으로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여성사회 지표는 실천지표로서의 기능이 무엇보다 선행하는 선택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조사의 내용은 우선 여성사회지표 개발모형의 타당성과 활용가능성을 점검하였고, 지표에 관한 사항은 본 연구에서 택하고 있는 영역별로 각각의 지표에 대한 선정기준을 예시하였고, 응답자로 하여금 각 지표에 대한 활용가능성 및 적절성을 바탕으로 가부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특히 예시한 지표 외에 제안코자하는 지표에 대해서는 각 부문별로 구체적으로 기술토록 하였다. 구체적인 설문내용은 첫째, 전체 영역분류에 대한 타당성, 둘째, 부문내 관심영역과 세부관심영역 분류에 대한 타당성, 셋째, 여성지위지표에 대한 적합성, 넷째, 양성평등 대표지표의 선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2. 전문가 설문 결과 및 전문가 자문내용 분석

1) 영역별 중요도 및 타당도에 대한 설문 결과

조사결과를 보면 전체 영역분류의 타당성은 24명 중 12.5%인 3명만이 부적절하다고 대답하고 나머지는 모두 긍정적인 답변을 하여 기존의 분류체계를 따르기로 하였다.

전문가에게 첫 번째로 질문한 내용은 9개의 각각의 영역이 대전시 여성의 삶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겠느냐에 대한 것이었다. 그 결과는 <표 3-1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전체적으로 보아 교육(중요 응답 54.2%), 경제활동(54.2%), 가족(50.0%), 정치사회 참여(41.7%), 인구(41.7%), 건강(37.5%), 폭력·안전(37.5%), 사회복지(37.5%), 문화여가(29.2%)의 순서로 나타났는데, 주목할 것은 기존에 중요한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문화여가부분의 중요도가 다른 영역에 비하여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표 3-12> 영역별 중요도 평가

영역	매우 중요함	약간 중요함	보통	별로 중요하지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계
인구	4(16.7)	6(25.0)	8(33.3)	5(20.8)	1(4.2)	24(100.0)
가족	8(33.3)	4(16.7)	5(20.8)	5(20.8)	2(8.3)	24(100.0)
교육	6(25.0)	7(29.2)	4(16.7)	6(25.0)	3(12.5)	24(100.0)
경제활동	7(29.2)	6(25.0)	5(20.8)	5(20.8)	1(4.2)	24(100.0)
정치사회참여	4(16.7)	6(25.0)	6(25.0)	5(20.8)	3(12.5)	24(100.0)
건강	3(12.5)	6(25.0)	5(20.8)	7(29.2)	3(12.5)	24(100.0)
사회복지	4(16.7)	5(20.8)	6(25.0)	6(25.0)	3(12.5)	24(100.0)
문화여가	3(12.5)	4(16.7)	5(20.8)	6(25.0)	6(25.0)	24(100.0)
폭력·안전	4(16.7)	5(20.8)	8(33.3)	4(16.7)	3(12.5)	24(100.0)

9개의 분류영역의 타당도에 대한 전문가의 응답결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개별분류항목별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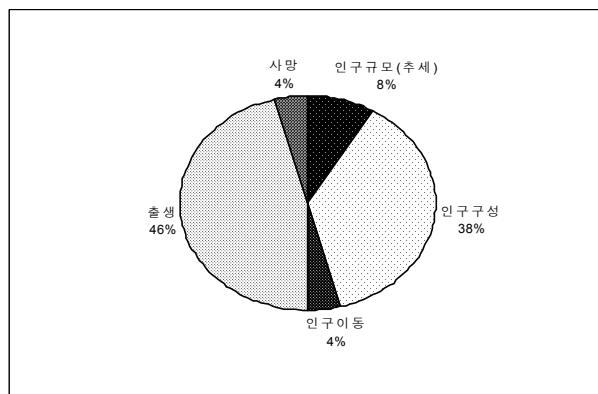
2. 영역별 하위영역에 대한 중요도 설문 결과

전문가에 대해 두 번째로 질문한 내용은 각 영역별로 하위 영역이 해당 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이었다. 각 영역별로 결과를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1) 인구영역

인구영역에 대한 하위영역의 중요도 응답결과는 역시 출생의 영역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인구이동이나 사망이 낮게 나타난 것은 여성사회지표가 양성평등의 실현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갖는다고 가정해 볼 때 이러한 두 영역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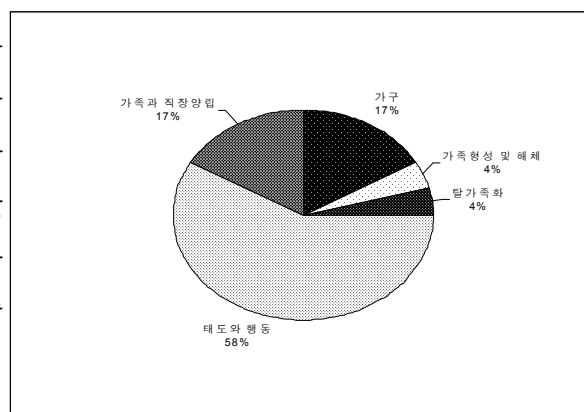
<그림 3-1> 인구부문 하위영역별 중요도



2) 가족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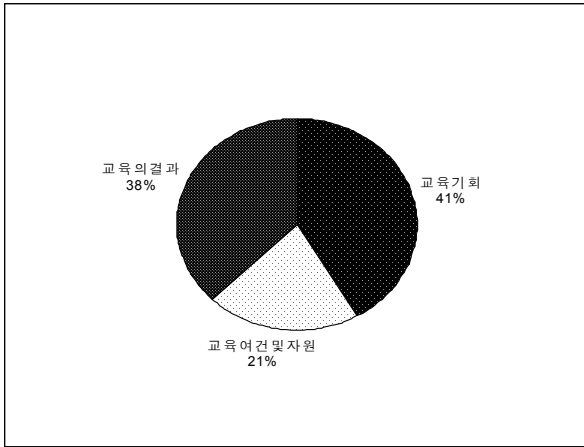
가족영역 하위영역의 중요도에 있어서는 압도적으로 태도와 행동이 중요한 영역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가족과 직장양립의 문제, 가구구성의 문제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가족분야의 경우 의식적인 측면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3-2> 가족부문의 하위영역별 중요도



3) 교육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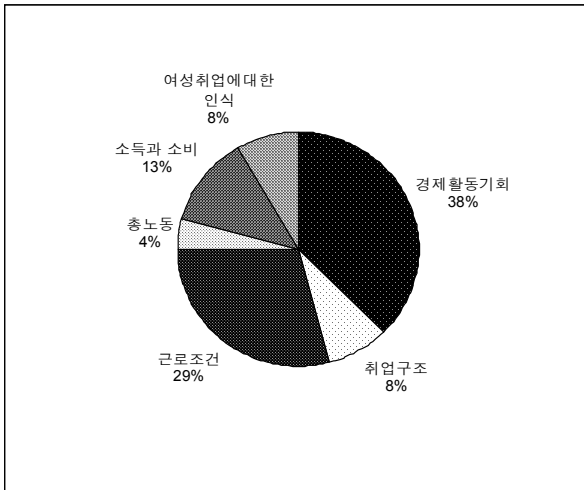
<그림 3-3> 교육분야의 하위영역별 중요도



교육분야에 대한 하위 영역의 중요도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교육영역에서 양성평등의 가치가 여전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교육기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교육의 결과에 대해서도 양성평등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경제분야

<그림 3-4> 경제분야의 하위영역별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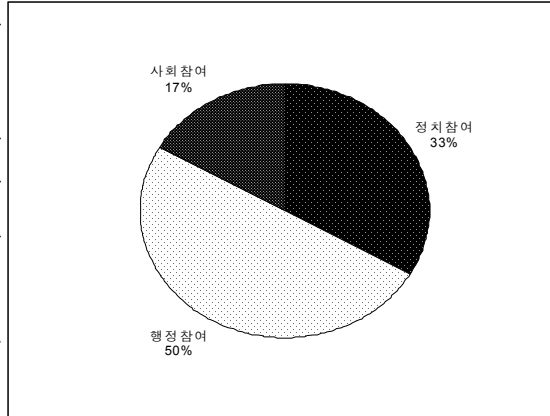


경제분야에서는 6개의 하위영역 중 경제활동기회가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근로조건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개의 영역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응답하였다. 아무래도 노동시장에서의 남녀간 격차가 크다는 점과 근로조건에서의 차별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5. 정치 및 사회참여 분야

정치 및 사회참여 분야의 3가지 하위영역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는 행정 참여, 정치참여, 사회참여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정서상 정치참여보다는 행정 수요자로서 행정에 대한 직접 참여에 대한 바램이 높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나타난 결과이며, 사회참여의 경우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등이 남성에 비하여 두드러지게 높기 때문에 중요도에 있어서도 낮은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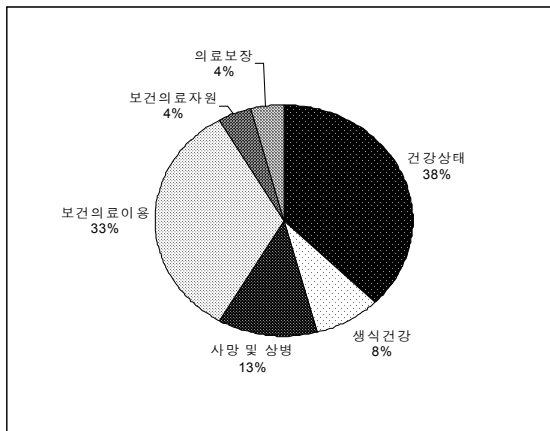
<그림 3-5> 정치 및 사회참여분야의 하위영역별 중요도



6) 건강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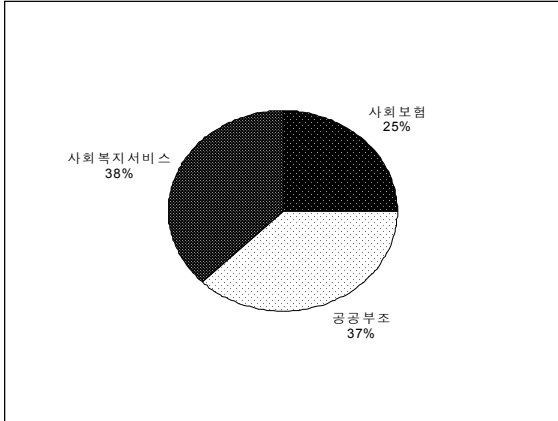
건강분야의 하위영역은 총 6개로 이중 건강상태와 보건의료이용의 중요도가 다른 하위영역 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판단과 보건의료이용의 경제적 부담에서 성 차별의식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6> 건강분야의 하위영역별 중요도



7) 사회복지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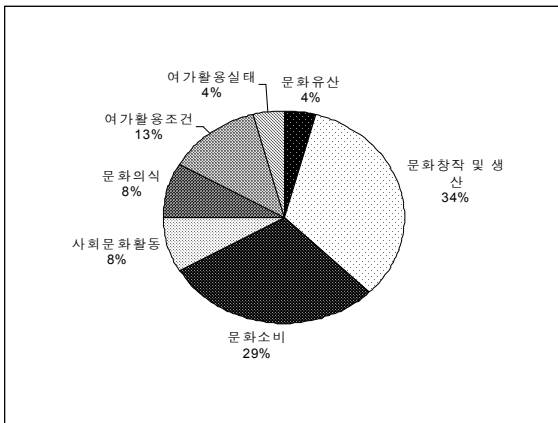
<그림 3-7> 사회복지분야의 하위영역별 중요도



사회복지분야의 하위영역의 중요도 비중은 3영역 모두 비슷하게 나타났다. 사회복지서비스가 공공부조와 일치하며, 사회보험의 경우 두 하위영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8) 문화분야

<그림 3-8> 문화분야의 하위영역별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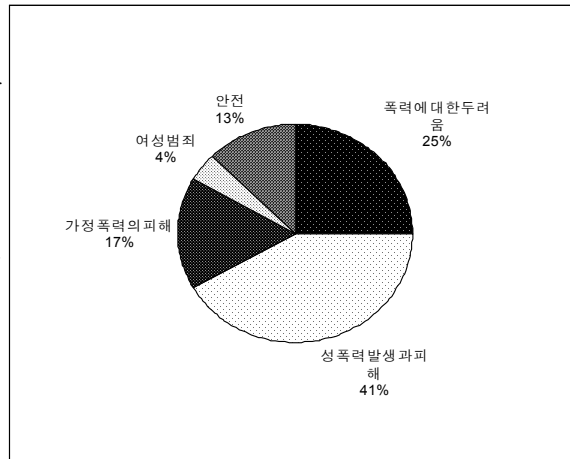


문화분야는 문화창작 및 생산, 문화소비 하위영역의 중요도를 지적하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많았다. 특히 문화창작 및 생산에 있어 성별 문화예술분야의 졸업생 취업률이나 문화산업종사자중 여성비중이 여전히 남성에 비하여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9) 폭력과 범죄분야

폭력과 범죄분야의 하위영역 중 성폭력발생과 피해와 폭력에 대한 두려움에 높은 중요도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의 피해 대상이 여성이라는 사실과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두려움, 공포 등의 심리적 요인 또한 여성이 주로 느끼고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9〉 폭력과 범죄분야의 하위영역별 중요도



10) 분석결과 종합

각 영역별 하위영역간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응답 결과를 분석하여 각 하위영역의 중요도에 따라 개별지표의 수를 조정하는 기본 정보로 이용하였다. 또한 이 분석 결과는 추후 예비지표에 대한 실제 데이터를 얻어 그것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13> 전문가 조사후 하위영역의 조정 내용

영역	하위 영역	
	잔류영역(28개)	제외영역(15개)
인구	인구구성,출생,사망	인구규모, 이동
가족	태도와 행동, 가족과직장 양립	가구, 가족형성 및 해체, 탈가족화
교육	교육기회, 교육여건 및 자원, 교육의 결과	
경제활동	경제활동기회,취업구조, 근로조건, 소득과소비	총노동, 여성취업에 대한 인식
정치 및 사회참여	정치참여, 행정참여, 사회참여	
건강	건강상태, 생식건강, 사망 및 상병, 보건의료이용	보건의료자원, 의료보장
사회복지	복지전반,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문화 및 여가	문화창작 및 생산, 문화소비	문화유산, 사회문화활동, 문화의식, 여가활용조건, 여가활용 실태
폭력과 범죄	폭력에 대한 두려움, 성폭력발생과 피해, 가정폭력의 발생과 피해, 안전	여성범죄

위 표는 전문가 델파이 조사후 중요도가 극히 떨어지는 영역을 제외하고 재설정
한 하위영역의 변화내용이다. 전체 43개의 영역 중 인구, 가족, 경제활동, 건강, 문
화 및 여가, 폭력과 범죄 영역에서 총 15개 영역이 제외되어 25개 영역의 잔류영역
을 확정하였다.

3. 전문가 델파이 조사 후 예비지표 조정

전문가들에 대한 세 번째 주요 질문은 각 개별지표가 지역여성의 지위와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중요한지, 그리고 그 지표를 측정하는데 대한 용이성 혹은 측정가능성은 어떤지에 대한 것이었다. 5점 척도로 표시하게 하였으므로 숫자가 클수록 종속변수인 지역여성의 지위 결정 및 양성평등 정도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표이며, 2.5점은 넘어야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용이성은 부차적인 기준으로 생각하고, 중요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균이 2.5를 넘지 않는 지표는 제외시켰다.

이렇게 하여 정리된 지표수는 처음 265개에서 64개로 줄어들었다. 초기 예비지표 표에서는 전체 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던 영역이 교육, 경제활동, 건강이었으나, 전문가 설문후 조정된 지표에 있어서는 인구와 경제활동의 비중이 가장 높고, 상대적으로 문화 및 여가는 전체 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게 되었다.

〈표 3-14〉 전문가 설문후 조정된 지표수

영역	초기 예비지표수	전문가 설문후 조정된 지표수
인구	27(10.2)	9(14.1)
가족	31(11.7)	6(9.4)
교육	32(12.1)	7(10.9)
경제활동	32(12.1)	9(14.1)
정치 및 사회참여	31(11.7)	6(9.4)
건강	32(12.1)	7(10.9)
사회복지	29(10.9)	7(10.9)
문화 및 여가	31(11.7)	5(7.8)
폭력과 범죄	20(7.5)	8(12.5)
계	265(100.0)	64(100.0)

이제 구체적으로 각 영역별로 추가, 삭제를 거쳐 확정된 예비지표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인구영역(9개)

인구 영역에서는 27개의 지표 중 중요도가 낮게 나오거나 측정용이성이 좋지 않은 지표 18개를 제외시켜 모두 9개의 지표를 남겨두었다. 그 결과는 <표 3-15>와 같다.

<표 3-15> 인구영역의 잔류지표와 제외지표

하위영역	잔류지표(9개)	제외지표(18개)
인구규모(추세)		연도별 성별 총조사 인구 연도별 성별 연앙추계인구 성별 출신지역별 외국인 인구 성별 결혼이민자(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수
인구구성	성별 연령별 노인인구 구성비 성별 연령별 생산연령인구 구성비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인구구성비	성별 연령별 인구 성별 연령별 인구 추계
인구이동		성별 거주이동에 대한 선호도 성별 거주이동 이유
출생	혼인상태별 인공임신 중절률(통합) 출생성비 출생순위별 출생성비 성별남아선호도 성별 이상자녀수(성별 기대자녀수)	합계출산율 25-29세 출산율 30-34세 출산율 교육수준별 출산율 첫 자녀 출산시 여성 평균연령 산모 연령 분포(모의 연령별 출생아 구성비) 연령별 인공임신 중절률(통합) 성별 이상적인 첫 출산 연령
사망	성별 영아 사망률	성별 출생시 기대수명 성별 연령별 사망률

인구부문의 지표는 성별 차이를 통해 여성의 지위를 보여주는 지표의 성격은 강하지만 명시적으로 양성평등 지표라고 꼽을 만한 것은 드물다. 델파이 조사결과 전문가 다수는 인구부문 지표 중 남아선호와 관련되어 있는 지표를 중심으로 9개의 지표를 제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회의를 거쳐 지표로 확정된 선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표 3-16〉 인구부문 여성사회지표의 선정이유

인구부문 여성사회지표	선정이유
성별 연령별 노인인구 구성비	성별로 분리하여 살펴 본 고령화의 한 단면을 나타내 주는 지표로 여성 노인 관련 정책이나 사회부양 정책 추진에 있어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지표임
성별 연령별 생산연령인구 구성비	향후 잠재적 생산연령인구를 보여주는 지표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가능할 수 있는 대표 지표임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인구구성비	성별로 남녀의 상대적 규모를 보여주는 동시에 성별에 따른 혼인지위의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로 인구부문의 기초지표임
혼인상태별 인공임신 증절률(통합)	여성의 건강과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지표임
출생성비	남아선호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임
출생순위별 출생성비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성비 불균형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남아를 얻기 위한 출산행위 결과로 남아선호의 좋은 지표임
성별남아선호도	가족과 사회에서 남성을 우월한 지위를 당연시하는 정서가 반영된 지표. 주관적 지표로서 아들 선호에 대한 의견 조사를 근거로 구성
성별 이상자녀수(성별 기대자녀수)	딸과 아들로 구분하여 기대하는 자녀수로 현재의 출산수준과 비교하여 이상과 현실의 간격을 보여주는 지표임
성별 영아 사망률	집중적 보호가 요구되는 영아기 성별에 따른 사망률 차이는 특정 성별의 자녀에 대한 편애를 보여주는 것으로 남아선호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임

2) 가족영역(6개)

가족 영역 또한 31개의 예비지표 중 중요도가 낮게 나오거나 측정용이성이 좋지 않은 지표 25개를 제외시켜 모두 6개의 지표를 남겨두었다. 그 결과는 〈표 3-17〉과 같다.

가장 많은 전문가들은 성별 본인명의 재산-주택을 중요한 지표로 선정하였다. 이외에도 아래 표에 나타나있는 바와 같이 성별 가족보살피기, 6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등이 잔류지표로 선정되었다.

인구부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족부문에서도 많은 여성지위지표가 명시적으로 양성평등을 보여주는 지표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많은 지표들이 제외되게 되었으며, 실천과 관련되어 있는 태도와 행동의 하위영역에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전문가회의를 통하여 최종 선정된 이유는 표〈3-18〉과 같다.

<표 3-17> 가족부문의 잔류지표와 제외지표

하위영역	잔류지표(6개)	제외지표(25개)
가구		성별 가족형태별 분포 성별 한부모 가구 분포 성별 연령별 가구주 분포 혼인상태별 여성가구주 분포
가족형성 및 해체		성별 평균 초혼 연령 성별 평균 재혼 연령 조혼인율 성별 평균 이혼 연령 조이혼율 성별 이혼 후 자녀 양육 담당자
탈가족화		성별 연령별 일인 가구 분포 성별 독거 노인 가구 분포
태도와 행동	태도-여성도 가족생계 동등한 책임 태도-남성도 가사육아 동등한 책임 성별 남자 육아휴직제도 활용에 대한 태도 성별 본인 명의 재산-주택 성별 가족보살피기 시간사용 성별 노후 준비 방법	성별 결혼에 대한 태도 성별 이혼에 대한 태도 성별 무자녀에 대한 태도 자녀 입양에 대한 태도 성별 가정 내 의사결정 성별 본인 명의 재산-주택 성별 배우자의 관계 만족도 성별 가정관리 시간 사용
가족과 직장양립		성별 육아휴직자 수와 구성비 출산휴가 수급자 비율(출산취업자중) 6세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자녀연령에 따른 여성의 노동시간 분포 3세 미만 자녀를 둔 일하는 여성의 보육방식 분포 6세 미만 자녀를 둔 일하는 여성의 보육방식 분포

<표 3-18> 가족부문 여성사회지표 선정이유

가족부문 여성사회지표	선정이유
성별 본인 명의 재산-주택	가족 내 경제적 권한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임
성별 양성평등 가치관	남성우위나 남성 우월주의를 보여주는 전통적 가족제도 관행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양성평등 정도는 가늠할 수 있음
성별 맞벌이별 가정관리 시간 사용	음식만들기, 장보기, 청소 등 가족 유지와 재생산을 위해 매일 수행되는 가사노동 참여 정도를 보여주는 것은 양성평등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
성별 남자의 육아휴직제도 활용에 대한 태도	육아는 여성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인데 남성의 육아 휴직제도 활용에 대한 태도는 육아 분담 태도를 보여주는 좋은 지표임. 육아휴직자 수가 너무 적어서 육아휴직제도 사용에 대한 태도를 지표로 구성하였음
성별 노후 준비방법	노후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경제활동이 제한되었던 여성의 경우 노후준비가 부실한 경우가 많음. 노후를 위한 경제적 자원이 성별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줌.

3) 교육부문(7개)

교육부문에서 제외된 지표들 또한 많았다. 전체 32개의 예비지표 중 전문가 중요도 측정결과 낮게 나오거나 측정용이성이 좋지 않은 지표 25개를 제외시켜 모두 7개의 지표를 선정하였다.

교육부문의 잔류지표는 여성과 남성의 특성을 보여주는 내용보다는 동일 상태나 조건에서 남녀의 불평등을 보여 줄 수 있는 지표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표 3-19> 교육부문의 잔류지표와 제외지표

하위영역	잔류지표(7개)	제외지표(25개)
교육기회	성별 연령별 평균 교육년수 전공계열별 대학생 중 여학생 비율 평생학습 참여자 여성비율	25세 이상 인구의 성별 평균 교육년수 대졸자 중 여성비율 영재교육 참가자 여학생 비율 대학 취학률 1 (현재, 20년전)-휴학생 포함 대학 취학률 2 (현재, 20년전)-휴학생 제외 학사학위 취득자 중 여성비율 석사학위 취득자 중 여성비율 박사학위 취득자 중 여성비율 전공계열별 대학원생 중 여학생 비율 전공계열별 박사과정 중 여학생 비율 성인의 1일 교육훈련 사용자간의 성별 차이 기능장 자격자 중 여성비율 기능사 자격자 중 여성비율 직업훈련원생 중 여성비율 재직자 훈련 참여 근로자 중 여성비율 실업자 훈련 참여자 중 여성비율
교육여건 및 자원	대학교 전공계열별 여교수 비율 고등학생의 성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초등학교 교원과 교장의 여성비율 중학교 교원과 교장의 여성비율 고등학교 교원과 교장의 여성비율 교육전문직의 여성비율 고등학생의 성별 1인당 월평균 교육비
교육의 결과	전공분야별 대졸 취업률의 남녀차이 성별 고졸대비 대졸 임금격차	15세 남녀학생 주요교과목의 성취도의 차이 성인의 기초직업능력 남녀차이 지식재산권출원건수 여성비율

전문가델파이 조사에 의한 중요도 평가에 의해 전공분야별 대졸취업률의 남녀차이, 대학교 전공계열별 여교수 비율 등 총 7개 지표가 선정되었다. 자문회의를 거쳐 별다른 이견 없이 선정결과에 따르기로 하였으며, 각각의 선정이유로 제시된 의견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20〉 교육부문 여성사회지표 선정이유

교육부문 여성사회지표	선정이유
성별 연령별 평균 교육년수	전 국민의 교육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 지표임
대학 취학률	현대사회에서 고등교육이 보편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별에 따라 대학 취학률의 차이가 나타남
전공계열별 대졸취업률	대학 취학률의 성별 차이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에서의 차이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어, 여성인적자원의 손실이 매우 큼
성별 고졸대비 대졸 임금 격차	성별, 학력별 임금격차는 우리사회의 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임
여교수 비율	교육부문의 여성참여가 활발하지만 고등교육단계에서는 여성인적자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과소대표되고 있음
고등학생의 성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역의 특성에 따라 아들과 딸에 대한 교육투자에 차이가 큰 지역이 있음
평생학습 참여자 성별비율	지역의 특성에 의해 평생학습 기회가 적음

4) 경제부문(9개)

경제부문은 총 32개의 예비지표 중 9개의 지표가 선정되고 23개의 지표가 제외되었다.

〈표 3-21〉 경제부문 잔류지표와 제외지표

하위영역	잔류지표(9개)	제외지표(23개)
경제활동기회	성별 연도별 경제활동참가율 25-34세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대졸자의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대졸자 실업률	연도별 경제활동인구의 여성 비중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비율 성별 연도별 실업률 연도별 비경제활동인구 중 여성비중
취업구조	행정관리직 여성비율	전문직 여성비율 30대 상장기업의 여성고용비율 차세대성장동력 10대산업 여성종사자 비율 5인 이상 사업체 대표자의 여성 비율 무급가족 종사자의 여성비율
근로조건	남성임금대비 여성임금비 성별 근로자의 일용직 비중 성별근로자의 시간제 비중	최저임금 적용근로자 여성비율 기업내 과장급 이상의 여성비율 근로자의 평균 근무년수 남녀차이
총노동		성별 총노동시간/유급노동시간/무급노동시간 비율
소득과 소비	가구주 성별 소득격차	가구소득 중 배우자 기여율 국민연금 수급액 성별격차 재산세 성별 격차 승용차 소유주 여성비율
여성취업에 대한 인식		성별 여성의 취업지속에 대한 의견 성별 전업주부의 재취업 장애요인에 대한 의견 성별 채용 차별에 대한 인지도 성별 업무 배치 차별에 대한 인지도 성별 승진 차별에 대한 인지도 성별 퇴직 차별에 대한 인지도

경제활동부문의 여성사회지표는 델파이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관심영역별로 평등정도를 대표하는 동시에 정책적 의미가 있는 내용을 선정하였다. 경제활동의 기회영역에서는 고학력 여성의 참가율과 출산, 육아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다른 OECD회원국에 비해 특별히 저조한 점을 고려하여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을 대표지표로 선정하였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낮은 지위의 원인이면서 동시에 결과인 직종분리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로서 가장 상위직종이라 할 수 있는 행정관리직에서의 여성비율을 선정하였다. 고용불안정과 저임금의 원천으로 지적받고 있는 비정규직의 비율을 남녀 비교하는 지표를 넣었으며, 각종 차별의 결과로 귀결되는 임금근로자의 월평균급여액의 남녀 비교지표를 선정하였다.

〈표 3-22〉 경제부문 여성사회지표 선정이유

경제부문 여성사회지표	선정이유
25-34세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결혼, 출산, 육아로 이어지는 해당 연령대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적인 지표
대졸자 경제활동참가율	대졸여성의 인력활용이 저조한 한국의 특성을 감안,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대졸 여성의 인력활성화가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선정
대졸자 실업률	청년실업의 문제와 여성문제가 결합되어 심각한 사회현상 중의 하나로 간주됨
행정관리직 여성비율	여성의 노동시장내의 경력개발정도과조직내 지위를 측정할 수 있는 주요 지표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의 성별 비교 성별근로자의 시간제 비중	고용불안정과 저임금의 원인이 되는 주요 지표
남성임금대비 여성임금비	임금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대표하는 주요 지표
가구주 성별 소득격차	여성가구주가 증가하고 있음과 동시에 여성가구주의 소득수준이 남성가구주보다 낮게 나타나 여성의 빈곤화 추세가 예상됨

5) 정치 및 사회참여 분야(6개)

<표 3-23> 정치 및 사회참여분야 잔류지표와 제외지표

하위영역	잔류지표(6개)	제외지표(17개)
정치참여	지방의회의원 당선자 중 여성비율 지방의회위원 상임위 위원장 중 여성비율	성별 정당지지도 및 유권자 투표율 성별 정치에 대한 관심 지방의회의원 여성할당제에 대한 의견 여성대통령에 대한 선호 주요정당 여성비율 주요정당의 보직자 중 여성비율
행정참여	지방직 공무원 중 여성비율 시 양성평등정책 전담조직 운영 시 정책자문위원 중 여성비율	지방법원 여성공무원 비율 지방법원 여성판사비율 지방검찰청 고위직 중 여성비율 경찰 고위직 중 여성비율
사회참여	주요언론 종사자 중 여성비율	NGO 중 여성단체 비율 여성단체의 사회발전 기여도 지자체 등록 NGO 상근활동가 중 여성비율 지자체 등록 자원봉사자 중 여성비율 노동조합 대의원 중 여성비율 노동조합 간부 중 여성비율 주요언론 종사자 중 고위직 여성비율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정치 및 사회참여부문 개별지표 중에서 성별 불평 등의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를 선정해 달라는 질문에서 전문가들은 5개의 지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회의를 거쳐 위 지표를 선정하게 된 근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24> 정치 및 사회참여부문 여성사회지표 선정이유

정치 및 사회참여부문 여성사회지표	선정이유
지방의회의원 당선자 중 여성비율 지방의회위원 상임위 위원장 중 여성비율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역할은 국회에서 여성의원의 중요성과 맥을 같이한다. 지방정부의 예산 심의와 조례 재개정 등을 담당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장 주민과 가까운 거리에서 여성에 반응적인 예산확보와 법 개 제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지방직 공무원 중 여성비율	주민에게 가장 밀접한 거리에서 여성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5급 이상 관리직에게 주어진다. 관리직에 여성의 비율이 높을 때 여성을 위한 정책은 더 많이 생산될 수 있다.
시 양성평등정책 전담조직 운영	자치단체 여성정책 업무내용의 다양성은 소속 주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상의 편차를 자아내고 있으며, 관련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간의 원활한 업무연계에 장애요인도 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여성들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은 확대되고 여성관련 신규사무수행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을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여성정책 전담조직의 운영이 필요하며 전담조직의 유무에 따라 지방여성정책의 수행역량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시 정책자문위원 중 여성비율	시정에 대한 정기적인 자문회의에 참여하는 위원의 대부분이 남성임을 고려할 때, 여성의 자문회의의 위원으로 시정의 성인지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주요언론 종사자 중 여성비율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로서 지역내 여성정책과 성평등과 관련한 문화를 주도해가는 역할자로 매우 중요하다.

6) 건강 분야

각 지역단위에서 건강에 대한 양성평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 선정토록 하였다. 이 지표를 통해 주민의 건강상태와 건강 행태 뿐만아니라 인구보건의료 서비스의 요구, 보건의료 자원, 인력, 수요와 미충족 요구를 비교할 수 있다. 따라서 건강의 양성평등을 평가하고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지역단위에서의 노력을 평가하는 과정에 대한 지표로서도 활용가치 있는 지표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델파이 조사와 전문가회의를 거쳐 총 7개의 지표를 선정하게 되었다.

<표 3-25> 건강부문 잔류지표와 제외지표

하위영역	잔류지표(7개)	제외지표(25개)
건강상태	성별 건강수명 성별 개인의 건강상태평가 성별 5대 암 수진율	성별 BMI(체질량지수) 성별 빈혈 지수 성별 흡연량, 흡연인구비율 성별 음주 횟수 및 음주인구비율
생식건강	성별 피임실천율	제왕절개 분만율 장애아 출현율 자태증아 출산율 선천성기형아 출산율 산전관리횟수 모성사망비
사망 및 상병	성별 주요 만성 질환별 유병률	성별 10대 사인별 사망률 성별 암사망률(암종류별) 성별 생식관련 질환 유병률 성별 AIDS/HIV보균자수 성별 활동제한일수
보건의료이용	성별 입원율 성별 외래이용률	성별 평균재원일수(전체 및 심혈관계질환) 성별 의료서비스 만족도
보건의료자원		의료행정관리직의 직급별 여성분포 보건의료 시설 수와 병상수 지역별 산과병의원수 성별 총국민의료비대 1인당 의료비
의료보장		성별 수진율 및 평균수진건수와 건강진료일수 성별 전체 의료비 중 본인부담률 성별 의료급여적용인구 성별 1인당 평균급여액

전문가회의에서 논의된 선정이유는 아래와 같다.

<표 3-26> 건강부문 여성사회지표 선정이유

건강부문 여성사회지표	선정이유
성별연령별 기대수명	사회의 의료서비스의 성별 영향과 결과, 여성의 사회적 삶까지 반영할 수 있는 건강질로 보건지표로서 중요성과 자료획득의 가능성이 높아 선정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평가	주관적 건강평가는 개인의 건강수준을 대표하는 중요한 보건지표이며, 객관적인 건강수준보다 더 인구집단의 유병과 사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주관적 건강평가지표는 국제적 통시적 비교가 가능하다.
성별 5대암 검진 수진율	일차예방 접근성의 중요한 평가지표가 건강검진 및 암검진 수진율이 된다. 특히 국가 암관리 정책에 따라 암검진 수진의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성별 암검진 수진율은 성별 일차예방행위의 접근성의 차이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가 되며 국가 보건정책의 성별 영향평가에의 활용이 가능하다.
성별 10대 주요 만성질환별 유병률	그동안 여성 건강에 대한 관심은 주로 생식건강에 편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타 유병률이 높은 다른 만성질환들의 증가하는 유병양상이나 성별 차이에 대한 보고가 배제되어 왔다. 따라서 양성간 건강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고 개인적 사회적으로 관심을 집중해야 할 건강상태에 대한 파악을 위해서는 성별 주요 만성질환의 유병률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성별입원률	입원의료 이용은 급만성질환에 대한 적절한 의료 이용의 접근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특히 중증도 질환에 대한 성별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평가하는 좋은 지표가 된다.

7) 사회복지 분야(7개)

<표 3-27> 사회복지부문 잔류지표와 제외지표

하위영역	잔류지표(7개)	제외지표(22개)
복지전반	생활여건의 변화에 대한 인식의 성별차이	
사회보험	사회보험에 대한 인지도의 성별차이 성별 공적연금 수급자	성별건강보험 평균급여액 국민연금제도의 노후보장에 대한 인식의 성별 차이 성별 공적연금 가입자 성별 공적연금 평균 급여비 산재보험 수급자 급여비 고용보험 가입비율 실업급여 수혜율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빈곤가구주 남녀비율	의료급여 대상자 남녀비율
사회복지 서비스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여성 비율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성별 취업률	사회복지시설별 평균종사자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의 성별 분포 전 산업대미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평균임금 65세 이상 노인 중 복지시설 생활인 중 여성 비율 성별 65세 이상 생활비(용돈)마련 방법 성별 결식노인비율 아동 성별 국내입양아 수 성별 성적 학대 받은 아동 수 성별 장애인 등록률 성별 재가 장애인수 성별 직업재활시설 이용률 장애인 성별 교육수준 장애인 성별 혼인상태 장애인 성별 취업자 비율

사회복지분야에서의 여성사회지표는 전문가들에게 제시된 예비지표 가운데 복지 분야에서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지표가 무엇인지를 물어 가장 많이 나온 순으로 7 개 지표를 선정하였다.

대표지표로 선정된 지표는 ‘성별 공적연금 수급자’, ‘빈곤가구주 남녀비율’,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여성비율’,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성별 취업률’, ‘장애인 성별 취업자 비율’ 등 7 개 지표이다.

각 지표의 선정 이유는 <표 3-28>과 같다.

<표 3-28> 사회복지부문 여성사회지표 선정이유

사회복지부문 여성사회지표	선정이유
성별여건의 변화에 대한 성별인식의 차이	복지에서는 객관적 지원만큼이나 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이 중요한 요소로 파악되어야 한다. 복지 전반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요소로 파악되어야 한다. 복지전반에 대한 인식의 지역차이를 드러내기 위해 선정하였다.
성별 공적연금 수급자	공적연금은 기본적인 최저생존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성별 수급자의 차이는 최저생존권 보장의 성별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정하였다.
빈곤가구주 남녀비율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되는 빈곤가구주의 남녀비율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에 성별 관점을 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지표로 선정하였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여성 비중	저소득 취약계층 인구를 나타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를 통해 지역간 저소득 인구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 선정하였다.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여성비중	고령화에 따라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그 중에서도 여성인구 규모가 크다는 점 때문에 노인복지 부문에서도 성별차이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여성비중은 노인인구 중 빈곤 여성 인구의 비율을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지표로 선정하였다.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의 성별 취업률	노인복지의 중요성 증대와 더불어 노후생활에 필요한 소득, 취업 등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대표지표로 선정하였다.
장애인 성별 취업자 비율	장애인의 자활, 정상화,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장애인 복지가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대표지표로 선정하였다.

8) 문화 분야(5개)

<표 3-29> 문화분야 잔류지표와 제외지표

하위영역	잔류지표(5개)	제외지표(26개)
문화유산		지정문화재수중 성별 무형문화재 수의 비중
문화창작 및 생산	성별 문화예술분야 졸업생의 해당분야 취업률 문화산업종사자 중 여성비중 문화산업종사자의 성별임금격차	성별 학교교육과정에서의 문화예술교육 경험여부(15세) 성별 문화예술관련 창작활동의 참여 여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만족도
문화소비	성별 문화활동참가시간 성별 생애주기의 변화에 따른 문화욕구 변화	성별 소득수준에 따른 문화활동참가 비용 성별 예술행사관람률 성별 연휴대별 TV시청시간 성별 대중매체에서의 성적표현에 대한 의견 성별 문화시설이용률
사회문화활동		성별 지역문화시설이용률 성별 문화단체참여율 성별 문화예술기금수혜자의 성별 비중 성별 여성주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의견
문화의식		문화적 결핍감의 성별 차이 문화적 자신감의 성별 차이
여가활용조건		여가활동방법의 성별 차이 여가활동시간의 성별 차이 여가구조원별 여가활동비용지출 우선 순위 성별 시간 압박감 성별 여가활동의 어려운 점
여가활용실태		성별 해외여행 비율 성별 생활체육참여율 성별 스포츠경기 관람률 성별 인터넷사용비율 성별 사이버동호회참여율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 대전의 여성사회지표로 적합한 지표로는 ‘성별 문화예술분야 졸업생의 해당분야 취업률’, ‘문화산업종사자의 성별임금격차’, ‘성별 문화활동참가시간’, ‘문화산업종사자 중 여성비중’, ‘성별 생애주기의 변화에 따른 문화욕구 변화’가 선정되었다.

<표 3-30> 문화 및 여가생활부문 여성사회지표 선정이유

문화 및 여가생활부문 여성사회지표	선정이유
성별 문화예술분야 졸업생의 해당분야 취업률	지역의 여성 문화예술인이 사회적 진출에 있어 남성과 어느정도 격차가 존재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로 기능할 수 있다.
문화산업종사자중 여성비중	최근 부각되고 있는 문화산업계로의 입직에 있어 남성과 여성이 차이를 나타내 줄 수 있다.
문화산업종사자의 성별임금격차	최근 부각되고 있는 문화산업의 근로조건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나타내 줄 수 있다.
성별문화활동참가시간	의료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은퇴이후의 노년기가 연결되면서, 이제 사람들의 삶 중에서 일하는 시간 못지않게 여가시간이 중요하게 되어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을 보다 풍부하게 만들어주게 하는 인권의 한 차원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표로 선정하였다.
성별생애주기의 변화에 따른 문화욕구 변화	여가활동의 성별격차 등 문화향유의 성별격차를 나타내 주는 핵심적인 지표로 기능할 수 있다.

9) 폭력과 범죄 분야(8개)

<표 3-31> 폭력과 범죄분야 잔류지표와 제외지표

하위영역	잔류지표(8개)	제외지표(12개)
폭력에 대한 두려움	성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성별 연령별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	성별 연령별 강간피해에 대한 두려움
성폭력 발생과 피해	연도별 강간범죄의 발생건수 강간범죄의 신고율 직장내 성희롱 성별 경험률과 신고건수 강간범죄자의 처리결과	강간범죄 종류별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 비율 강간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성별 생애동안 유형별, 정도별 성폭력 경험률 유형별 성폭력 상담실적 강간범죄자의 재범률
가정폭력의 발생과 피해	성별 연령별 가정폭력 경험률	가정폭력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가정폭력범 가해자 조치결과
여성범죄		성별 범죄자수 및 인구10만명당 범죄발생비율 주요 범죄 여성비율 제소자 여성비율 출소자 성별 취업률
안전	성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델파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기존의 지표체계에 비해 성매매, 인신매매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이 많았으며, 통계의 종류별로 행정통계와 조사통계의 구별과 범죄발생건수와 신고건수의 차이를 구별해야 됨을 강조한 내용들이 있었다.

여성범죄에 대한 경우 보호에 대한 지표들의 필요성도 언급되었으나, 양성평등을 지표의 주요 선별기준으로 한 본 연구의 기본적인 방향에 적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표 3-32> 폭력과 범죄부문 여성사회지표 선정이유

폭력과 범죄부문 여성사회지표	선정이유
성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폭력에 대한 두려움은 삶의 질을 크게 하락하는 원인이 됨
성별 연령별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	야간에 어두운 곳이 지역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음
연도별 강간범죄의 발생건수	대표적인 성폭력인 강간범죄의 연도별 추세를 파악하여, 증감을 파악하고 감소유도 정책을 개발
직장내 성희롱 성별 경험률과 신고건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에 따라 직장내 사전 예방을 위해 필요한 내용임
강간범죄자의 처리결과	강간범죄의 재발을 막고, 장기적으로는 사전예방을 위해 필요한 내용임
성별 연령별 가정폭력 경험률	배우자 가정폭력은 가정폭력 중 가장 빈번한 형태주의 하나로 피해자의 성별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영역의 가정문제라는 인식하에 제대로 표출되지 못하는 현상임
성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지역내에 자동차증가비율만큼 도로가 증가하지 못하여 교통사고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제4절 대전여성사회지표 설정

전문가 조사와 각 지표의 측정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2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쳐 대전여성사회지표체계를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다.

〈표 3-33〉 최종 선정된 대전여성사회지표

기본영역	하위영역	지표명
인구	인구구성	성별 연령별 노인인구 구성비
		성별 연령별 생산연령인구 구성비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인구구성비
	출생	혼인상태별 인공임신 중절률(통합)
		출생성비
		출생순위별 출생성비
		성별남아선호도
		성별 이상자녀수(성별 기대자녀수)
	사망	성별 영아 사망률
	가족	태도와 행동
태도-남성도 가사육아 동등한 책임		
성별 남자 육아휴직제도 활용에 대한 태도		
성별 본인 명의 재산-주택		
성별 가족보살피기 시간사용		
성별 노후 준비 방법		
교육	교육기회	성별 연령별 평균 교육년수
		전공계열별 대학생 중 여학생 비율
		평생학습 참여자 여성비율
	교육여건 및 자원	대학교 전공계열별 여교수 비율
		고등학생의 성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교육의 결과	전공분야별 대졸 취업률의 남녀차이
		성별 고졸대비 대졸 임금격차
경제활동	경제활동기회	성별 연도별 경제활동참가율
		25-34세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대졸자의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대졸자 실업률
	취업구조	행정관리직 여성비율
	근로조건	남성임금대비 여성임금비
		성별 근로자의 일용직 비중
	소득과 소비	성별근로자의 시간제 비중
가구주 성별 소득격차		

기본 영역	하위영역	지표명
정치 및 사회 참여	정치 참여	지방의회의원 당선자 중 여성비율
		지방의회위원 상임위 위원장 중 여성비율
	행정 참여	지방직 공무원 중 여성비율
		시 양성평등정책 전담조직 운영
사회 참여	시 정책자문위원 중 여성비율	
건강	건강상태	주요언론 종사자 중 여성비율
		성별 건강수명
		성별 개인의 건강상태평가
	생식건강	성별 5대 암 수진율
	사망 및 상병	성별 피임실천율
보건의료이용	성별 주요 만성 질환별 유병률	
	성별 입원율(의료기관 종별 입원율/전체 및 심혈관계 질환)	
사회 복지	복지전반	성별 외래이용률(의료기관 종별 외래 이용률)
		생활여건의 변화에 대한 인식의 성별차이
	사회보험	사회보험에 대한 인지도의 성별차이
		성별 공적연금 수급자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빈곤가구주 남녀비율	
사회복지서비스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여성 비율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성별 취업률	
문화	문화창작 및 생산	성별 문화예술분야 졸업생의 해당분야 취업률
		문화산업종사자중 여성비중
		문화산업종사자의 성별임금격차
	문화소비	성별 문화활동참가시간
성별 생애주기의 변화에 따른 문화욕구 변화		
폭력과 범죄	폭력에 대한 두려움	성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성별 연령별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
	성폭력 발생과 피해	연도별 강간범죄의 발생건수
		강간범죄의 신고율
		직장내 성희롱 성별 경험률과 신고건수
	강간범죄자의 처리결과	
	가정폭력의 발생과 피해	성별 연령별 가정폭력 경험률
안전	성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최종지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표가 가져야 할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되었다.

첫째, 대전여성의 지위와 양성평등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가능하면 측정·조사하기가 용이하여야 한다.

셋째, 가능하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객관적 지표와 함께 때에 따라서는 주관적 지표도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하에 최초 265개에서 전문가 설문결과 및 자문회의를 거쳐 64개로 축소 조정되어 지표가 설정되었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같은 내용의 지표라 하더라도 의미 파악이 좀더 쉬운 방향으로 용어를 수정하였다. 하위영역 또한 종전의 43개영역에서 28개의 영역으로 축소 조정되었다.

확정된 세부지표의 상세한 내용과 산식, 측정 및 활용방법 등은 다음 장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제 4 장

대전여성사회지표의 측정과 활용방안

제1절 지표의 측정

제2절 지표 활용방안

제4장 대전여성사회지표의 측정과 활용방안

제1절 지표의 측정

1. 인구

1) 성별 연령별 노인인구 구성비

- 정의 : 65세 이상 인구의 성별 연령별 분포
-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추계인구』
- 시산표

(단위 : %)

지역 및 연령	2000			2005		
	여자	남자	성비	여자	남자	성비
전체						
65-69세						
...						
80-84세						
85세+						
전국						

2) 성별 연령별 생산연령인구 구성비

- 정의 :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성별 연령층별(15-24세, 25-44세, 45-64세) 분포
-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추계인구』
- 시산표

(단위 : %)

지역 및 연령	2000			2005		
	여자	남자	성비	여자	남자	성비
전체						
15-24세						
25-44세						
45-65세						
전국						

3)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인구구성비

- 정의 : 15세 이상 인구의 성별 혼인상태별 인구구성비
-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시산표

(단위 : %)

지역 및 연도	계		미혼		유배우		이혼		사별		미상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전체												
1980년												
1990년												
2000년												
전국												

4) 혼인상태별 인공임신 중절률(통합)

- 정의 : 혼인상태별 연령계층별 가임여성(15-49세) 100명 당 인공임신중절건수
- 산식 : (연령층별인공임신중절건수/연령층별여자인구) × 100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보건복지가족부 『전국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조사』, 미혼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하여는 아직 적절한 자료가 없음
- 시산표

(단위 : %)

지역 및 연령	계	15-19세	20-24세	40-44세	45-49세
전체						
미혼						
기혼						
전국						

5) 출생성비

- 정의 : 여아 출생아 100명 당 남아 출생아의 비
- 산식 : (남아출생아수/여아출생아수) × 100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
- 시산표

(단위 : %)

지역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4년	2007년
전국						
서울특별시						
...						
제주도						

6) 출생순위별 출생성비

- 정의 : 자녀의 출생 순위별 여아 출생아 100명 당 남아 출생아의 비
- 산식 : (특정 출생순위 남아출생아수/특정 출생순위 여아출생아수) × 100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
- 시산표

(단위 : %)

지역	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넷째 자녀이상
전체					
1990년					
2000년					
2004년					
2007년					
전국					

7) 성별 남아선호도

- 정의 : 다음의 남아선호에 대한 성별 태도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표를 작성. “아들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들을 낳기 위해 태아성감별 후 여아를 낙태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딸만 둘인 상황에서 아들을 꼭 낳으려고 출산을 시도하는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찬성한다 ② 찬성한다 ③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④ 반대한다 ⑤ 절대 반대한다
- 자료 : 본 설문조사
- 시산표

(단위 : %)

지역 및 성별	① 매우 찬성한다	② 찬성한다	③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④ 반대한다	⑤ 절대 반대한다
전체					
여성					
남성					
전국					

8) 성별 이상자녀수(성별 기대자녀수)

- 정의 : 기대하는 자녀의 수, “귀하는 몇 명의 자녀를 갖고 싶으십니까?”

① 딸 ___명, 아들 ___명 ② 딸, 아들 구별 없이 _____명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 시산표

(단위 : 명)

지역 및 성별	①		②
	딸	아들	딸, 아들 구별없이
전국 여성 남성			

9) 성별 영아 사망률

- 정의 : 1세 미만 영아의 성별 사망률

- 산식 : [연간 영아(1세미만) 사망아수/당해년 출생아수] × 1,000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영아·모성사망조사』, 통계청 『추계인구』, 『인구동태통계』

- 시산표

(단위 : 천분율)

지역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전체 서울특별시 ... 제주도				

2. 가족

1) 성별 남자 육아휴직제도 활용에 대한 태도

- 정의 : ‘남자도 육아휴직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선택할 수 없음.

- 자료 : 여성부 2003 『전국가족조사』

- 시산표

(단위 : %)

지역 및 성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선택할 수 없음
전체					
여성					
남성					
전국					

2) 성별 남자 육아휴직제도 활용에 대한 태도

- 정의 : 공동명의를 포함하여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의 유무 여부에 대한 성별 분포. 가족의 중요한 자산에 대한 소유여부를 파악함으로써 가족내 위치, 권한을 볼 수 있음. 설문 : “주택(전세포함)이 귀하의 명의(공동명의 포함)로 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자료 : 여성부 2003 『전국가족조사』

- 시산표

(단위 : %)

지역 및 성별	① 예	② 아니오
전국		
여성		
남성		
서울특별시		
...		
제주도		

3) 성별 맞벌이별 가족 보살피기 시간사용

- 정의 : 미취학아이 보살피기,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배우자 보살피기,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그 외 가족 보살피기에 사용한 시간을 성별 맞벌이로 제시

- 자료 : 통계청 1999, 2005 『생활시간조사』

- 시산표

(단위 : 분)

지역	맞벌이 가구				비맞벌이 가구			
	여자		남자		여자		남자	
	2005	1999	2005	1999	2005	1999	2005	1999
전국								
서울특별시								
...								
제주도								

4) 성별 노후준비 방법

- 정의 : “본인은 노후를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 그 중 가장 주된 것과 부수적인 것을 ()안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 자료 : 통계청 2007 『사회통계조사보고서』

- 시산표

1. 준비하고(되어)있다 가장 주된 것 () 부수적인 것 ()

- ①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② 사적연금(은행, 보험회사를 통한 개인연금) ③ 퇴직금 ④ 예금·적금 ⑤ 부동산운용 ⑥ 주식·채권 ⑦ 계 ⑧ 기타

(단위 : %)

지역 및 성별	①공적 연금	②사적 연금	③퇴직금	④예금 ·적금	⑤부동산 운용	⑥주식· 채권	⑦계	⑧기타
전국								
여성								
남성								

2. 준비하고(되어)있지 않다

- ①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 ② 앞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③ 준비할 능력이 없다

(단위 : %)

지역 및 성별	①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	②앞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③준비할 능력이 없다
전국			
여성			
남성			

3. 교육

1) 성별 연령별 평균 교육년수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의 : 6세 이상 인구 중에서 재학중인 학생수를 제외한 전국민에 대한 평균교육년수로 국민의 교육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임. 각 학교급별 중퇴자의 경우는 국교중퇴 3년, 중학중퇴 7.5년, 고교중퇴 10.5년, 초급 및 전문대중퇴 13년, 대학이상 중퇴는 14년으로 계산함.
- 산식 : 국민의 총교육년수/((만6세이상 인구)-(학생수))
-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시산표

	평균	6~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연도별/계						
여성						
남성						

2) 전공계열별 대학생 중 여학생 비율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산식 : $\text{성별 학생수} / \text{전체 학생수} \times 100$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 시산표

	재직 학생수	인문계	사회계	공학계	자연계	의학계	예체능계	교육계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여성								
남성								

3) 평생학습 참여자 여성비율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의 : 성인이 1년 동안 참여한 총교육(직장연수, 학원수강, 교양강좌, 직업훈련, TV 및 라디오 강좌청취, 기타 등)의 참여자 비율
- 산식 : $\{\text{평생학습참여자} / \text{15세이상 가구원(재학생 및 재수생 제외)}\} \times 100$

-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 시산표

	평생학습 참여자비율	직장연수	학원수강	교양강좌	직업훈련	TV, 라디오 강좌청취	기타
연도/계							
여성							
남성							

4) 대학교 전공계열별 여교수 비율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 시산표

	전체	인문계	사회계	공학계	자연계	의학계	예체능계	교육계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여교수								
남교수								

5) 고등학생의 성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의 : 학생 1인당 지출되는 사교육비를 조사함
- 산식 : 한달 총 사교육비/전체 학생수
-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인적자원지표』
- 시산표

연도	고등학생 사교육비		
	계	여학생	남학생
연도별			

6) 전공분야별 대졸 취업률의 남녀차이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의 : 취업대상자 중에서 대학을 졸업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취업대상자는 대학을 졸업한 자 중 대학원 진학자 수와 군입대자를 제외한 사람을 의미.
- 산식 : {취업자수/ (대학졸업자수-진학자-입대자-기타)} × 100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인적자원지표』
- 시산표

	총 취업률	인문계	사회계	공학계	자연계	의학계	예체능계	교육계
연도/계								
여성								
남성								

7) 성별 고졸대비 대졸 임금격차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의 : 고졸과 대졸의 평균임금을 비교 조사함
- 산식 : 월평균임금총액 = 월급여액+연간특별급여액/12
-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 시산표

연도	고졸		초대졸		대졸이상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연도별						

4. 경제활동

1) 성별 연도별 경제활동참가율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의 : 만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경제활동인구(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만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주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말한다. 취업자(Employed person): 조사대상 주간에 소득, 이익, 봉급, 임금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 한 자,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가구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데 도와준 가족 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에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를 말한다. 실업자(Unemployed person): 실업자는 조사기간 중 일을 하지 못한 사람 중 취업을 위하여 구직활동을 했으며,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 산식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15세 이상 인구 × 100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시산표

(단위 : %)

	여성	남성
1990		
1991		
...		
2005		

2) 25-34세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의 : 5세 연령집단별로 경제활동참가율을 계산함
- 산식 : 25~34세 경제활동참가율(%) = 25~34세 경제활동인구/25~34세 인구 × 100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시산표

(단위 : %)

	여성	남성
25-29세		
30-34세		

3) 성별 대졸자의 경제활동참가율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의 : 대졸인구 중 경제활동참가자 비율을 말함
- 산식 : 대졸 경제활동참가율(%) = 15세 이상 대졸 취업자/15세 이상 대졸 인구 × 100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시산표

(단위 : %)

	여성	남성
1990		
1991		
...		
2005		

4) 성별 대졸자 실업률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의 : 대졸자 중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 산식 : 대졸 실업률(%) = 대졸 실업자/대졸 경제활동인구 × 100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시산표

(단위 : %)

	여성	남성
1990		
...		
2005		

5) 행정관리직 여성비율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의 : 행정관리직 취업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 산식 : 행정관리직 여성비율(%) = 행정관리직 여성 취업자 수/행정관리직 전체 종사자 수 × 100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시산표

(단위 : %)

	여성	남성
행정관리직		

6) 남성임금대비 여성임금비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의 : 남성근로자의 월급여를 100으로 했을 때 여성근로자의 월급여 수준
- 산식 : 여성임금비 = 여성 근로자 평균 월급여액/남성 근로자 평균 월급여액 × 100
-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
- 시산표

(단위 : %)

	임금비
1990	
...	
2005	

7) 성별 근로자의 일용직 비중(종사상의 지위별 취업자 구성비)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의 : 종사상의 지위(Status of workers)란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등과 같이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신분 내지 지위상태를 말함
 - 자영업주

- 자영자 :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 고용주 : 유급종업원을 한 사람 이상 두고 기업을 경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자
- 무급가족종사자 : 자기에게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 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데 18시간 이상 도와준 자

■ 임금근로자

- 상용근로자 : 임금,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며 고용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정규직원
 - 임시근로자 : 임금근로자 중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 일용근로자 : 임금근로자 중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 산식 : 고용주 여성비율 = 여성 취업자 중 고용주 수/취업자 중 고용주 수 × 100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시산표

(단위 : %)

	여성	남성
전체		
비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8) 성별 근로자의 시간제 비중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의 : 성별 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 시간제 근로자는 주당 36시간 미만으로 임의 설정

- 산식 : 여성의 시간제근로자 비율 = 시간제 여성근로자 수/여성근로자 수 × 100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시산표

(단위 : %)

	여성	남성
전체	100.0	100.0
전일제		
시간제		

9) 가구주 성별 소득격차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의 : 남성가구주를 기준으로 여성가구주의 월평균 수입과 소득의 차이
- 산식 : 소득격차 = 여성가구주 월평균 수입/남성가구주 월평균 수입 × 100
- 자료 : 통계청, 『가계조사』
- 시산표

(단위 : %)

	여성가구주	남성가구주	비율
수입			
소득			

5. 정치 및 사회참여

1) 지방의회의원 당선자 중 여성비율

- 지표작성주기 : 4년(지방의회 선거)
- 정의 : 지방의회 선거에 당선된 사람 중에서 여성의원 수를 의미
- 산식 : 여성 지역 당선자 수/전체 지역 당선자 수 × 100
여성 비례 당선자 수/전체 비례 당선자 수 × 100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

- 시산표

	지역구			비례대표		
	전체 수	여성 수	비율	전체 수	여성 수	비율
지방의원						

2) 지방의회의원 상임위 위원장 중 여성비율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의 : 지방의회에 있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중 상임위원회만을 대상으로 그리고 시의회와 각 자치구별 상임위원회 위원장 중 여성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를 분석함으로써 위원회 여성위원장 비율을 파악할 수 있음
- 산식 : $\text{여성 위원장 수} / \text{전체 상임위원회 위원장 수} \times 100$
- 자료 : 신규
- 시산표

구분	전체 수	여성 위원장 수	비율
지방의회 상임위 위원장			

3) 지방직 공무원 중 여성비율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의 : 전체 지방직 공무원 중 여성 공무원 비율을 파악
- 산식 : $\text{여성 지방직 공무원 수} / \text{전체 지방직 공무원 수} \times 100$
- 자료 : 신규
- 시산표

구분	전체 수	여성 공무원 수	비율
지방직 공무원			

5) 시 정책자문위원 중 여성비율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의 : 시 정책자문위원 중 여성위원 수를 파악
- 산식 : 여성 정책자문위원 수/전체 정책자문위원 수 × 100
- 자료 : 신규
- 시산표

구분	전체 수	여성 위원 수	비율
시 정책자문위원			

6) 주요언론 종사자 중 여성비율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의 : 주요 신문사 및 방송사에서 근무하는 PD와 기자 중 여성 비율을 측정
- 산식 : 여성 PD와 기자 수/전체 PD와 기자 수 × 100
- 시산표

구분	전체 수	여성 위원 수	비율
합계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중도일보			
대전일보			
...			
KBS			
MBC			
TJB			
...			

6. 건강

1) 성별 기대수명

- 지표작성주기 : 5년
- 정의 : 어느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그 후 몇 년 동안이나 생존할 수 있는가를 평균적으로 계산한 연수
- 산식 : 여성 기대수명/전체 인구의 기대수명 × 100
- 자료 : 통계청, 생명표
- 시산표

성별 출생시 기대수명	1981	1991	1999	2001	2010	2020	2030
전체							
여성							
남성							
차이(여성-남성)							

2) 성별 개인의 건강상태평가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의 : 응답자가 자신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 건강상태를 주관적으로 응답하도록 “귀하는 연령에 비하여 어느 정도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하여 5점 척도로 대답하도록 한다. 주관적 건강평가는 개인의 건강수준을 대표하는 중요한 보건지표이며 객관적인 건강수준보다 더 인구 집단의 유병과 사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주관적 건강평가지표는 국제적 통시적 비교가 가능하다.
- 산식 : 성별 인구전체 중 건강하다고 응답한 자의 비율(%)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
- 시산표

자가 건강상태 평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전체								
여성								
남성								

3) 성별 5대 암 수진율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의 : 성별 전체 인구 중에서 대장암, 자궁암, 유방암, 간암, 위암 검진을 받은 사람의 비율로 질환 예방을 포함한 일차의료에서의 성별 접근성과 수진율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 산식 : $\text{지난 2년간 암 검진 수진자 중 여성의 수} / \text{성별 전체 인구수} \times 100$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
- 시산표

암 검진 수진율	자궁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위암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5) 성별 주요 만성 질환별 유병률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의 : 조사대상기간 중 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자의 비율
- 산식 : $\text{1년 또는 2주 이내의 유병자 수} / \text{조사 인구} \times 100$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
- 시산표(연령대별)

순위	2000		2003		2006		2009		2012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1										
2										
...										
9										
10										

6) 성별 입원률(의료기관 종별 입원률/전체 및 심혈관계 질환)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의 : 전체 인구 중 연간 입원 경험자 수의 비율
- 산식 : 연간 입원건수/전체 조사대상 인구 × 100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통계연보』
- 시산표

연간 입원률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전체								
여성								
남성								

7) 성별 외래이용률(의료기관 종별 외래 이용률)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의 : 전체 인구 2주간 외래이용 경험자 수의 비율
- 산식 : 2주간 외래의료 이용건수/전체 조사대상 인구 × 100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통계연보』
- 시산표

외래이용률	2005		2006		2007		2008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7. 사회복지

1) 생활 여건의 변화에 대한 인식의 성별차이

- 지표작성주기 : 4년
- 정의 : 국민들의 생활여건 변화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 결과임. 전반적인 생활 여건변화와 보건의료서비스, 사회보장제도, 문화여가생활 등으로 세분화하여 남·여별 인식의 차이를 측정하고자 함. 질문은 5년 전과 대비하여 귀하의 생활여건은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보십니까?로 그리고 응답문항은 많이 좋아짐, 약간 좋아짐, 변화 없음, 약간 나빠짐, 많이 나빠짐, 모르겠음으로 함.
- 산식 : 많이 좋아짐과 약간 좋아짐을 묶어서 좋아짐으로, 약간 나빠짐과 많이 나빠짐을 묶어서 나빠짐으로 그리고 변화없음으로 비율을 산출함. 좋아짐(많이 좋아짐 + 약간 좋아짐) / 응답자수 × 100, 변화없음 = 변화없음 / 응답자수 × 100, 나빠짐 = (많이 나빠짐 + 약간 나빠짐) / 응답자수 × 100
-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 시산표

(단위 : %)

구분	전반적인 생활여건			보건의료 서비스			사회보장 제도			문화여가 생활		
	좋아짐	변화 없음	나빠짐	좋아짐	변화 없음	나빠짐	좋아짐	변화 없음	나빠짐	좋아짐	변화 없음	나빠짐
2006												
전국												
여성												
남성												
2002												
전국												
여성												
남성												

2) 사회보험에 대한 인지도의 성별차이

- 지표작성주기 : 4년
- 정의 : 국민들이 현재 지불하고 있는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대한 부담정도를 성별로 측정함. 질문은 매월 사회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

지 여부를 묻고, 지불하고 있는 응답자에게 부담 정도(매우 부담이 된다, 약간 부담이 된다, 보통이다, 별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를 물어 성별로 측정함.

- 산식 : 매우 부담이 된다, 약간 부담이 된다, 보통이다, 별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별로 그 비율을 구함.

예) 매우 부담이 된다/응답자 수 × 100

-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 시산표

(단위 : %)

구분	지불한다	부담정도					지불안함
		부담 많음	약간 부담	보통이다	거의 없음	전혀 없음	
2006							
전국							
여성							
남성							
2002							
전국							
여성							
남성							

3) 성별 공적연금 수급자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의 : 공적연금 수급자가 공적연금가입자에 비하여 어느 정도 되는가를 살펴봄. 이는 비율이 높을수록 공적연금 가입자의 부담이 높아짐을 의미하게 됨. 또한 이를 성별로 구분하여 측정하여 성별 차이분석 자료로 활용토록 함.
- 산식 : 공적연금 수급자 수/공적연금 가입자 수 × 100
-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통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
- 시산표

(단위 : 명, %)

구분	국민연금 수급자	가입자 대비(%)	공무원연금 수급자	가입자 대비(%)	사립/교직원 연금수혜자	가입자 대비(%)
2007						
전체						
여성						
남성						
2006						

4)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의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토록 도입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는 대상자의 비율을 측정 함.
- 산식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총인구 × 100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통계연보』
- 시산표

(단위 : 명, %)

구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총인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2007			
전체			
여성			
남성			

5) 빈곤가구주 남녀비율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의 : 전체 빈곤가구주에 대한 남녀별 비율을 파악함.
- 산식 : 여성 빈곤 가구주수/전체 빈곤 가구주수 × 100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통계연보』
- 시산표

(단위 : %)

구분	전체	여자빈곤가구주	남자빈곤가구주
2007	100.0		
2006	100.0		
...	100.0		

6)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여성 비율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의 :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비율을 파악함.
- 산식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수/65세 이상 인구 수 × 100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통계연보』
- 시산표

(단위 : 명, %)

구분	65세 이상 총 노인인구(A)	65세 이상 기초생활 보장수급자(B)	비율 (B/A)
2007			
전체			
여성			
남성			
2006			
...			

7)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성별 취업률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의 :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 능력 및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취업상태를 파악함.
- 산식 : 65세 이상 취업 노인 수/65세 이상 총 노인 수 × 100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 시산표

(단위 : 명, %)

구분	65세 이상 총 노인인구(A)	65세 취업 노인 수(B)	비율(B/A)
2007			
전체			
여성			
남성			
2006			
...			

8. 문화 및 여가

1) 성별 문화예술분야 졸업생의 해당분야 취업률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의 : 해당년도 예체능계 전공 대졸자 중 취업자 수(진학, 입대포함)의 성별 비중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 시산표

	졸업자수	취업자수	비중	졸업자수	여성취업자	비중
2000						
...						
2007						

2) 문화예술산업 종사자 중 여성 비중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의 : 문화예술산업이라 함은 문화상품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으로 해당 산업종사자 중 여성종사자의 비율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시산표

	졸업자수	취업자수	비중	졸업자수	여성취업자	비중
2000						
...						
2007						

3) 성별 문화예술분야 졸업생의 해당분야 취업률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의 : 해당년도 예체능계 전공 대졸자 중 취업자 수(진학, 입대포함)의 성별 비중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 시산표

	졸업자수	취업자수	비중	졸업자수	여성취업자	비중
2000						
...						
2007						

4) 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성별 임금격차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의 : 남성근로자의 월급여를 100으로 했을 때 여성근로자의 월급여 수준
- 산식 : 여성임금비 = 여성 근로자 평균 월급여액/남성 근로자 평균 월급여액 × 100
- 자료 :
- 시산표

	임금비

6) 성별 생애주기 변화에 따른 문화욕구 변화

- 정의 : 생애주기별로 문화 활동을 하고 싶은 욕구의 변화 정도
- 산식 : 전에 비해 더 하고 싶어졌다 에 1점, 별로 다를 바 없다 에 2점, 전에 비해 덜하고 싶어졌다 에 -1점이라고 점수를 부여한 뒤 생애주기별 여성응답자의 문화 활동을 하고 싶은 욕구의 평균점수/생애주기별 남성의 문화 활동을 하고 싶은 욕구의 평균 점수 × 100
- 자료 : 한국여성정책개발원, 『여성문화향수실태조사』
- 시산표

	전체	남성의 평균점수	여성의 평균점수	남성대비 여성의 문화육구의 평균점수 비율
결혼이전				
결혼이후				
첫 출산이후				
막내아이 초등학교 입학이후				
은퇴이후				
전체평균				

9. 폭력 및 범죄

1) 성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의 : 주요 범죄피해에 대하여 예상되는 두려움의 정도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임(빈도가 많지 않은 ‘살인’은 제외함). 응답은 “느낀다, 보통이다, 못 느낀다” 등으로 나누어 조사함. 느낀다에 응답하는 경우 “강도(Robbery), 절도(Theft), 주거침입절도(Burglary), 강제추행(Sexually motivated violence), 폭행·상해(Bodily harm), 기타(Others)” 등에 대하여 가장 크게 두려움을 느끼는 범죄가 무엇인지를 질문함
- 산식 : 여성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전국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 100
-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 시산표

	느끼지 못함	보통	느낌				
			강도	절도, 주거침입	폭행, 상해	강제추행	기타
전국							
여성							
남성							

2) 성별 연령별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의 : ‘살고 있는 집으로부터 1km 또는 1mile 안에 있는 지역에서 야간 보행 시에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 을 두려운 곳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음으로써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직접적,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설계된 지표임. 응답은 “두렵다(있다), 두렵지 않다(없다)” 등으로 나누어 조사함
-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 시산표

연령별	성별	두렵지 않음	두려움
전국	여성		
	남성		
15-19세	여성		
	남성		
...			
50-59세	여성		
	남성		
60세이상	여성		
	남성		

3) 연도별 강간범죄의 발생건수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의 : 강력범죄 중 강간범죄의 총 발생건수를 의미
- 자료원 : 대검찰청, 『범죄분석』
- 시산표

연도	강간범죄 발생건수
1986	
1987	
...	
2006	
2007	

4) 강간범죄의 신고율

- 지표작성주기 : 3년
- 정의 : 강간피해자 중 신고한 사람의 비율

- 산식 : 강간범죄 신고건수/강간건수 × 100
- 자료원 :
- 시산표

	강간범죄 경험	강간범죄 신고	강간범죄 신고율
계			
여성			
남성			

5) 직장 내 성희롱 성별 경험률과 신고건수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의 : 지난 5년간 직장일(혹은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중 성희롱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
- 산식 : 성별 성희롱 경험자 수/성별 직장일 경험이 있는 사람 × 100
- 자료원 :
- 시산표

	직장 내 성희롱 경험			직장 내 성희롱 경험률(A/C)	신고건수(D)	신고율(D/A)
	계(C)	있다(A)	없다(B)			
여성						
남성						

6) 강간범죄자의 처리결과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의 : 강력범죄 중 강간범죄의 범죄자 처분결과를 파악하는 지표
- 자료원 : 대검찰청, 『범죄분석』
- 시산표

(단위 : %)

연도별	건수	계	기소					불기소								
			소계	구공판		구약식	소년보호송치	가정보호송치	소계	기소유예	기소중지	참고종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공소모류
				구속	불구속											

7) 성별 연령별 가정폭력 경험률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정의 : 범죄로 신고되지는 않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배우자에게 가정폭력을 당하는 비율
- 자료 : 여성부, 『전국가족폭력실태조사』
- 시산표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부인 경험률				
남편 경험률				

8) 성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 지표작성주기 : 매년
-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 시산표

	자동차 사망자 수	철도 사망자 수	지하철 사망자 수	선박 사망자 수	항공기 사망자 수
1990					
1991					
...					
2006					
2007					

제2절 지표 활용방안

1. 기본방향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의 양성평등 도시건설의 실현이 매년 얼마나 달성하였는가를 측정하고 향후 양성평등관련 정책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자 수행하였다. 이는 단순히 양성평등 실천 수준이나 정도를 측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전시의 시정전반 및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정책활동들이 성통합적 관점과 양성평등 제고라는 측면에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관리하는 지침이다. 따라서 정책에 대한 성분석 및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정책 평가 척도로서 활용되고 있는 기존의 평가지표와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대전여성사회지표는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지역사회의 양성간 사회적 상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나타냄으로써 여성의 삶의 질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대전자치행정의 나아갈 방향과 그에 부합되는 미래지향적 발전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대전시가 추구하는 모든 시민이 성에 구애받지 않고 동등하고 형평한 대우와 삶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침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부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대전여성사회지표가 단순히 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하거나 대전시가 추진하였거나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과 업무들을 성인지적 성분석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한편 이 지표를 활용하여 양성평등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의 개발과 실질적인 자치행정의 실천적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촉진제로서의 기능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여성사회지표가 각 공무원의 행정 및 정책 활동에 투영되어 실천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으로 관심이 모아진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본 지표의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필수적인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활용지표의 지침은 이러한 전략적 방향성을 가지고 논의될 것이다. 우선 활용지침의 기본전략은 다음과 같다.

① 모든 정책과 업무의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이고 자율적으로 양성평등 제고라는 인식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점검체계를 구축한다.

② 각 단계별 점검체계의 구체적인 점검사항은 성인지적 관점과 성분석의 관점에서 정책과 업무를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여성사회지표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점검내용(지표)을 예시하여 체크하도록 한다.

③ 관련공무원의 양성평등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기평가방식을 적용하고, 그 평가결과가 최종적인 단계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공무원이 스스로 관장하는 정책이나 업무에 대한 자기평가는 단순히 평가이행이나 평가결과의 산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가과정의 이행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책이나 업무에 관련된 양성평등에 대하여 숙고하게 됨으로써 자기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④ 정책과 업무의 프로세스별 자체평가 과정을 거치면서 당해 사업의 종료 및 회계연도의 종료 시점에서 관련 정책과 업무에 대한 종합점검표를 작성케 하여 자체적인 종합평가 기회를 제공코자 한다. 이 형식에 맞추어 기술토록 함으로써 최종적이고 종합적인 자기평가결과가 살출될 것이다. 이 결과는 제3의 평가주체가 정책이나 업무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⑤ 행정실무자들은 각 측정차원에 대한 결과뿐만 아니라 개별 지표들의 측정 결과를 정책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 한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정한 후 각 정책 및 업무에 대한 점검 및 자체평가표를 활용하여 단기적인 측면과 중기적인 측면에 대한 반영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구체적인 평가항목과 각 항목별 가중치에 대한 선택은 피 평가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채택된 점검 및 평가항목이라 할지라도 매년 시행과정을 거치면서 수정 보완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대전여성사회지표는 단순히 현황의 측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방향제시와 협력적 노력을 도출하기 위한 촉진기제로서의 기능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2. 정책 환류

본 연구에서는 여성사회지표의 영역을 9개의 영역으로 분류하였는데, 이 분류는 여성의 삶에 있어 남성과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측면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각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수치를 비교하여 그 정도가 높고 낮은지를 비교·평가 할 수 있다. 그 결과는 어떤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하는지, 성별영향평가를 어떠한 곳에 집중하여야 하는지와 같은 정보를 산출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여성사회지표의 분류를 개인의 삶 영역 차원이 아니고 지역사회 차원으로 분류하는 경우는 시의 정책과 연계시키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다. 9개 영역은 곧 시의 행정부서 단위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각 부문별 분석·평가 결과 자체가 시의 각 부서별 성인지 정책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아래에는 정책과 지표와의 관련성을 도식화한 예로, 여성사회지표를 활용하여 측정결과를 시정에 환류하는데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다.

① 인구부문

정책적 관심	↔	관련 통계 및 기본지표
저출산화의 급속한 진행	↔	성별 이상자녀수 성별 영아 사망률
노령인구의 증가와 부양비 증가		성별 연령별 노인인구 구성비 성별 연령별 생산연령인구 구성비
변함없는 남아선호사상		출생성비 성별 남아선호도 혼인상태별 인공임신 중절률 출산순위별 출생성비
인구규모 및 인구가동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인구구성비

② 가족부문

정책적 관심	↔	관련 통계 및 기본지표
각종 제도 개선 및 다양한 가족형태 출현	↔	성별 본인 명의 재산-주택 성별 노후준비 방법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변화		태도-여성의 가족생계 책임
이혼증가 및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성별 남자 육아휴직제도 활용에 대한 태도
가사노동가치평가 문제		태도- 남성도 가사육아 동등한 책임

③ 교육부문

정책적 관심
고등교육기관 여학생 비율
국·공립대학교 여교수 채용 목표제
여성의 평생학습 참여
여성교육정도 분포 및 평생교육년수
교육정도별 여성의 취업



관련 통계 및 기본지표
전공계열별 대학생 중 여학생 비율
대학교 전공계열별 여교수 비율
평생학습 참여자 여성비율
성별 연령별 평균 교육년수
전공분야별 대졸 취업률의 남녀 차이

④ 경제활동 부문

정책적 관심
여성의 경제활동현황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 확립
여성기업가 및 여성창업현황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조기정착
비정규직 여성



관련 통계 및 기본지표
성별 연도별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대졸자의 경제활동참가율
성별대졸자 실업률
남성임금대비 여성임금비
행정관리직 여성비율
가구주 성별 소득격차
성별근로자의 시간제 비중

⑤ 정치 및 사회참여 부문

정책적 관심
위원회 여성참여 제고
관리직 여성공무원임용 확대
여성의 정치진출
여성의 자원봉사 활동지원
여성단체



관련 통계 및 기본지표
시 정책자문위원 중 여성비율
주요 언론 종사자 중 여성비율
지방직 공무원 중 여성비율
지방의회의원당선자 중 여성비율
지방의회의원 상임위 위원장 중 여성비율
여성의 자원봉사 참여율
여성단체 및 회원현황

⑥ 보건부문

정책적 관심
생존년수
사망정도
상병평가
가족계획 및 인공임신중절



관련 통계 및 기본지표
성별 건강수명
연령계층별 사망률
성별 개인의 건강상태 평가
성별 주요 만성질환병 유병률
성별 5대암 수진율
성별 외래이용률
성별 입원률
성별 피임실천율

⑦ 사회복지 부문

정책적 관심
국민연금의 여성가입자 및 수급자
빈곤여성
사회(여성)복지서비스



관련 통계 및 기본지표
사회보험에 대한 인지도의 성별차이 성별 공적연금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빈곤가구주 남녀비율
생활여건 변화에 대한 인식의 성별차이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성별 취업율

⑧ 문화 및 여가생활부문

정책적 관심
여가시간 및 만족도
문화생산에의 기여
여성의 문화부문 진출



관련 통계 및 기본지표
성별 문화활동참가시간 성별 생애주기의 변화에 따른 문화욕구 변화
문화산업종사자중 여성비중
성별 문화예술분야 졸업생의 해당분야 취업률 문화산업종사자의 성별 임금격차

⑨ 범죄 및 폭력 부문

정책적 관심
성매매 방지대책의 실효성 제고
가정폭력, 성폭력근절을 위한 대책
성희롱 예방 및 구제강화
범죄자 현황
안전에 대한 의식



관련 통계 및 기본지표
연도별 강간범죄의 발생건수 강간범죄의 신고율
성별 연령별 가정폭력 경험률
직장내 성희롱 성별 경험률과 신고건수 강간범죄자의 처리결과
성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성별 연령별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

3. 지역별 현황 분석 및 평가

대전은 5개 구와 여러 행정동이 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문화,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자치구간 또는 동간의 차이가 분석되어야 한다. 대전은 원도심과 신도심의 생활여건 및 문화향유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 부문 영역 또는 개별 지표 별로 자치구 단위의 여성지위가 얼마나 다른지 분석 평가함으로써 자치구에 대한 지원분야 및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지표의 특성에 따라

이러한 개념을 좀더 세밀하게 적용한다면 동 단위의 분석·평가까지도 가능하다.

4. 연령별 분석

양성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연령별로 각 지표들에 부여하는 가중치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20-30대의 젊은 세대와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9개 영역에 대해 서로 다른 비중을 둘 것으로 예측되며, 동일 영역내에서도 개별지표간에 서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할 것이다. 따라서 지표의 측정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제대로 분석하려면 표본 구성이나 원자료의 연령별 분석이 가능하도록 측정과 평가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5. 계층별 분석

계층별 분석은 직업형태별, 교육수준별, 주거 형태별 분석 등을 포함하여 장애인 또는 노약자 등과 같이 고유한 특성을 가지는 집단이나 계층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계층별 여성의 지위나 양성평등 제고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이와 관련된 개별지표를 중점관리지표로 설정함으로써 가능하다.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이 연구에서 대전여성사회지표 개발은 총 9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각 부문별로 타당성과 적정성 검토를 통하여 9개의 기본영역과 28개의 하위영역, 64개의 지표를 개발하였다. 또한 각 개별지표별로 지표의 정의와 산식, 자료원, 시산표를 작성하여 지표 구성의 이해를 도와 향후 구체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각 부문별로 개발된 지표를 중심으로 지표의 특성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부문의 지표는 다른 부문의 지표의 객관적 조건을 형성하는 기초적 성격이 강하다. 이에 따라 다른 부문보다 명시적으로 양성평등을 보여주는 지표의 수가 적지만, 여성의 지위와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구현상 관련 지표는 여성 지위지표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가족부문의 지표는 전통적으로 가구단위의 조사를 통해 가구주 위주로 생산되어 가구나 가족 내 여성의 지위에 대한 통계가 미약한 실정이었다. 가족내 여성의 상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가 계기가 되었다. 가족 부문의 양성평등 대표지표로서는 가족내 여성의 지위와 관련된 지표와 여성의 가사노동과 경제활동의 이중부담에 관련된 지표로 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지표내용을 보면 성별 본인 명의 재산-주택, 성별 양성평등 가치관, 성별 맞벌이별 가정 관련 시간사용, 성별 남자의 육아휴직제도 활용에 대한 태도, 성별 노후 준비 방법이다.

교육부문의 통계는 국가의 의무교육과 공교육의 강조로 인해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으며, 유엔개발프로그램의 남녀 평등지수 등 국제비교를 통해 나타나는 교육 부문에서의 우리나라 양성평등 상태는 정치참여나 경제부문에 비해 양호하다. 그러나 학교교육의 외형적인 면에서는 성불평등현상이 심각하지 않으나 세부교육과정이나 교육인력의 양성평등의식 등에서는 성별불평등 현상이 여전하다. 이 점을 고려하여 대표지표 구성에는 기초교육수준에서의 남녀차이보다는 고등교육 부문과

평생교육에서의 남녀차이에 비중을 두었으며, 대학졸업 후 인력활용에서의 남녀차이를 보고자 하였다.

경제활동과 소득부문의 여성사회지표는 관심영역별로 평등정도를 대표하는 동시에 정책적 의미가 있는 내용을 선정하였다. 경제활동의 기회영역에서는 고학력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 육아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하여 성별 25-34세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대졸자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대졸자 실업률을 대표지표로 선정하였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낮은 지위의 원인인면서 동시에 결과인 직종분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로서 최상위 직종인 관리직의 성별 비율을 대표지표로 선정하였다. 고용불안정과 저임금의 원천으로 지적받고 있는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의 성별 비교를 지표로 넣었으며, 각종 차별의 결과로 귀결되는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급여액의 남녀비교지표를 선정하였다.

정치 및 사회참여부문에서의 여성사회지표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의 참여와 지위를 보여 줌으로써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될 것이다. 정치 및 사회부문의 관심영역은 정치참여, 행정참여, 사회 및 단체 활동으로 나누어서 부문별로 주요한 지표를 선정하였다.

건강분야의 여성사회지표를 보면 전반적인 건강수준을 보여주는 성별 연령별 기대수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평가를 선정하여 성별 차이를 보고자 하였다. 일차 예방행위에 대한 접근성에 있어서 남녀차이를 볼 수 있는 지표로서 성별 5대암 검진 수진율을 넣었다. 여성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동안 주로 생식건강에 편중되어 기타 유병률이 높은 질환에 대한 성별 차이가 간과되어 왔다. 이를 고려하여 성별 10대 주요 만성 질환별 유병률을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증도를 중심으로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보여 줄 수 있는 성별 입원율을 포함하였다.

사회복지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점차 확대되는 영역이다. 복지부문의 여성사회지표 역시 영역 설정에 있어 기존의 협소한 의미에서 복지로 영역을 설정할 것인가 혹은 보편적 복지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결과 가능한 한 보편적 의미의 복지로 영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복지부문에서 우리사회의 양성평등

상태를 총체적이고 집약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려고 하였다. 향후 정책방향에 도움을 주기위해 양적인 면뿐만 아니라 질적이 면까지도 측정하여 양성평등에 기초한 국민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 지표 체계 구성을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부문의 여성사회지표로 선정된 지표는 성별 공적연금수급자, 빈곤가구주 남녀비율,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여성비율,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성별 취업률, 장애인 성별 취업자 비율의 다섯 개 지표이다.

문화 및 여가부문을 보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상황에서 여가시간이 길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강좌 및 행사가 늘어나면서 여성이 단순한 문화소비자로 설정되거나 남성에 비해서 문화향수 기회가 높은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과는 달리 여성의 경우 남성과 달리 결혼이나 출산에 따른 생애주기의 변동에 따라서 문화활동에 대한 참여도나 소비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사회지표로서 문화 및 여가지표는 성별 분리통계를 통해서 남녀간의 격차를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취업유무, 결혼상태, 연령, 어린 자녀의 존재유무 등에 따른 여성 내부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였다.

문화 및 여가부문의 여성사회지표는 성별 예술행사 관람률, 성별 인터넷 이용률, 여가활동시간의 세 개이다. 이분야의 지표가 적은 이유는 취향의 문제로 인한 것일 수 있고, 성별간 차이와 함께 여성내부의 차이가 큰 지표들은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폭력과 범죄에 관한 여성사회지표개발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른 부문의 지표와 차이가 있다. 첫째, 평등에 대한 기본 방향이다. 정치참여나 경제참여와 같이 폭력행사나 범죄발생에서 남성과 동등한 비율이 되는 것이 양성평등의 방향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로서 여성 비율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며 폭력자체에 대한 감소와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범죄자의 처우에 대한 문제는 양성평등 이전에 인권보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런 이유로 폭력과 범죄분야는 양성평등한 관점보다는 여성범죄자의 모성보호 등 여성의 특수한 문제와 관련된 지표개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폭력과 범죄부문 여성사회지표를 보면 성별 연령별 배우자 가족폭력 경험률, 성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연도별 강간범죄의 공식 발생건수, 강간범죄자의 처분결과, 직장 내 성희롱 성별 경험률과 신고건수 이다. 이들 지표는 여성이 희생자로 많이 노출되는 범죄에 대한 지표들이며, 발생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삶의 질을 하락시킨다는 이유에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지표로 포함시켰다. 강간범의 경우에는 사전예방과 재발을 막기 위한 지표로서 범죄자의 처분결과를 선정하였다.

이상 본 연구에서 개발된 대전여성사회지표들은 향후 대전지역사회의 양성평등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정된 지표에 대해 자료 생산주기, 정의, 산식, 자료원, 시산표의 항목에 대해 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에 게재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은 향후 지표집 발간에 활용될 것이다. 현재 사용 가능한 기존 통계자료가 없는 지표의 자료구축을 위해서는 별도의 설문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한다.

제2절 정책제언

아래에서는 향후 개발된 지표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제언을 제시하도록 한다.

1. 대전여성사회지표집 발간

지표개발이후 가장 시급한 일은 지표체계를 이용한 지표집을 발간하는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표집 발간에 직접적으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개별지표의 세부적인 사항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지표집을 발간할 경우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필요하다. 첫째 지표의 분석수준이다. 각 개별지표마다 지표수치가 나타나는 배경, 원인, 향후 예상에 대한 설명 범위 및 분석수준에 따라 지표집의 성격이 크게 좌우될 것이다. 기존의 국내 젠더 통계 및 지표가 통계 및 지표 제공에 초점을 두고, 단순히 기술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대전여성사회지표집은 대표적 소수 지표를 이용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지표의 독립변수명까지 밝혔으나, 실제 작업을 할 때는 가능한 독립변수를 모두 적용하여 본 뒤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 독립변수를 중심으로 자료를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표의 좀더 정리된 형태인 지수개발을 염두에 두면서 지표체계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지수는 통계, 지표, 지수 중 가공정도가 가장 높고 간결한 형태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지표체계를 기초로 지역의 여성사회지위 지수 혹은 양성평등지수를 개발한다면 그 유용성이 높을 것이다. 또한 지수를 개발한다면 대전지역사회의 여성의 지위와 양성평등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며 정기적으로 시계열 분석과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분석의 단위는 전국과 비교하거나 국제적으로 규모가 비슷한 도시의 변화와 비교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지역간 지위상태의 비교측정과 지역여성정책추진시 활용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표는 지역별 비교 가능한 표준화된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지표는 두 가지로 활용가능하다. 첫째 전국의 광역시와 대전 광역시간 지역단위의 비교를 통해 양성평등이 취약한 내용과 영역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향후 개발할 지수를 이용한 종합적 비교와 부문별로 지역 여성사회지표를 이용한 지역간의 부문별 지표결과 비교 등 다양한 형태로 해볼 수 있다. 둘째 지역의 여성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우리시의 여성정책추진 실적의 평가나 향후 대전광역시 발전계획에 성인지적 정책의 구체적인 목표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3. 성인지적 지역통계생산 기반 구축

지역통계의 빈약함은 비단 여성관련 통계분야 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통계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인지는 지방자치단체 실시이후 지역경제의 기초자료로서 통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생산되는 통계가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들어 지역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본격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각 지자체들이 통계청의 기술자문과 교육을 통해 지역의 자체지표를 개발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시점에 지역통계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통한 성인지성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미 생산된 통계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생산과정에 있는 통계에 대해 여성정책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통계들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비용이 저렴할 것이다.

대전광역시의 경우에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타시도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다. 통계청이나 통계개발원이 대전에 입지해있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대전시 자체의 성인지적 통계생산 기반이 조기에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4. 행정통계의 이용 제도화

국가의 정책실행 수준이 높아질수록 행정통계가 많이 생겨나고, 정확성이 높아지

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많은 행정통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이를 이용한 여성사회지표의 분석에는 아직도 많은 제약이 따른다. 가장 커다란 제약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상 이용되는 행정통계는 사용자를 염두에 두고 생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산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통계자료가 만들어져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통계의 배포도 제한적이다. 행정자료 중 가장 많이 사용이 어려운 형태는 최초의 통계입력이 통계자료 형식이 아닌 보고서 형식에 기입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경우 각 단계마다 재집계와 재보고를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성별로 분리되어 수집된 통계들이 종종 통합되어 성별분리가 어려운 통계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다. 향후 조사의 고비용을 감안할 때 행정통계의 이용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5. 지속적인 정기적 조사 실시 및 지표체계 개선

본 연구의 지표개발을 수행하면서 기본적인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통계자료가 없어 생산이 불가능한 지표들이 다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지속적인 변화 과정에 대한 시계열분석이나 지역간 비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위주로 설문지를 개발하여 정기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 조사를 통해 일회적인 지표의 생산이 아닌, 시계열적 변화와 향후 정책에 중요한 모티브를 형성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위상이 갖추어질 것으로 판단한다.

<그림 5-1> 여성사회지표 개발 및 개선 절차도



6. 지역통계(성인지적 통계) 총괄 부서 설치

본 연구에서는 성인지적 지역통계 생산을 위해 부문별 정책적 관심과 이와 관련하여 반드시 생산되어야 할 기초통계 및 핵심지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생산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기본자료가 되는 지역통계의 성인지적 구축이 여타 통계들의 구축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와 지방정부의 지속적 관심과 정책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대전광역시에는 통계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있으나, 이들 부서는 보통 조사통계에 한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지역남녀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대부분의 행정통계는 각 생산부서에 산재해서 관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전광역시는 기존 행정통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지역통계의 효율적 활용과 여성사회지표의 체계적 생산을 위해서는 대전광역시 내에 지역통계를 통합 관리하는 부서를 두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본다.

7. 통계관련 법 강제를 통한 성인지적 지표 관리

현재 여성발전기본법은 성별 통계작성을 언급하고 있는 유일한 법(제 13조, 시행령 제25조)이지만 지역통계의 생산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그 실효성 또한 미미한 상태이다.

여성발전기본법

제13조(여성관련문제의 조사 등)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필요한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초조사 및 여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정보체계의 구축을 통한 여성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7조(통계·자료의 성별표기)

시장은 여성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시와 소속 기관에서 조사·관리·발표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에서도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통해 성별 분리통계 생산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대전시의 여성 관련 현황에 대한 성별분리통계는 완비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성별분리통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는 한, 대전시 여성사회지표에 따른 대전시의 현황은 파악할 수 없으며, 목표치만큼 달성되고 있는지 또한 추적할 수 없다.

흔히 성별분리통계는 여성정책과 관련된 분야에만 구축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성별분리통계는 여성정책 혹은 가족정책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

는 정부부처에서 다루는 정책과 관련해서만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책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성사회지표 적용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정책의 성주류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현황 및 결과에 대한 통계자료에 성별을 기본 분석단위로 포함시키는 법적 조치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8. 국제도시 간 지표 비교 체계 구축

마지막으로 향후 지표체계가 어떻게 발전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대전시 여성사회지표는 대전시의 현황만을 측정,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전시의 성평등 수준을 국제도시의 성평등 수준과 비교하여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교하여야 하는 외국 도시를 선정하고 그 각각의 도시들과 성평등 정도를 측정하고 비교분석하는 것의 의미와 중요성이 먼저 합의되어야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국제적 수준에서 합의 가능한 의의와 목적, 성과를 수립하고 긴밀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표의 국제적 적용에 대한 각 도시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실제로 성인지 지표를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각 지표의 개념과 정의, 그리고 산식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대전시 여성사회지표안이 비교측정을 위해 선정된 외국의 도시들에서도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각 지표에서 사용된 용어와 개념은 사용하는 언어마다 그리고 각 나라의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비교 가능한 수준에서 개념을 맞추어 나가는 작업과 산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전광역시에는 통계청이 입지해있을 뿐만 아니라, 통계개발원의 우수한 인적자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통계생산의 인프라가 타시도에 비하여 우수한 편이다. 따라서 앞서 제안한 국제도시와의 공동지표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체나 정기적인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제도시 간 협약을

체결하고 지표에 대한 검토 및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국제회의가 불가피하다. 국제회의 내용은 대전시 여성사회지표의 의의와 목적 공유, 지표측정 결과에 대한 국제 도시 간 비교분석의 필요성 합의, 대전시 여성사회지표 개발 및 측정의 방법론 논의, 각 지표별 용어와 개념, 산식의 합의, 매년 말 각 도시별 지표 측정 및 결과에 대한 보고서 교환, 측정 결과에 대한 발표 방식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 고 문 헌

- 경기도청. 「경기여성통계」. 2006.
- 김양희. 「여성사회지표 개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1996.
- 김재인·김성경·권미수. 「여성정책 평가모형 개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2000.
- 노미혜·김영옥·문유경.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1994.
- 대전시청. 「대전여성통계」. 2003.
- 문유경외.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성인지적 지표생산 방안 연구」, 여성부. 2002.
- 박정은. 「여성건강관련 통계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1998.
- 여성부. 「제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07.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7.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 통계청. 「지역통계연보」. 2007.
- 통계청. 「시군구 100대 지표」. 2002.
- 통계청, 한국여성개발원. “Seminar on strategies to produce gender statistics”. 2002.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한국여성개발원. 「제4차 세계여성회의 북경선언·행동강령」.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1995.
- 한국여성개발원. 「여성통계연보」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각년도.
- 한국여성개발원. 「도표로 보는 여성통계」. 2003.
- Castles, Ian. Women in Australia. Canberra: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1993.
- Statistics Canada. “Canada country report-producer”, 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 Joint ECE/UNDP Workshop on Gender Statistics for Policy Monitoring and Benchmarking(Orvieto, Italy, 9-10 October 2000), Working Paper No.2., Statistical Commission and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 Statistics Sweden. “Implementation in Sweden of recommendations concerning gender statistics in the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1995”. 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 Joint ECE/INSTRAW/UNSD Work Session on Gender Statistics(Geneva, 20-22 April 1998), Working Paper No.23., ECE/INSTRAW/UNSD.
- Statistics Sweden. “Work to improve gender statistics in sweden”. 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 Work Session on Gender Statistics(Orvieto, Italy, 9-10 October 2000), Working Paper No. 16., Statistical Commission and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 UN. The World's Women 1995: Trends and Statistics : UN 1995

UNDP(2003), Human Development Report

인터넷 주소 <http://www.nso.go.kr>(통계청)

<http://www.scb.se>(스웨덴 통계청)

<http://www.kwdi.re.kr>(한국여성개발원)

부 록

대전여성사회지표개발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표

대전시 여성사회참여지표 개발을 위한

ID		
----	--	--

델파이 조사지

응답자 성명 및 소속 : ()

안녕하십니까?

본 델파이 조사는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전여성사회참여지표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정책 활용도가 높은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저희 연구진은 대전여성지표체계 개발을 위해서 9개 부문을 선정한 후 부문별 관심영역을 설정하고 개별 예비지표를 개발하였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대전여성사회지표에 대해 귀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귀한 시간내주시어 응답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문항	문항 내용
1	여성지표개발의 필요성과 목적
2	여성지표 개발 모형
6	대전시 여성지표개발의 부문 설정

● 연구책임자 : 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박노동

● 문의 및 연락처 : 조사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부 책임연구원 박노동
전화 : 042) 471-5643 / 이메일 : labourbak@djdi.re.kr

● 제출 : 답변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이나 Fax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전시 서구 둔산동 1420 대전광역시청 16층 대전발전연구원
전화 : 042) 471-5643 / 팩스 : 042) 471-3615
이메일 : labourbak@djdi.re.kr

● 1차 델파이 응답 기한 : 2008. 7.30

1. 부문분류의 중요도 / 타당성

1) 본 연구진은 대전여성사회지표 개발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9개 부문의 영역을 선정하였습니다. 귀하는 부문 분류 타당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적절하다 ② 적절하다 ③ 적절하지못하다 ④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

① 인구	② 가족	③ 교육	④ 경제활동	⑤ 정치사회참여
⑥ 건강	⑦ 사회복지	⑧ 문화·여가	⑨ 폭력·안전	

2) ③, ④에 응답하신 분은 위의 9개 영역 선정이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아울러 개선방안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3) 위 9가지 영역 각각은 대전시 여성의 삶에 어느 정도 비중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응답해주시고, 삭제할 항목이 있으면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영역 중요도	삭제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① 인구		1	2	3	4	5
② 가족		1	2	3	4	5
③ 교육		1	2	3	4	5
④ 경제활동		1	2	3	4	5
⑤ 정치·사회참여		1	2	3	4	5
⑥ 건강		1	2	3	4	5
⑦ 사회복지		1	2	3	4	5
⑧ 문화·여가		1	2	3	4	5
⑨ 폭력·안전		1	2	3	4	5
[의견 및 추가사항]						

2. 하위영역의 분류 적절성

- 1) 위의 9가지 영역의 하위영역이 각각의 영역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개략적인 수치로 기술하여 주시고, 각각의 영역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표해주시고, 의견이나 추가사항이 있으면 기록하여주십시오.

① 인구부문

		중요도 비중(%)	적합	수정	부적합	수정·부적합 이유
인구규모	인구추세	%				
인구구성	연령별 인구, 혼인상태별 인구	%				
인구이동	국제이동	%				
출생	출산율, 출산시기, 인공임신중 절을, 남아선호, 자녀관	%				
사망	기대수명, 사망률	%				
전체		100%				
[의견 및 추가사항]						

② 가족부문

		중요도 비중(%)	적합	수정	부적합	수정·부적합 이유
가구	가족 및 가구형태, 가구주	%				
가족형성 및 해체	혼인, 이혼	%				
탈가족화	일인가구	%				
태도와 행동	태도, 권한관계, 무급노동, 노년준비	%				
가족과 직장 양립	모성보호, 어머니노동, 아동보육	%				
전체		100%				
[의견 및 추가사항]						

③ 교육부문

중요도 비중(%)	적합	수정	부적합	수정·부적합 이유
--------------	----	----	-----	--------------

교육기회	교육수준, 학교교육, 사회교육, 직업훈련	%				
교육여건 및 자원	교육인력, 교육비	%				
교육의 결과	교육의 효과, 교육의 성과	%				
전체		100%				

[의견 및 추가사항]

④ 경제활동부문

중요도 비중(%)	적합	수정	부적합	수정·부적합 이유
--------------	----	----	-----	--------------

경제활동 의 기회	경제활동참가, 비경제활동인구	%				
취업구조	취업구조	%				
근로조건	임금, 승진, 고용안정	%				
총노동	총노동	%				
소득과 소 비	가구소득, 임금외소득	%				
여성취업에 대한 인식	취업에 대한 찬성도, 차별인지 도	%				
전체		100%				

[의견 및 추가사항]

⑤ 정치 및 사회참여부문

중요도 비중(%)	적합	수정	부적합	수정·부적합 이유
--------------	----	----	-----	--------------

정치 참여	유권자정치활동, 여성의 정치진출, 정책결정 참여	%				
행정 참여	공무원 인사 및 조직, 정책결정 참여	%				
사회 참여	단체·자원활동, 노조·언론	%				
전체		100%				

[의견 및 추가사항]

⑥ 건강부문

중요도 비중(%)	적합	수정	부적합	수정·부적합 이유
--------------	----	----	-----	--------------

건강상태	생존연수, 영양상태 및 섭취, 보건의식형태, 개인건강평가 및 관리	%				
생식건강	임신 및 출산, 모자보건관리, 생식관련사망	%				
사망 및 상병	사망수준, 상병상태	%				
보건 의료 이용	의료서비스 이용, 의료서비스	%				
보건 의료 자원	보건의료인력, 보건의료시설, 의료비	%				
의료보장	의료보험, 의료급여	%				
전체		100%				

[의견 및 추가사항]

⑦ 사회복지부문

중요도 비중(%)	적합	수정	부적합	수정·부적합 이유
--------------	----	----	-----	--------------

복지 전반	일반인식	%				
사회보험	인지도, 건강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복지인력자원,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				
전체		100%				

[의견 및 추가사항]

⑧ 문화 및 여가부문

중요도 비중(%)	적합	수정	부적합	수정·부적합 이유
--------------	----	----	-----	--------------

문화유산	문화유산	%				
문화창작 및 생산	문화예술교육, 여성문화산업	%				
문화소비	문화예술소비, 대중문화소비, 문화시설이용	%				
사회문화 활동	문화단체활동, 문화활동에 대한 공적 지원	%				
문화의식	문화에 대한 태도	%				
여가활용 조건	여가시간실태, 여가활동비용·시간, 여가활동에 대한 태도	%				
여가활용 실태	관광여행, 체육활동, 사이버문화활동	%				
전체		100%				

[의견 및 추가사항]

⑨ 폭력 및 안전부문

중요도 비중 (%)	적합	수정	부적 합	수정·부적합 이유
---------------	----	----	---------	--------------

폭력에대한 두려움	폭력에 대한 두려움	%				
성폭력발생과 피해	발생, 보호와 교정	%				
가정폭력 발생과 피 해	발생, 보호와 교정	%				
여성범죄	발생, 교정	%				
안전	안전	%				
전체		100 %				
[의견 및 추가사항]						

2. 개별지표 선정의 적절성

1) 다음은 9개 부문별 예비지표들입니다. 다음 개별지표에 대해서 적합성 여부를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개별지표에 대해서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 그 이유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인구부문

하위영역	예비지표	적합	부적합	수정	삭제 및 수정이유
인구추세	연도별 성별 총조사 인구				
	연도별 성별 연앙추계인구				
	성별 출신지역별 외국인 인구				
	성별 결혼이민자(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수				
인구구성	성별 연령별 인구				
	성별 연령별 인구 추계				
	성별 연령별 노인인구 구성비				
	성별 연령별 생산연령인구 구성비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인구구성비				
인구이동	성별 거주이동에 대한 선호도				
	성별 거주이동 이유				
출생	합계출산율				
	25-29세 출산율				
	30-34세 출산율				
	교육수준별 출산율				
	첫 자녀 출산시 여성 평균연령				
	산모 연령 분포				
	혼인상태별 인공임신 중절률				
	연령별 인공임신 중절률				
	출생성비				
	출생순위별 출생성비				
	성별 남아선호도				
	성별 이상자녀수				
	성별 이상적인 첫 출산 연령				
	사망	성별 출생시 기대수명			
성별 영아 사망률					
성별 연령별 사망률					

② 가족부문

하위영역	예비지표	적합	부적합	수정	삭제 및 수정이유
가구	성별가족형태별 분포				
	성별 한부모 가구 분포				
	성별 연도별 가구주 분포				
	혼인상태별 여성가구주 분포				
가족형성 및 해체	성별 평균 초혼 연령				
	성별 평균 재혼 연령				
	조혼인율				
	성별 평균 이혼 연령				
	조이혼율				
	성별 이혼 후 자녀 양육 담당자				
탈가족화	성별 연령별 일인 가구 분포				
	성별 독거 노인 가구 분포				
태도와 행동	성별 결혼에 대한 태도				
	성별 이혼에 대한 태도				
	성별 무자녀에 대한 태도				
	자녀 입양에 대한 태도				
	태도-여성도 가족생계 동등한 책임				
	태도-남성도 가사육아 동등한 책임				
	성별 남자 육아휴직제도 활용에 대한 태도				
	성별 가정 내 의사결정(자녀교육, 주거지, 생활비, 재산·투자관리)				
	성별 본인 명의 재산-주택				
	성별 본인 명의 재산-주택				
	성별 배우자의 관계 만족도				
	성별 가족보살피기 시간사용				
	성별 가정관리 시간 사용				
	성별 노후 준지 방법				
가족과 직장양립	성별 육아휴직자 수와 구성비				
	출산휴가 수급자 비율(출산취업자중)				
	6세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자녀연령에 따른 여성의 노동시간 분포				
	3세 미만 자녀를 둔 일하는 여성의 보육방식 분포				
	6세 미만 자녀를 둔 일하는 여성의 보육방식 분포				

③ 교육부문

하위영역	예비지표	적합	부적합	수정	삭제 및 수정이유
교육기회	25세 이상 인구의 성별 평균 교육년수(현재, 20년전)				
	성별 연령별 평균 교육년수				
	대졸자 중 여성비율				
	영재교육 참가자 여학생 비율				
	대학 취학률 1 (현재, 20년전)-휴학생 포함				
	대학 취학률 2 (현재, 20년전)-휴학생 제외				
	학사학위 취득자 중 여성비율				
	석사학위 취득자 중 여성비율				
	박사학위 취득자 중 여성비율				
	전공계열별 대학생 중 여학생 비율				
	전공계열별 대학원생 중 여학생 비율				
	전공계열별 박사과정 중 여학생 비율				
	평생학습 참여자 여성비율				
	성인의 1일 교육훈련 사용자간의 성별 차이				
	기능장 자격자 중 여성비율				
	기능사 자격자 중 여성비율				
	직업훈련원생 중 여성비율				
	교육여건 및 자원	재직자 훈련 참여 근로자 중 여성비율			
실업자 훈련 참여자 중 여성비율					
초등학교 교원과 교장의 여성비율					
중학교 교원과 교장의 여성비율					
고등학교 교원과 교장의 여성비율					
대학교 전공계열별 여교수 비율					
교육전문직의 여성비율					
고등학생의 성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교육의 결과	고등학생의 성별 1인당 월평균 교육비				
	15세 남녀학생이 국어, 영어, 수학, 과학과목의 성취도의 차이				
	성인의 기초직업능력 남녀차이				
	전공분야별 대졸 취업률의 남녀차이				
	성별 고졸대비 대졸 임금격차				
지식재산권출원건수 여성비율					

④ 경제활동부문

하위영역	예비지표	적합	부적합	수정	삭제 및 수정이유
경제활동 기회	성별 연도별 경제활동참가율				
	연도별 경제활동인구의 여성 비중				
	25-34세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대졸자의 경제활동참가율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비율				
	성별 연도별 실업률				
	성별 대졸자 실업률				
취업구조	연도별 비경제활동인구 중 여성비중				
	행정관리직 여성비율				
	전문직 여성비율				
	30대 상장기업의 여성고용비율				
	차세대성장동력 10대산업 여성종사자 비율				
근로조건	5인 이상 사업체 대표자의 여성 비율				
	무급가족 종사자의 여성비율				
	남성임금대비 여성임금비				
	최저임금 적용근로자 여성비율				
	기업내 과장급 이상의 여성비율				
총노동	근로자의 평균 근무년수 남녀차이				
	성별 근로자의 일용직 비중				
	성별근로자의 시간제 비중				
소득과 소비	성별 총노동시간/유급노동시간/무급노동시간 비율				
	가구주 성별 소득격차				
	가구소득 중 배우자 기여율				
	국민연금 수급액 성별격차				
	재산세 성별 격차				
여성취업 에 대한 인식	승용차 소유주 여성비율				
	성별 여성의 취업지속에 대한 의견				
	성별 전업주부의 재취업 장애요인에 대한 의견				
	성별 채용 차별에 대한 인지도				
	성별 업무 배치 차별에 대한 인지도				
	성별 승진 차별에 대한 인지도				
	성별 퇴직 차별에 대한 인지도				

⑤ 정치 및 사회참여부문

하위영역	예비지표	적합	부적합	수정	삭제 및 수정이유
정치참여	성별 정당지지도 및 유권자 투표율				
	지방의회의원 당선자 중 여성비율				
	성별 정치에 대한 관심				
	지방의회의원 여성할당제에 대한 의견				
	여성대통령에 대한 선호				
	주요정당 여성비율				
	주요정당의 보직자 중 여성비율				
	지방의회위원 상임위 위원장 중 여성비율				
행정참여	지방법원 여성공무원 비율				
	지방법원 여성판사비율				
	지방검찰청 고위직 중 여성비율				
	경찰 고위직 중 여성비율				
	지방직 공무원 중 여성비율				
	시 양성평등정책 전담조직 운영				
	시 정책자문위원 중 여성비율				
사회참여	NGO 중 여성단체 비율				
	여성단체의 사회발전 기여도				
	지자체 등록 NGO 상근활동가 중 여성비율				
	지자체 등록 자원봉사자 중 여성비율				
	노동조합 대의원 중 여성비율				
	노동조합 간부 중 여성비율				
	주요언론 종사자 중 여성비율				
주요언론 종사자 중 고위직 여성비율					

⑥ 건강부문

하위영역	예비지표	적합	부적합	수정	삭제 및 수정이유
건강상태	성별 건강수명				
	성별 BMI(체질량지수)				
	성별 빈혈 지수				
	성별 흡연량, 흡연인구비율				
	성별 음주 횟수 및 음주인구비율				
	성별 개인의 건강상태평가				
	성별 5대 암 수진율				
생식건강	성별 피임실천율				
	제왕절개 분만율				
	장애아 출현율				
	자체증아 출산율				
	선천성기형아 출산율				
	산전관리횟수				
	모성사망비				
사망 및 상병	성별 10대 사인별 사망률				
	성별 암사망률(암종류별)				
	성별 주요 만성 질환별 유병률				
	성별 생식관련 질환 유병률				
	성별 AIDS/HIV보균자수				
성별 활동제한일수					
보건의료이용	성별 입원율(의료기관 중별 입원율/전체 및 심혈관계 질환)				
	성별 외래이용률(의료기관 중별 외래 이용률)				
	성별 평균재원일수(전체 및 심혈관계질환)				
	성별 의료서비스 만족도				
보건의료자원	의료행정관리직의 직급별 여성분포				
	보건의료 시설 수와 병상수				
	지역별 산과병의원수				
	성별 총국민의료비대 1인당 의료비				
의료보장	성별 수진율 및 평균수진건수와 건강진료일수				
	성별 전체 의료비 중 본인부담률				
	성별 의료급여적용인구				
	성별 1인당 평균급여액				

7 사회복지부문

하위영역	예비지표	적합	부적합	수정	삭제 및 수정이유
복지전반	생활여건의 변화에 대한 인식의 성별차이				
사회보험	사회보험에 대한 인지도의 성별차이				
	성별건강보험 평균급여액				
	국민연금제도의 노후보장에 대한 인식의 성별 차이				
	성별 공적연금 가입자				
	성별 공적연금 수급자				
	성별 공적연금 평균 급여비				
	산재보험 수급자 급여비				
	고용보험 가입비율				
공공부조	실업급여 수혜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빈곤가구주 남녀비율				
사회복지 서비스	의료급여 대상자 남녀비율				
	사회복지시설별 평균종사자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의 성별 분포				
	전 산업대비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평균임금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여성 비율				
	65세 이상 노인 중 복지시설 생활인 중 여성 비율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성별 취업률				
	성별 65세 이상 생활비(용돈)마련 방법				
	성별 결식노인비율				
	아동 성별 국내입양아 수				
	성별 성적 학대 받은 아동 수				
	성별 장애인 등록률				
	성별 재가 장애인수				
	성별 직업재활시설 이용률				
	장애인 성별 교육수준				
장애인 성별 혼인상태					
장애인 성별 취업자 비율					

⑧ 문화 및 여가부문

하위영역	예비지표	적합	부적합	수정	삭제 및 수정이유
문화유산	지정문화재수중 성별 무형문화재 수의 비중				
문화창작 및 생산	성별 학교교육과정이외의 문화예술교육 경험여부(15세)				
	성별 문화예술관련 창작활동의 참여 여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만족도				
	성별 문화예술분야 졸업생의 해당분야 취업률				
	문화산업종사자중 여성비중				
	문화산업종사자의 성별임금격차				
문화소비	성별 소득수준에 따른 문화활동참가 비용				
	성별 문화활동참가시간				
	성별 예술행사관람률				
	성별 생애주기의 변화에 따른 문화욕구 변화				
	성별 연령대별 TV시청시간				
	성별 대중매체에서의 성적표현에 대한 의견				
사회문화 활동	성별 문화시설이용률				
	성별 지역문화시설이용률				
	성별 문화단체참여율				
	문화예술기금 수혜자의 성별 비중				
문화의식	성별 여성주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의견				
	문화적 결핍감의 성별차이				
여가활용 조건	문화적 자신감의 성별 차이				
	여가활동방법의 성별 차이				
	평균여가시간의 성별 차이				
	가구구성원별 여가활동비용지출 우선 순위				
	성별 시간 압박감				
여가활용 실태	성별 여가활동의 어려운 점				
	성별 해외여행 비율				
	성별 생활체육참여율				
	성별 스포츠경기 관람률				
	성별 문화인터넷 사용비율				
	성별 사이버동호회참여율				

⑨ 폭력 및 안전부문

하위영역	예비지표	적합	부적합	수정	삭제 및 수정이유
폭력에 대한 두려움	성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성별 연령별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				
	성별 연령별 강간피해에 대한 두려움				
성폭력 발생과 피해	연도별 강간범죄의 발생건수				
	강간범죄 종류(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별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 비율				
	강간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강간범죄의 신고율				
	성별 생애동안 유형별(인터넷, 전화 등) 정도별 성폭력 경험률				
	유형별 성폭력 상담실적				
	직장내 성희롱 성별 경험률과 신고건수				
	강간범죄자의 처리결과 강간범죄자의 재범률				
가정폭력의 발생과 피해	성별 연령별 가정폭력 경험률				
	가정폭력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가정폭력범 가해자 조치결과				
여성범죄	성별 범죄자수 및 인구10만명당 범죄발생비율				
	주요 범죄 여성비율				
	재소자 여성비율				
	출소자 성별 취업률				
안전	성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기본과제연구보고서 2008-02

대전여성사회참여지표 개발연구

발행인 육 동 일

발행일 2008년 9월

발행처 대전발전연구원

302-280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160-20

전화: 042-530-3523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jdi.re.kr>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